

1. 이 보고서는 농업기본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와 “농업시책에 관한 문서”로서 작성하였다.
2. 이 보고서의 편제는 제1편에 1972년도 동향, 제2편에 1973년도 시책, 제3편에 1974년도 시책방향을 수록하였다.
3. 제1편의 동향편에는 196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주로 1972년의 농가소득과 생활수준, 농업생산, 경영 등에 관한 제 동향을, 제2편 1973년도 시책에는 1973년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제3편 1974년도 시책방향에는 1974년에 강구하고자 하는 농림시책을 기술하였다.

17080919

1973년 도

농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민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여백**

# 목 차

## 제 1 편 72년도 농업동향

제 1 장 72년도 농업경제의 움직임.....	15
1. 일반경제동향 .....	15
2. 농업경제동향 .....	18
제 2 장 농가소득과 농촌생활 .....	24
1. 농가소득의 신장과 구성 .....	24
2.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수준 비교 .....	27
3. 농가자산과 농촌생활 환경 .....	30
제 3 장 농업경영의 동향 .....	34
1. 농업경영의 여건변화.....	34
2. 농업경영의 실태.....	38
3. 농업경영의 성과.....	41
제 4 장 농업생산과 농산물수급 .....	45
1. 농업생산동향 .....	45
2. 양곡의 수급.....	50
3. 농수산물수출 .....	52
제 5 장 농산물가격과 농가교역조건 .....	55
1. 물가동향과 농산품가격.....	55
2. 농가구입가격 .....	58
3. 농가판매가격 .....	61
4. 곡물의 상품화율.....	63
5. 농가의 교역조건.....	64

## 제 2 편 73년도 농업시책

제 1 장 73 시책방향 .....	69
제 2 장 식량증산.....	71
1. 식량증산 10대 중점시책.....	71
가. 쌀 대단위증산단지 설정.....	71
나. 벼 집단지배 .....	72
다. 용수확보.....	72
라. 비장려품종 일소 .....	73
마. 보온못자리 확대설치 .....	74
바. 지력증진.....	74
사. 병충해방제.....	75
아. 수확후처리개선.....	75
자. 경지면적확보.....	75
차. 보리증산.....	76
2. 비료의 효과적 시용과 시책개선.....	76
3. 주요보완시책 .....	78
가. 쌀 계약증산 .....	78
나. 다수확농가 시상 .....	79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	80
1.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80
2. 농업용수개발 .....	81
3.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	82
4. 경지정리 .....	85
5. 농지조성 .....	86
6. 농업기계화 .....	87

제 4 장	성장농업의 확대	89
1.	축산진흥	89
가.	주요가축의 증식	90
2.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92
3.	경제작물증산	96
4.	잠업증산	97
제 5 장	농산물유통구조개선	100
1.	유통시책의 방향	100
2.	유통구조개선시책	101
3.	양곡정책	105
가.	양정의 방향과 72년도 양정의 성과	105
나.	양곡수급동향	106
다.	외곡도입	107
라.	곡가정책	108
마.	식생활개선	109
바.	양곡의 보관관리	110
4.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의 개선	114
5.	농수산물 수출확대	115
제 6 장	새마을운동과 농업구조개선	118
1.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118
2.	농민교육	119
3.	농업구조개선 사업	120
4.	농가부업장려	124
제 7 장	지원시책	128
1.	시험연구사업	128
2.	농촌지도사업	133



3. 농업통계개선.....	137
----------------	-----

### 제 3 편 74년도 농업시책방향

제 1 장 농정의 방향.....	143
-------------------	-----

1. 농정의 당면과제와 3대 목표.....	143
2. 10대 중점시책 .....	144

제 2 장 식량증산 .....	149
------------------	-----

1. 단지조직영농의 확대 .....	149
2. 우량종자의 보급확대 .....	150
3. 보온못자리 확대설치 .....	151
4. 병충해방제.....	151
5. 지력증진.....	152
6. 증산저해요인의 사전예방 .....	153
7. 발작물증산.....	153
8. 비료수급대책.....	154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155
-----------------------	-----

1. 농업용수개발.....	155
2. 4대강 유역 및 대단지 농업용수 개발.....	155
3. 경지정리.....	156
4. 야산개발.....	156
5. 농업기계화.....	156

제 4 장 성장농업의 확대.....	158
---------------------	-----

1. 축산진흥.....	158
가. 한우증식 .....	158
나. 양돈 및 양계 .....	158

다. 낙농장려 .....	159
라. 초지조성 및 사료대책 .....	160
2. 경제작물증산.....	160
3. 잠업증산.....	161
제 5 장 농산물유통개선 .....	163
1. 농산물의 수급원활과 가격지지.....	163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체계의 강화 .....	164
3. 양곡수급의 원활과 곡가안정.....	165
4. 농수산물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 .....	166
제 6 장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169
1. 새마을생산사업의 추진과 농민교육.....	169
2. 농업구조개선사업.....	169
3. 농가부업의 장려 .....	170
제 7 장 지원시책 .....	171
1. 농사시험연구의 강화 .....	171
2. 농촌지도사업의 강화 .....	173
3. 농업통계개선.....	175

**여백**

# 제 1 편 72년도 농업동향

**여백**

## 제 1 장 72년도 농업경제의 움직임

### 1. 일반경제동향

#### 가. 개 황

72년의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급속한 수출신장에 주도되어 71년 하반기 이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 점차 경기를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연중에 국제정치면에서는 미국과 중공 그리고 일본과 중공간에 국교 및 통상의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교섭이 진전되고 월남전쟁이 축소되는 등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예상치 못한 동요 속에서 국제경제동향은 연초에 들어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경기가 대체로 회복세를 보인 것이 세계무역의 신장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호전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상은 우리나라 수입원자재의 원가상승에 자극요인이 되었음도 사실이다.

연중의 국내 주요 경제정책은 상반기에 있어서의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예산의 조기집행, 금융자금 공급의 확대, 금리인하, 3.15물가 동결조치, 그리고 하반기에 있어서의 이른바 8.3조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일련의 경제정책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 나. 경제성장

연중의 국민총생산은 경상시장가격으로 3조8천6백억원에 달하여 명목상 지난해보다 22.5%가 증가하였으며 70년 불변가격을 기준할 때 실질성장율은 7.0%를 기록하여 전년의 9.2%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경상시장가격으로 119,077원에 달하여 전년보다 20.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율이 둔화된 이유는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민간건설 및 설비투자를 전년에 비해 크게 감퇴시킨데 기인한다. 그렇지만 수출만은 지속적인 신장을 보여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은 지난해보다 48%가 늘어난 1,675.9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도 574.5백만달러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환보유액도 자본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의 현저한 개선에 힘입어 연중 159백만달러가 증가한 694백만달러 (연말 현재)를 시현하였다.

산업계의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제조업이 수출수요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생산활동을 회복하여 연중 16%의 높은 성장율을 거양하므로써 전년에 이어 전체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제품과 신발류 및 의류제품 등을 포함한 소비재산업은 19%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였지만 건설자재 산업은 예년의 성장세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연중 겨우 4.5%의 성장에 머물렀으며 기계류를 포함한 자본재산업 역시 2.3%의 성장에 그쳐 투자활동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었다.

## 다. 재정금융

72년의 재정, 금융정책은 경기회복과 수출촉진에 주력하여 강구되었으

며 이를 위해 특히 금융지원이 강화되었다. 연중의 국내여신은 수출금융  
용자비율의 인상, 상업어음 재할인 한도의 증액, 중장기 시설자금 공급증  
대, 중소기업 긴급 자금방출 등으로 연말 현재 국내여신 잔액은 1조5,213  
억원에 달하여 전년말보다 31%가 늘어났다.

연중의 예금은행 총 예금은 전년대비 34%에 해당하는 3,143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통화성예금 1,120억원, 저축성예금 2,023억원이 늘어난 결  
과이다. 두 예금의 증가율은 전년 수준을 다같이 상회하면서도 통화성예  
금 51%증가에 대해 저축성예금이 29%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두 차례의 금리인하와 8.3조차 이후 기업의 유동자산 보유증  
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시장동향에 눈을 돌려보면 증권시장은 예년에 찾아볼 수 없었  
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즉 연중 증권거래실적은 787억원으로  
전년실적에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발행시장에 있어서도 연중 99억원의 회사채가 신규로 발행되었고 11억  
원의 신주가 공모되었으며 상장회사수도 지난해의 50개 회사에서 66개 회사  
로 늘어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414억원에서 1,743억원으  
로 증대되는 등 활황을 나타내었는데 자본시장이 이와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시중 자금사정이 완만한데 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가 단  
행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증권상승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주식 및 채권  
에 대한 대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과 정부가 기업공개유도정책을 적극적  
으로 펴왔다는데 기인한다.

## 라. 물 가

연중의 물가추세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매우 안정되었다. 전국 도매물가  
를 연평균으로 볼 때 전년의 상승율 8.6%를 상회하는 14%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대비로는 전년의 상승율 13%를 하회하는 8.5%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정부가 곡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미백 가격이 상반기중에 17% 상승하였고, 연초에 주세 및 물품세율을 부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월에는 전기요금이 15% 정도 인상되고 환율도 상반기중에 7.6%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당, 원목, 원모 등 국제상품가격의 상승이 수입가격 등귀를 통하여 코스트·풋쉬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3.15물가동결조치를 실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가격을 3월 6일 현재 가격수준으로 묶는 한편 펄프, 전기동, 생고무 등 원자재를 4~5월에 집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꾀하고 하반기에는 정부가 방출량을 늘리는 한편 방출가격을 인하하여 8.3조치를 통하여 물가 상승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힘쓰므로써 전국 도매물가는 6월부터 상승세가 크게 수그러졌다.

## 2. 농업경제동향

### 가. 개 황

연중의 농업생산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9,712억원(경상시장가격)에 달하여 전년대비 21%의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실질 성장은 -0.5%에 머물렀다.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추진으로 축잠이나 경제작물 등은 높은 신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농업성장이 이같이 둔화된 이유는 맥류를 제외한 여타 양곡 생산이 식부면적의 감소와 일기 불순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 양곡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0.9% 감소된데 기인한다.

7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본 농업부문의 72년 부가가치는 6,448.9억원으로 전년도의 6,482.8억원 보다 0.5%가 줄었는데 이 중 85%에 해당하는 5,717.5억원은 재배업 생산이고, 그 다음은 축산업 생산이 약 8%이며 그

밖에는 농가부업 및 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농업생산을 포함한 농림어업 부가가치가 G.N.P상에서 점하는 비중은 25.2%로서 71년의 26.5%에 비해 1.3%가 저하하였다.

#### 나. 농업생산

양곡생산을 위한 식부면적은 지난해의 2,799만정보에서 33만정보가 줄어든 2,766만정보이며, 72년도에 생산된 양곡은 약 721만%으로 계상되고 있다. 해마다 농경지는 축소경향에 있어 식부면적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연중의 식부면적 감소율은 1.2%로 지난해의 5.8%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는 21천정보의 실적을 보여 연정리면적은 200천정보에 달했으며, 총대상면적 588천정보에 대한 정리비율은 34%에 이르렀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리불안전담의 신규개발과 수원보강개발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수리안전담율을 71년의 81.8%에서 82%로 높였다.

그리고 농작물생산에 소요되는 비료소비량은 65년만 하더라도 39.3만% (성분톤)이던 것이 70년에는 56.3만%으로 늘어났고, 71년에는 다시 늘어나 60.5만%, 72년에는 64.8만%을 기록하여 70년 이래 해마다 약 7%의 소비증가가 나타났다.

#### 다. 농수산물 수출입

연중의 농산물수출은 전략 수출품목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과 주요 수출선인 일본의 「엔」화 절상에 따르는 교역조건의 개선, 그리고 수출수요의 증대 등으로 대중 품종인 생사, 양송이, 돈육 등의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임으로써 지난해보다 29.6%가 증가한 42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0%로 65년의 37%나 71년의 30.7%에 비하면 점차 저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농산물의 수출이 농산물수출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신장하였기 때문이다.

전기 농수산물의 수출실적을 다시 농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임산물로 나누어 그 구성비를 보면 농축산물이 18.3%, 수산물이 35.9%로 되어 있다

한편 72미곡년도의 양곡수입규모는 양곡생산의 부진과 식량 수요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3,210천 $\%$ 에 달하였는데 이 가운데 미곡수입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323천 $\%$ 이 감소하였고 맥류는 전년도 보다 약 39%가 증가한 2,135천 $\%$ 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양곡 수입구조의 개선은 정부의 강력한 혼분식 장려와 미맥간 가격 격차의 확대에 의한 쌀소비의 감소에서 초래된 것이다.

#### 라. 농가교역조건

농가의 교역조건은 고미가정책과 이중맥가제, 그리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가격예시제 품목의 확대, 71년산 미곡의 목표량을 초과하는 수매실적, 농산물안정기금의 의욕적 운용 등으로 연중의 농가구입가격 지수(1970=100)는 130.5를 마크하였는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7.9를 마크함으로써 패리티율은 113.3으로 나타나 근년에 보기 드물게 만큼 농가에 유리한 교역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연중의 농가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429천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20.5%의 증가이며 그 가운데 농업소득은 약 80%에 해당하는 35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가 증가하였다.

#### 마. 농업구조

농업구조면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농가호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3만 호가 감소한 2,452천호이며, 이 가운데 전업농가는 약 85%에 해당하는

2,081천호이고 나머지는 1종 겸업농가 152천호, 2종 겸업농가 219천호 계 371천호이다. 그리고, 72년의 농가인구는 14,677천인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35천인이 줄어 들었다.

연중의 업태별 농가호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경종농가는 답작농가가 약 21천호, 전작농가가 약 10천호, 고등원예농가가 1.5천호 감소한 반면 과수농가와 채소농가가 약 4.5천호정도 증가하였고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전년대비 42.6%가 증가한 22.8천호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잠농가가 지난해보다 약 6천호가 늘었고 축산농가는 1.4천호가 줄었다.

농경지면적은 지난해에 비하여 29천정보가 감소된 2,261천정보이며, 동 감소율은 약 1.3%로 나타나 농가호수의 전년대비 감소율 1.2%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도 71년의 9.23단보에서 72년에는 9.22단보로 미미하나마 줄었다.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동향을 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연중에 13세 이하는 남녀 공히 줄어들었고, 14~19세 연령층은 남녀 공히 늘어났으며 20~49세 층은 남자가 늘어난 반면 여자는 줄어서 전체로는 늘어났고 50~59세 층은 남녀 공히 줄어들었는데 60세 이상은 반대로 남녀가 다같이 늘어났다.

농가인구 총수가 전년에 비하여 줄어든 상황속에서 연령별 농가인구의 증감동향이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가의 중견 노동력층의 후퇴를 염려케 한 것과는 달리 구조적 농가 노동력의 취약화를 점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나 이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공업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노동력 이동이 아직 현저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연중의 농가인구 연령별 동태를 구태어 특징화 시킨다면 13세 이하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줄어든 반면 14세 이상 50세 미만의 연령층이 늘어서 농가인구는 지난해 보다 노동력면에서 한결 충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농가 인구 추이

단위 : 천인, %

표 1-1

구분	연령별 농가 인구 추이																		
	농가 인구		13세까지		14~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계	남	계	남	계	남	계	남	계	남							
71	인	14,712	7,377	7,335	5,680	2,939	2,741	2,108	1,112	996	4,523	2,269	2,254	1,257	580	677	1,144	477	667
	구성비	100	50.1	49.9	100	51.8	48.2	100	52.8	47.2	100	50.2	49.8	100	46.1	53.9	100	41.7	58.3
72	인	14,677	7,400	7,277	5,505	2,849	2,656	2,232	1,184	1,048	4,544	2,305	2,239	1,242	578	664	1,154	484	670
	구성비	100	50.4	49.6	100	51.8	48.2	100	53.0	47.0	100	50.7	49.3	100	46.5	53.5	100	42.0	58.0

자료 : 농수산부 동업기본통계조사결과

72년의 농가인구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취업인구는 도리어 늘어나서 총산업취업인구 10,026천인 중 50.6%에 해당하는 5,078천인을 헤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체 취업인구면에서만이 아니고 농

취업인구동태

표 1-2 단위 : 천인

연도	구분	총취업인구 (A)	농림수산업취업 (B)	B/A
67		8,914	4,924	55.2
68		9,261	4,863	52.5
69		9,347	4,798	51.3
70		9,574	4,834	50.5
71		9,708	4,709	48.5
72		10,026	5,078	50.6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가 평균 가구원수가 지난해의 5.83인에서 올해는 5.71인으로 줄었는데 영농종사자는 2.92인에서 2.98인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 72년부터 실시되고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새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 그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농업노동력의 충실화는 도시근로자소득에 대한 농가소득의 상대적 개선에 기여하였지만 농·공간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면에서는 격차를 더 벌려 놓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농업취업자의 노동능률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것이 농정의 중요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장 농가소득과 농촌생활

### 1. 농가소득의 신장과 구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농가소득은 72년에도 429,394원으로 지난해의 356,382원보다 73,012원 즉 20.5%나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지난해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그간의 물가상승요소가 명목소득의 증가에 크게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점을 감안한다면 손치더라도 실질소득 역시 증가한 셈이다.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농업소득으로서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어느해 보다도 가장 높아 82.3%에 해당하는 353,381원을 시현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의 81.9%에 비해도 0.4%가 더 늘어난 것이다. 농업소득과 함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겸업소득이다. 연중의 겸업소득은 14,529원으로 그 비중은 아직 미미하나 전년의 3.1%에서 3.4%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사업외수입은 61,484원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가소득 중 15.0%를 차지하였는데 올해는 14.3%로 떨어져 최근 수년동안에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연중의 농가소득은 어느해 보다도 농업을 위시한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사업적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비사업적수입이 전례없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중의 농업소득신장에 기여한 몇 가지 사항은 농업조수익면에서 대동

농 가 소 득

표 1-4 단위: 원, %

연도별	구 분	농 가 소 득	농 업 소 득	겸 업 소 득	사 업 이 외 수 입
67		149,470 (100.0)	116,359 (77.9)	6,606 (4.4)	26,505 (17.7)
68		178,959 (100.0)	136,936 (76.5)	8,433 (4.7)	33,590 (18.8)
69		217,874 (100.0)	167,128 (76.7)	8,090 (3.7)	42,656 (19.6)
70		255,804 (100.0)	194,037 (75.9)	9,599 (3.8)	52,168 (20.3)
71		356,382 (100.0)	291,909 (81.9)	11,152 (3.1)	53,321 (15.0)
72		429,394 (100.0)	353,381 (82.3)	14,529 (3.4)	61,484 (14.3)

자료: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주: ( ) 내는 구성비임.

식물의 증식이 좀 있었고 재고 농산물이 미미하나 증액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나 농업수입이 농업조수익 증가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농업수입을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미곡과 맥류이지만 이밖에도 가격 조건은 좋지 않았으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과수와 양축 그리고 양잠 등이다. 미곡과 맥류가 농업수입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것이 농가의 기간농산물이라는 점 이외에 고미가 정책과 이중맥가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중의 농업조수익은 지난해에 비하여 약 20%가 늘어났는데 농업경영비는 15.4% 늘어났다는 사실이 영농소득의 개선면에 있어 크게 주효하였다. 72년의 농업지출 내역을 살펴 보면 지출항목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임비와 비료비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올랐고, 특히 농업지출 중 큰 비중을 점하지는 않으나 영농광열비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임차료와 도정료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농업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이들을 종합해 보면 연중의 농업지출을 늘리게 한 요인은 농촌 노임 및 지가의 상승과, 전기료 및 유류값의 인상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비용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백가의 지지가 농가의 농업소득을 개선해 놓았던 것이다.

농가의 결업소득이 호전된 것은 임산물 수입과 수산물 수입에 힘입은 바 크다. 결업수입 가운데 상공광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지만 결업소득 개선면에 있어서는 수지개선이 호전되지 못하여 임산물만큼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업이외 수입은 급료와 농업

농가경제 주요 지표(호당평균)

표 1-5 단위 : 원

연도	구분	67	68	69	70	71	72	증감율
	농업조수익	150,995	177,083	214,617	248,064	356,567	427,994	20.0
	농업경영비	34,636	40,147	47,489	54,027	64,658	74,613	15.4
	농업소득	116,359	136,936	167,128	194,037	291,909	353,381	21.1
	결업수입	12,650	15,152	14,059	16,642	17,484	24,821	42.0
	결업지출	6,044	6,719	5,969	7,043	6,332	10,292	62.5
	결업소득	6,606	8,433	8,090	9,599	11,152	14,529	30.3
	사업이외수입	26,505	33,590	42,656	52,168	53,321	61,484	15.3
	농가소득	149,470	178,959	217,874	255,804	356,382	429,394	20.5
	조세공과제부담	2,615	3,032	4,324	3,283	4,137	4,282	3.5
	부채이자	2,210	2,366	3,099	3,437	2,855	3,387	18.6
	가처분농가소득	144,645	173,561	210,451	249,084	349,390	421,725	20.7
	가계비	127,667	143,104	171,371	207,766	244,463	309,665	26.7
	기타지출	2,819	2,458	1,738	3,538	3,778	8,859	134.5
	농가경제잉여및손	14,159	27,999	37,342	37,780	101,149	103,201	2.0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노임수입 등이 송금보조와 함께 연중수입증대에 기여하였다.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71년의 349천원이 72년에는 422천원으로 20.7%가 늘어나 농업소득증가율이나 농가소득증가율 보다 약간 높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조세공과 제부담금이 불과 3.5% 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며 부채 이자가 늘기는 하여도 18.6% 정도로 머무렀기 때문이다.

농가 호당평균 가계비는 지난해의 244,463원이 72년에는 309,665원으로 26.7%나 대폭 늘었다. 농가경제잉여는 71년의 101천원이 72년에는 103천원으로 연중 증가율은 2.0%에 불과하였다.

농가경제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표 1-6 단위 : %

연도별	규모별	전국	0.5 정보미만	0.5~1.0	1.0~1.5	1.5~2.0	2.0 정보이상
67		91.1	58.5	86.5	96.9	110.6	112.2
68		95.7	57.7	87.8	106.6	117.5	120.2
69		97.5	57.2	93.9	113.2	104.4	124.1
70		93.4	54.3	88.3	103.6	119.3	112.4
71		119.4	69.5	108.6	140.5	139.6	150.1
72		114.1	60.5	104.1	140.8	141.3	135.1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는 전년의 119.4%에서 연중에는 114.1%로 약간 저하하였다. 이것을 농가계층별로 보면 1.0 정보 미만, 농가총과 2.0 정보 이상 농가층에서는 전국 평균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1.0 정보 이상 2.0 정보 미만 농가층에서는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가 약간 더 높아졌다.

## 2.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생활수준 비교

연중의 농가 호당 평균 가계비는 309,665원으로 지난해의 244,463원 보

다 26.7%가 늘어나 예년에 비하여 가계지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올해 가계비의 지출비목별 구성을 보면 엔젤계수에 해당하는 음식물비가 48.2% 즉 149,255원으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계잡비 78,924(25.5%)원을 제외하면 피복비, 광열비, 교육비, 주거비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농가 가계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에 불과하다.

음식물비가 지난해의 47.4%에서 48.2%로 상승한 것은 연중에 식료품 가격이 상당히 등귀함으로서 다른 지출 항목에 비하여 그 영향을 많이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중에 영농광열비는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농가 가계비중의 광열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농촌 농가생활에 있어 전기용품과 유류를 에너지로 하는 가계용품이 아직 현저하게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비를 농가계층별로 서로 비교해 보면 음식물비, 주거비, 그리고 광열비 등이 대농층에 있어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와 같은 경향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은 피복비와 학교 교육비 그리고 가계잡비 등이다. 말하자면 이들 지출항목은 농가소득의 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물비를 주식물비, 부식물비, 조미료, 기호품, 외식비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연중에 비율상 지출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은 부식물비와 기호품이었고 가계잡비 가운데서는 교제비가 71년의 20,571원에서 72년에는 28,978원으로 무려 8,400원이나 증가하였다.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자료와 경제기획원의 도시근로자 가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72년의 가구당 평균 가계비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가구당 가족원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농가가계비의 크기는 도시근로자 가계비의 71.0% 수준에 형성되어 아직도 매우 낮다. 그렇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62.6% 수준에 있었던 이 상대가계비 수준이 올해들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와 농가 사이의 가계비 가운데 그 지출의 격차

가 가장 큰 항목은 주거비와 피복비 등이다.

도시와 농촌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 농가의 생활은 지난해의 62.6%에서 올해는 71.0%로 상당히 균형화 해감을 알 수 있고 주생활은 여전히 현저한 격차가 있으나 연중에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생활은 지난해 보다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도시근로자의 의생활과는 그 격차가 더 심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비의 상대지출비율이 76.5%, 가계잡비(미용청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제비, 교양오락비, 관혼상제비 등)의 상대지출비율이 85.0%로 도시근로자의 그것에 크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농가의 물질적인 경제여건보다도 농민의 의식이 도시화 하려는 성향이 앞서가고 있는 경향의 일단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 가구의 분기별 월 평균 가계 수지를 살펴 보면 근로자 가구는 매분기 월평균 수입이 월평균 지출을 상회하고 있으나 농가에 있어서는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카바하고 1/4분기만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의 월

72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호당 평균 가계비

표 1-7

단위 : 원

구 분	도 시 근 로 자		농 가		B/A	
	금 액 (A)	구 성 비	금 액 (B)	구 성 비	7 2	7 1
가 계 비	436,440	100.0	309,665	100.0	71.0	62.6
음 식 물 비	180,240	41.3	149,255	48.2	82.8	71.7
주 거 비	80,640	18.5	17,651	5.7	21.9	14.5
광 열 비	23,040	5.3	20,791	6.7	90.2	90.0
피 복 비	40,080	9.2	22,662	7.3	56.5	47.7
교 육 비	31,080	7.1	20,382	6.6	65.6	76.5
가 계 잡 비	81,360	18.6	78,924	25.5	97.0	85.0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

농가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72년)

표 1-8

단위 : 원

분 기 별	농 가		도시 근로자 가구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1/4	34,768	32,212	39,650	36,670
2/4	34,146	34,135	42,380	36,980
3/4	30,960	28,266	44,640	40,130
4/4	43,946	39,331	45,780	41,330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

평균 수입은 44,859원으로 월평균 지출 35,358원을 9,501원이나 초과하고 있어 이것이 72년으로 이월되었다고 가정하면 72년 1/4분기의 월평균수입 34,768원과 지출 32,212원의 차액 2,556원은 카바되고도 남음이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패턴은 72년 4/4분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농업수지 특히 수입의 계절성에 기인하고 있다.

### 3. 농가자산과 농촌생활 환경

72년의 농가 호당 평균 자산액은 약 1,521천원으로 지난해의 1,100천원보다 421천원이 늘어났다. 농가 자산의 내역을 보면 고정자산 1,205천원, 유동자산 261천원, 유통자산 5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중의 농가호당 차입금은 약 14천원으로서 지난해의 10천원보다 3,632원 즉 35.3%가 늘어났으나 그간에 농가자산은 38.3%가 증가하여 농가의 재산구조는 지난해에 이어서 건전성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다만 유통자산에 대한 차입금비율은 지난해의 22.2%가 올해는 24.9%로 좀 높아졌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역시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농가재산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유통자산은 한결같이 소농층

농가자산과 차입금 (호당 평균)

표 1-9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자 산			차입금 (B)	B/A	
		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A)			
67		590,383	496,285	77,676	16,422	11,432	69.6
68		671,972	547,405	99,568	24,999	13,996	56.0
69		766,403	616,643	116,050	33,710	12,518	37.1
70		915,251	743,032	131,202	41,017	15,913	38.8
71		1,100,370	858,270	195,813	46,287	10,282	22.2
72		1,521,451	1,204,824	260,842	55,785	13,914	24.9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보다 대농층에 있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차입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1.5 정보 농가계층만은 호당평균 차입금이 어느 계층보다도 가장 낮은데다 유통자산대 차입금비율에 있어서도 1.0 정보 미만 농가층에서는 약 25% 내외이며 1.5 정보 이상 농가층에서는 27.0% 내지 29.5% 정도인데 비하여 20.2%를 보여 차입금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이 농가층이 지난해에는 유통자산에 비해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올해는 자금차입을 대폭 줄여 지난해보다 축소시킨데 그 원인이 있다.

농가차입금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72년의 차입금 용도는 지난해의 그것보다 한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71년만 하더라도 농가 차입금의 45.5%만이 농사 및 겸업자금으로 사용되고 13.5%는 생계비에 충당되었으나 72년에는 농사 및 겸업자금으로 58.8%가 투자되고 소비성 생계비 충당액은 10.3%에 불과하며 5.9%는 묵은 차입금의 반제에 지출되었다.

연중의 농가재산적수지를 살펴 보면 재산적지출이 재산적수입을 초과하여 농가재산은 내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자산의 매각과 유통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입금의 증가 등 재산적수입은 336,476원인데 고정자산의 구입, 유통자산의 증가 그리고 차입금의 감소 등 재산적

농가의 재산적 수치

표 1-10

단위 : 원

구분 연도	재 산 적 수 입				재 산 적 지 출			
	계	고정자산 의 매각	유통자산 의 감소	차입금의 증가	계	고정자산 의 구입	유통자산 의 증가	차입금의 감소
67	116,611	29,376	65,290	21,945	120,955	25,263	72,606	23,086
68	137,478	31,665	79,914	25,899	140,552	28,071	87,061	25,420
69	167,539	34,894	105,223	27,422	180,882	27,853	120,539	32,490
70	212,784	45,525	134,160	33,099	228,212	39,580	155,617	33,015
71	264,489	48,595	181,976	33,918	298,822	48,827	207,940	42,055
72	336,476	65,507	234,557	36,412	366,100	61,530	267,108	37,462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지출은 366,100원으로 되어 있다.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농가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농촌생활이 도시생활보다 편리하고 보다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기왕의 농촌전화사업과 지붕개량사업 등을 계속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과 새마을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농민 자신의 근면과 자조·협동정신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연중에 새마을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된 부락이 22,708개를 헤아리게 되며, 이 사업을 위하여 총 31,594백만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새마을 사업은 72년 5월 현재 40만동의 농가지붕을 개량함으로써 280톤의 퇴비증산과 800만매의 가마니 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7,351 km의 농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785 km의 소하천을 개보수하여 72년말 현재 개설농로의 총연장이 34,452 km, 개보수된 소하천이 3,110 km에 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2,620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고 12,539개의 메탄가스 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145천호 농가에는 전기가 가설됨으로써 농촌 전화율이 40%로 급증하였고 462개의 마을은 신규로 통신시설이 가설되어 이 시설을 가지게 된 부락수는 9,288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농촌환경개선실적

표 1-11

구	분	목표 또는 설치 대상 (A)	실 적		진척율 B/A
			새마을사업 실적	총 실적 (B)	
농촌기간도로망					
	마을 안길 확장 (km)	28,663	12,000	12,000	41.9
	농로 개설 (km)	46,167	7,351	34,452	74.6
농촌기초위생시설					
	간이 급수 (마을)	15,662	2,620	2,620	16.7
	공동 우물 (개소)	314,088	20,350	148,299	47.2
	공동 빨래터 (개소)	71,020	9,567	21,992	30.9
	하수구 (km)	8,654	1,904	2,122	24.5
	공동 목욕탕 (동)	—	2,603	2,603	—
농촌협동 및 복지시설					
	마을회관 (동)	35,608	4,452	17,946	50.4
	종합복지 어린이 놀이터 (개소)	—	861	861	—
	공동저장고 (개소)	—	441	441	—
	공동축사 (개소)	—	757	757	—
	농업용수시설 (건)	—	4,102	4,102	—
농촌기초 환경시설					
	지붕 개량 (천동)	2,075	400	1,532	47.9
	메탈가스 이용 시설 (개소)	20,958	12,539	12,539	59.8
	소하천 개보수 (km)	12,136	785	3,110	25.6
농촌전화 및 통신시설					
	전화 (천호)	2,532	145	1,012	40.0
	통신 시설 (마을)	34,668	462	9,288	26.8

자료 : 내무부



## 제 3 장 농업경영 동향

### 1. 농업경영의 여건 변화

농업경영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지속되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호수와 경지면적이 줄어 들었고 농업경영구조는 집약화의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경지면적은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도시의 확장, 농지의 공장부지화 및 도로망의 확대개설 등으로 인하여 전답을 합한 총 경지면적은 68년이래 계속 감소되고 있다. 71년 중에는 답이 5천정보, 전이 24천정보가 감소되어 72년 답면적은 1,270천정보, 전면적은 991천정보로 총 경지면적은 2,261천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는 2차 3차 산업부문의 고용확대로 인하여 67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72년도 농가인구는 14,677천으로 71년도 14,712천명보다 35천명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농가 인구의 구성비도 71년의 46.2%에서 45.3%로 떨어졌다.

한편 농가호당 평균 가구원수는 지난해의 5.83인에서 올해에는 5.71인으로 줄어들어 과거 어느때 보다는 적었으나 이 가구원수 가운데 소위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영농종사자는 2.92인에서 2.98인으로 증가하여 농가인구의 중견연령층이 건실화된 것과 병행하여 농업노동력이 한결 충실화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환언하면 농가인구의 취업율은 최근 수년간에 있어 가장 높아져 지난해의 50.19%가 연중에는 52.19%로 2.1%나 높아졌다.

농가가구원을 영농종사자와 비영농종사자로 나누어 그 비율을 나타내는 이 취업율을 농가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농층일수록 농외의 취업자가 많고 대농층일수록 영농취업자가 많아 이를테면 0.5정보미만에 있어서는 50.85%인 것이 2.0정보 이상에 있어서는 54.77%로 나타났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2,981평으로 1정보에 미달하였는데 논과 밭의 구성을 보면 연중에 호당 평균 논면적은 15평이 늘어 났는데 밭면적은 38평이 줄었다. 그리하여 가구원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경지면적의 감소율보다 가구원의 감소율이 더 커서 지난해의 512평이 522평으로 10평이 늘어난 셈이나 영농종사자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지난해의 1,022.6평이 올해들어 1,000.3평으로 줄었다.

한편 경지규모별농가의 분포상황을 보면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0.5정보이하의 경지를 가진 농가호수의 구성비가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중·대농층은 그 구성비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 농가의 영농취업율과 경지면적

표 1-12

구분 연도	가구원	영농종사자	영농취업율	경지면적				1인당 경지면적
				계	논	밭	기타	
	인	인	%	평	평	평	평	평
67	6.12	3.12	50.98	2,924	1,730	1,160	34	477.7
68	6.02	3.00	49.83	2,996	1,834	1,105	57	497.7
69	5.99	2.96	49.42	2,988	1,825	1,087	76	498.8
70	5.92	2.91	49.16	2,965	1,794	1,079	92	500.8
71	5.83	2.92	50.09	2,986	1,804	1,086	96	512.2
72	5.71	2.98	52.19	2,981	1,820	1,048	113	522.0
72/71	97.9	97.9	104.2	99.8	100.9	96.5	117.7	101.9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다음 농업경영구조면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업태별 농가호수는 67년과 72년의 5년간에 상당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간에 전답작 농가는 약 202천호가 줄었으며 화전농가는 14천호가 줄어들어 이들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년의 경우 각각 90.8%와 0.2%로 67년의 93.9%와 0.7%에서 상당히 떨어졌다. 그 반면에 과수, 채소, 원예농가는 67년의 27천호에서 71년에는 56천호로 그간에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용작물농가도 7.7천호가 22.8천호로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축잠농가도 10.5천호에서 25.2천호로 약 2.4배가 늘어나 72년의 전체 농가호수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3%, 0.9%, 1.0%를 시현 67년의 1.0%, 0.3%, 0.4%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수 있다.

요컨대 업태별 농가호수의 구성이 이와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조방작목을 선택하는 농가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집약작목을 선택하는 농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데 연중에 와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농가가구원 가운데 영농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경지와 농업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불가피 하였던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욱이 미맥의 가격지지에도 불구하고 업태별 농가호수의 구성이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작목 즉 과수나 채소 그리고 축잠의 가격조건이 요즘보다 더 호전된다면 이와 같은 경향은 더 현저하게 나타나리라고 관측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농업조수익의 추이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67년과 72년 사이에 미곡, 맥류, 잡곡, 두류 및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식량작물은 67년을 100으로 할때 72년의 지수는 247.7인데 채소, 특용작물, 과수는 각각 258.5, 293.0, 507.9로 그리고 축잠은 387.7로 현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구조는 작목간의 불균등한 가격조건하에서도 점차 집약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연중에 전체 농가호수 가운데 전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

업태별 농가 구성

표 1-13

구분	67		72		72/67
	농가호수	구성비	농가호수	구성비	
전답작농가	2,429,683	93.9	2,227,228	90.8	91.7
과수원예농가 (채소작포함)	26,921	1.0	56,218	2.3	208.8
특용작물농가	7,698	0.3	22,809	0.9	296.3
축잡농가	10,471	0.4	25,244	1.0	241.1
화전농가	17,200	0.7	3,672	0.2	21.3
임금노동농가	—	—	102,708	4.2	—
기타	94,891	3.7	13,965	0.6	14.7
<b>총농가수</b>	<b>2,586,864</b>	<b>100.0</b>	<b>2,451,844</b>	<b>100.0</b>	<b>94.8</b>

자료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난해의 85.2%에서 84.8%로 떨어지고 1종겸업농가는 6.2%로 변동이 없으며 2종겸업농가는 8.6%에서 9.0%로 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연중의 농가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전·겸업 농가 구성

표1-14

단위 : 천호

연도	구분	총농가수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67		2,587 (100.0)	2,251 (87.0)	208 (8.0)	128 (5.0)
68		2,579 (100.0)	2,202 (85.4)	183 (7.1)	194 (7.5)
69		2,546 (100.0)	2,182 (85.7)	166 (6.5)	198 (7.8)
70		2,483 (100.0)	1,681 (67.7)	488 (19.7)	314 (12.6)
71		2,482 (100.0)	2,114 (85.2)	153 (6.2)	215 (8.6)
72		2,452 (100.0)	2,081 (84.8)	152 (6.2)	219 (9.0)
72/71		98.8	98.4	99.3	101.9

자료 : 농수산부 농업기본통계조사

주 : ( )안은 구성비

위하여 한편으로는 농업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 농업경영의 집약화를 시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외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농업경영의 실태

72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조수익은 지난해보다 71천원이 증가한 428천원 농업경영비는 10천원이 증가한 74.6천원으로 농업소득은 61.5천원이 증가한 353천원을 시현하였다. 그리고 농업소득율은 82.6%로 지난해의 81.9%보다도 더 높아졌다. 농가계층별로 본 농업소득율은 2.0정보 이상의 농가층이 79.2%로 다른 계층에 비해 약간 낮는데 이 농가 층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교하여 자가노동보다는 고용노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연중의 농업생산성은 지난해에 비하여 자본생산성은 약간 저하하였으나

### 농업 경영 개황

표 1-15

단위 : 원

구 분	농업조수익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농업소득율
67	150,995	34,636	116,359	77.1
68	177,083	40,147	136,936	77.3
69	214,617	47,489	167,128	77.9
70	248,064	54,027	194,037	78.2
71	356,567	64,658	291,909	81.9
72	427,994	74,613	353,381	82.6
72/71	83.3	86.7	82.6	99.2
0.5 정보 미만	166,473	28,250	138,223	83.0
0.5 ~ 1.0	351,234	61,812	289,422	82.4
1.0 ~ 1.5	554,789	89,198	465,591	83.9
1.5 ~ 2.0	718,169	118,510	599,659	83.5
2.0 정보 이상	829,310	172,105	657,205	79.2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노동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면 농업경영의 실태에 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72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71년보다 약 10천원이 증가한 74,613원으로 이 속에는 농업지출 69천원 감가상각비 5.2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중의 농업지출 69,046원은 자재 및 동물비가 26.0천원, 노임비 19.1천원 임차료 및 수리비 15.6천원 기타 농업지출 8.3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지출의 각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임비로서 총액의 약 28%에 해당하며 그 다음이 비료비가 약 18%에 해당하는 12.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정료와 농지임차료가 각 7~8천원이 되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농가호당 평균 농업경영비나 농업지출이 경작규모가 큰 농가층일수록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마는 그러나 평당 평균 경영비 투하액은 0.5정보미만이 30원, 0.5~1.0정보 27원, 1.0~1.5정보 25원, 1.5~2.0정보 23원 그리고 2.0정보 이상이 22원으로 소농층에서 대농층에 갈수록 일정 면적당 경영비 투하액은 줄어들어 토지이용면에 있어서는 소농층이 대농층보다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단보당 농업노동 및 자본집약도를 보면 67년 이래 농업노동시간

표. 1-16 농가계층별 평당 농업경영비 단위 : 원

계 층 별	호당농업경영비	호당경지면적	평당농업경영비
전 국	74,613	2,981 <sup>평</sup>	25
0.5정보 미만	28,250	942	30
0.5 ~ 1.0	61,812	2,269	27
1.0 ~ 1.5	89,198	3,628	25
1.5 ~ 2.0	118,510	5,116	23
2.0정보 이상	172,105	7,871	22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은 줄어드는 경향인데 반하여 농업자본 투하액은 늘어나는 경향에 있어 달관적으로 볼때 농업노동이 농업자본에 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난해는 단보당 농업노동투하시간이 184시간이던 것이 올해는 178시간으로 줄어 들었고 단보당 농업자본액은 36,194원에서 46,459원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영농종사자 1인당 연간 농업노동 투하시간은 지난해의 628시간에서 연중에는 593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영구조의 집약화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의 집약적투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농가가구원의 영농취업의 집약화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의 집약적투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농가가구원의 영농취업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기는 하여도 이 농업노동력이 영농에 완전 고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72년의 농가계층별 단보당 농업노동 투하시간과 농업자본의 투하액 및 영농 종사자 1인당 농업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연중에 단보당 농업자본 투하액은 어느 계층에 있어서나 한결같이 늘어났지만 단보당 농업노동시간은 0.5정보미만과 1.5~2.0정보 이상의 각 농가층에서는 증가한 반면 0.5~1.0정보와 1.0~1.5정보 농가층에서는 약간 줄어들었다. 그리고 영농 종사자 1인당 농업노동시간은 지난해에 비하여 어느 농가층에

### 연도별 단보당 농업노동 및 자본집약도

표 1-17

단위 : 원

연도	구분	단 보 당 농업노동시간	단 보 당 농업자본액	영농종사자 1인 당농업노동시간
67		207	15,026	646
68		189	18,204	628
69		185	22,767	623
70		183	26,394	622
71		184	36,194	628
72		178	46,459	593
72/71		96.7	128.4	94.4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있어서나 줄어들었지만 소농층에서 대농층에 갈수록 1인당 노동시간이 많아서 0.5정보미만의 농가층과 2.0정보 이상의 농가층 사이에는 후자에 있어 연중에 2.6배의 더 많은 농업노동을 투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72년 경지규모별 단보당 농업노동시간과 자본액

표 1-18 단위 : 시간, 원

계 층 별	단 보 당 농업노동시간	단 보 당 농업자본액	영농종사자 1인 당농업노동시간
0.5정보 미만	242	54,257	318
0.5 ~ 1.0	202	49,749	539
1.0 ~ 1.5	186	45,544	694
1.5 ~ 2.0	161	43,452	777
2.0정보 이상	125	39,303	831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 3. 농업경영의 성과

72년의 농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353,381 원으로 전년대비 약 61천원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농가계층별로 보면 소농층에서 대농층으로 갈수록 점차로 농업소득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영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및 단보당 농업소득이 어떠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71년과 72년을 비교해 볼 때 농가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1.1%가 증가하였는데 단보당 농업소득은 21.2%가 증가하여 호당 농업소득의 증가율과 별차가 없다. 그러나 시간당 농업소득은 25.8%가 증가하여 호당 농업소득의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농가 계층별 단보당 농업소득과 시간당 농업소득을 보면 대체로 단보당 농업소득은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층에서 높고 경지면적이 큰 농가층에서는 낮다.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농층에 있어서는 대농층에 비해 단보



당 농업노동 투하시간과 농업자본 투하액이 더 많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소농층에 있어 보다 집약적인 경영방법을 채택한 결과 경영성과 면에 있어 단보당 농업소득도 그와 병행해서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토지생산성과는 달리 대체로 소농층에서 대농층으로 갈수록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2 영농시간당 경지단보당 농업소득

표 1-19

구분 경지규모별	영 농 시 간	시간당농업소득	경 지 면 적	단보당농업소득
	시간	원	단보	원
전 국	1,767	200	9.94	35,551
0.5정보 미만	760	182	3.14	44,020
0.5 ~ 1.0	1,530	189	7.56	38,283
1.0 ~ 1.5	2,248	207	12.09	38,510
1.5 ~ 2.0	2,743	219	17.05	35,171
2.0정보 이상	3,289	200	26.24	25,046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우리나라 농업기본법이 농업경영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립가족농의 육성에 있으며 이 자립가족농은 농업과 비농업간의 소득 균형을 위하여 그 경영성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비농업분야에서 비교 가능한 근로자의 노임소득과 같은 크기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그 소득이란 엄밀한 의미에 있어 혼합소득이므로 비농업 분야의 근로자 노임소득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노동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72년의 각 농가계층별 농업소득에서 노동소득을 산출해 본 결과 1.5~2.0정보까지의 각급 농가계층에 있어서는 연중에 노동소득이 지난해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으며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층에서 큰 농가층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각급 농가계층 가운데서 가장 큰 노동소득을 실현했던 2.0정보 이상의 농

가층이 72년에 들어와서는 노동소득이 도리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토지자본과 그밖의 농업자본 이자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의 노동소득을 비농업분야 중 제조업부분의 노임소득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제조업부분의 상용종업원이 받고 있는 월 임금소득은 업종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72년 중 의복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월노임 13천원을 받고 있는데 석유정제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58천원을 받고 있다. 농업도 같은 면적위에서 경영유형이 상이함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유형이 같더라도 경지면적이 다르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노동소득이 다르다.

지금 72년 중 농가계층별 농업노동소득을 계산해 본 바, 0.5정보미만은 월평균 노동소득이 6,806원인데 1.5~2.0정보에서는 29,915원을 나타내고 있다.

72 경지규모별 호당 농업노동소득

표 1-20 단위 : 원

구 분	농 업 소 득	농업자본이자	토지자본이자	노 동 소 득
0.5정보 미만	138,223	20,444	36,104	81,675
0.5 ~ 1.0	289,422	45,133	79,888	164,401
1.0 ~ 1.5	465,591	66,076	100,892	298,623
1.5 ~ 2.0	599,659	88,903	151,758	358,998
2.0 정보 이상	657,205	123,757	201,067	332,381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농업의 노동소득은 제조업의 노임소득에 비하여 낮다고 할지라도 어느 농가층의 노동소득을 제조업부분의 어느 업종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상대소득의 크기는 일정치 않은 것이다. 예를들어 의복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당 월 노임소득은 0.5~1.0정보 농가층의 월평균 노동소득에 비해 낮으나 0.5정보 미만 농가층의 그것보다는 높다.

그리고 석유정제업의 종업원은 어느 농가층의 월평균 노동소득보다도 훨씬 높다.

요컨대 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느 농가층에서도 노동소득이 실현되고 있으나 그 크기는 제조업의 특정업종의 노임소득과 비교할 때 그것은 농가층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고 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달관적으로 말하면 1.0~1.5정보 이상의 각 농가계층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노임소득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소득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72 월평균 농업노동소득과 제조업노임소득의 비교

표 1-21

단위 : 원

농업노동소득		제조업노임소득	
계층별	금액	업종	금액
0.5정보 미만	6,806	의복제조	13,352
0.5 ~ 1.0	13,700	가구및건구제조	14,001
1.0 ~ 1.5	24,885	식료품제조	21,228
1.5 ~ 2.0	29,915	철강제조	28,250
2.0정보 이상	27,698	석유정제	58,074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제 4 장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급

### 1. 농업생산동향

연중의 식량작물 생산은 도시 주변의 농지 유희화와 농지의 비농업용도에의 지목 변환 등으로 식부 면적이 감소한데다가 특히 미곡생산이 결실기의 냉해와 홍수 피해 등 일기불순으로 전년에 비해 1%가 감소하고 잡곡 서류 등의 작황도 부진함으로써 전체 양곡생산은 지난 해에 비해 0.9%의 감소를 보였다. 환언하면 연중의 식부 면적은 지난 해의 식부 면적에 대비 1.2%에 해당하는 33.1천 정보가 감소하였으며 기상조건도 순조롭지 못하여 영동지구의 한해와 전국적인 수해가 미곡의 작황을 부진케 하였으며 출수기의 저온과 추수기의 일기 불순이 결실을 불실케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속적인 증산시책이 주효하여 총생산량에 있어 큰 감산을 피할 수 있었고, 맥류와 서류는 단보당 수량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식량작물의 곡종별 생산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는 1,187.6천 정보에서 3,933천%이 생산되었으며 단보당 수량은 331 kg이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통일벼가 187.5천정보에서 724천%이 수확되었는데 단보당 수량은 386 kg으로 일반수도 321 kg보다 20.2%나 높았다.

맥류는 과맥을 위시하여 대맥, 소맥, 호맥의 순으로 987.4천 정보에서 2,222천%이 생산되었다. 그 중 전남북에서 주로 식부되는 과맥은 식부 면적과 생산량에 있어 50여%를 차지하였고, 경남북에서 주로 식부하는 대맥은 생산량의 약 21%를 점하였으며, 나머지는 소맥과 호맥인데 이들

은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졌다.

우리 나라의 잡곡 생산은 옥수수과 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86.2천 정보에서 생산된 잡곡 총량은 94.3천%이며 이 가운데 옥수수가 53.7천%, 조가 30.9천%으로 잡곡 총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장, 피, 수수, 메밀 등으로 되어 있다.

연중의 잡곡 생산은 식부 면적이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적은 86.2천 정보에서 94천%을 생산하여 예년에는 언제나 100천% 이상을 생산하던 실적에서 처음으로 그 이하로 떨어졌다.

두류는 식부 면적이 지난해보다 약 2.3천 정보가 늘어난 343천 정보이 었으나, 단보당 수량이 77 kg에서 76 kg으로 줄어들어 생산량은 263천%에서 261천%으로 약 2천%이 감소하였다. 두류 생산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는 연중에 284천 정보에서 224천%의 생산 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16천%이 증수되었다. 그러나 대두를 제외한 소두, 녹두, 채두, 완두, 낙화생 그리고 기타 각종 두류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에 미치지 못하였다.

서류는 지난해의 식부면적 164.7천 정보가 올해는 148.7천 정보로 16천 정보(9.7%)가 줄어들었으나 생산량은 단보당 수량이 430 kg에서 453 kg으로 늘어나 71년의 707.2천%에서 4.7%가 감소된 674천%으로 나타났는데, 강원과 경북에서 전국 생산량의 반 정도를 생산하는 감자는 연간에 26천%이, 전북과 전남에서 전국 생산량의 55%를 생산하는 고구마는 연간에 7.5천%이 감소되었다.

특용작물은 지난해에 비해 연중에 목화와 유채 재배가 줄어들고 수세미, 참깨, 들깨, 아주까리 재배 등의 재배가 늘어났지만 전체 파종 파적은 작년의 90.6천 정보에서 올해는 81.7천 정보로 줄어들어 수확량도 82.6천%에서 65.6천%으로 줄었다. 그 이유는 특용작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채가 지난해에 비해 파종면적에 있어 약 40%가 줄고 따라서 수확량도 약 44%가 줄었으며, 단보당 수량도 128 kg에서 118 kg으로

식량작물 생산 추이

표 1-22

단위 : 천%

구분	71	72	증감율	
			71/70	72/71
미곡	3,998	3,957	1.5	△1.0
맥류	2,197	2,222	△6.6	1.1
잡곡	110	94	△11.3	△14.5
두류	263	261	△5.1	△0.8
서류	707	674	△9.7	△4.7
합계	7,275	7,208	△2.7	△0.9

자료 : 농수산부 식량작물통계

곡물제외 농작물 생산량

표 1-23

구분	연도	단위	67	68	69	70	71(A)	72(B)	B/A
			특용작물	과종면적	정보	74,224	72,124	88,771	89,212
	단수	kg	84	93	93	81	91	80	87.9
	수확량	%	62,206	66,802	82,651	72,565	82,585	65,646	79.5
채소	과종면적	정보	177,265	192,592	226,332	254,357	257,249	247,915	96.4
	단수	kg	1,055	1,116	1,073	991	1,134	1,095	96.6
	수확량	%	1,869,425	2,150,156	2,427,545	2,520,311	2,917,897	2,716,800	93.1
과일	과종면적	정보	48,146	51,204	55,700	60,185	55,326	59,189	107.0
	단수	kg	746	766	748	703	731	826	113.0
	수확량	%	358,944	392,419	416,849	423,259	404,291	488,899	120.9

자료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감산되었기 때문이다.

연중의 채소 생산 역시 지난해에 비하여 과종면적, 단보당수량 그리고

수확량이 다같이 줄었다. 연중에 마늘과 오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약간 늘었지만 무우 배추와 시금치는 생산량이 줄었으며, 특히 배추는 988.6천<sup>㉔</sup>에서 826천<sup>㉔</sup>으로 16.5%가 감소되었다. 무우, 배추 등 채소류의 생산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가격이 연초부터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과수는 올해 들어 재배 면적이 4천 정보가 늘어나 59천 정보에서 489천<sup>㉔</sup>의 생산실적을 올림으로써 작년보다 21.1%에 해당하는 85천<sup>㉔</sup>의 수확량 증가를 보였다. 사과와 포도 그리고 복숭아는 재배 면적이 근소하게 늘어났을 뿐이나 단보당 수량이 크게 늘어 수확량이 증가하였고 배는 재배 면적이 늘었지만 단보당 수량이 떨어져 수확량은 약간 늘었으며 감은 재배 면적이 연중에 약 80정보나 늘었는데 단보당 수량이 753 kg에서 929 kg으로 늘어나 수확량도 약 8천<sup>㉔</sup> 이상 증가하였다.

가축 사육 상황을 보면 정부의 축산진흥계획과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 의한 한우 육성과 비육사업에 힘입어 연중에는 주로 대가축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즉 한우와 육우 그리고 유우는 작년에 비해 사육 호수가 한결같이 늘어났으며 사육두수도 역시 늘어나서 한우는 6.9%, 육우는 69.9%, 유우는 20.4%가 더 증가하였다. 대가축에 이어서 면양과 산양 두수도 각각 20.8%와 18.9%나 증가하였지만 소가축을 대표하는 돼지는 사육 농가도 줄었지만 사육 두수도 지난해의 1,333천두에서 1,248천두로 줄었다. 그리고 가금류에 있어서는 닭, 오리, 거위가 작년에 비해 사육 두수가 10% 내지 5% 정도 감소하였으며, 칠면조 만이 5.6%가 늘어났고, 양봉은 사육 호수가 1천여호 정도 늘어남에 따라 양봉량도 5.4% 증가하였다.

연중의 축산물 생산실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이 다같이 과거 어느 해보다도 가장 높은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르는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서 유발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가축가금사육수

표 1-24

단위 : 호, 마리

종 류	72 년말 (A)		71 년말 (B)		마리수증감 A/B
	사육 호수	사육 마리수	사육 호수	사육 마리수	
한 우	1,106,289	1,333,353	1,048,236	1,247,061	106.9
육 우	1,171	4,868	825	2,865	169.9
유 우	3,788	36,128	3,270	30,009	120.4
돼 지	861,290	1,247,637	924,653	1,332,513	93.6
말	7,387	10,813	8,326	12,893	83.9
면 양	288	3,609	457	2,988	120.8
산 양	83,178	152,227	70,410	127,987	118.9
사슴	136	1,395	98	1,004	138.9
개	1,273,510	1,493,736	1,086,599	1,284,700	116.3
토끼	159,473	421,220	139,141	363,588	115.9
닭	1,044,843	24,537,353	1,109,909	25,903,054	94.7
오리	27,382	224,317	22,232	251,969	89.0
거위	5,130	10,324	5,350	10,587	97.5
칠면조	667	2,022 (통)	604	1,915 (통)	105.6
꿀벌	22,589	105,271	21,352	99,865	105.4

자료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축산물생산실적

표 1-25

구분	단위	연도						
		67	68	69	70	71	72	72/71
쇠고기	천%	32.0	35.8	33.1	37.3	39.5	40.2	101.8
돼지고기	"	72.2	61.8	76.1	82.5	80.9	90.2	111.5
닭고기	"	24.0	33.7	42.3	45.2	50.0	54.3	135.8
계란	백만개	1,349.4	1,504.2	2,430.5	2,456.1	2,535.0	2,790.0	110.1
우유	천%	19.2	24.4	35.5	51.9	65.3	81.1	124.2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 2. 양곡의 수급

72년도의 전체 양곡수급 규모는 12,188천ㄹ로서 71년도의 12,051천ㄹ보다 137천ㄹ이 더 큰 규모이었다. 이 양곡수급을 수요면과 공급면으로 나누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수요면에 있어서는 양곡수요가 전년도의 7,019천ㄹ에서 7,090천ㄹ으로 71천ㄹ이 늘어났는데 이 식량 수요는 농가 식량 3,433천ㄹ과 비농가 식량 3,657천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농가 식량은 줄어들고 비농가 식량이 늘어난 것은 농가 인구가 감소한 반면 비농가 인구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와 비농가의 민수 양곡 이외에 전체 양곡 수급상 책정된 관수 양곡은 213천ㄹ으로 전년도의 197천ㄹ보다 16천ㄹ이 증량되었다. 그리고 소비용 양곡 이외의 영농, 가공용 양곡 수요량은 2,488천ㄹ으로 전체 양곡 수요량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내역은 종자용이 지난해보다 17천ㄹ이 줄은 164천ㄹ이며, 가공용은 311천ㄹ이 줄은 1,600천ㄹ이고 사료용은 1천ㄹ이 증가한 724천ㄹ이었다. 이 밖에도 올해는 감모량을 299천ㄹ, 내년도에의 이월량 2,090천ㄹ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수출용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수요 양곡의 곡종별 구성을 보면 민수식량은 압도적으로 미·맥류로 되어있으며, 관수양곡은 쌀과 보리쌀로 되어 있으나 영농종자용은 미·맥류와 서류, 옥수수 등 각종 곡물이 골고루 계상되어 있고, 사료용 양곡은 옥수수가 33.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보리쌀이 9.4% 포함되어 있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량 1,707천ㄹ을 계상, 쌀 394천ㄹ, 보리쌀 993천ㄹ, 밀 238천ㄹ, 기타 82천ㄹ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72 미곡년도 양곡 수입량은 전년보다 11%가 증가한 3,210천ㄹ에 달하였으나 미곡수입은 지난해보다 323천ㄹ이 줄어 수입 비중은 전년의 32%에서 18%로

양 곡 수 급 상 황

표 1-26

단위 : 천%

수	요	71	72	증 감	
				수 량	비 율
식	량	7,019	7,090	71	1.0
(농	가)	3,672	3,433	△239	△ 6.5
(비 농	가)	3,347	3,657	310	9.3
관	수	197	213	16	8.1
종	자	181	164	△ 17	△ 9.4
가	공	1,911	1,600	△311	16.3
사	료	723	724	1	0.1
감	모	308	299	△ 9	△ 2.9
수	출	5	—	△ 5	—
이	월	1,707	2,098	391	22.9
합	계	12,051	12,188	137	1.1

공	급	71	72	증 감	
				수 량	비 율
이	월	1,843	1,707	△136	△ 7.4
	쌀	325	394	69	21.2
보	리 쌀	1,127	993	△134	△11.9
	밀	338	238	△100	△29.6
기	타	53	82	29	54.7
생	산	7,325	7,271	△ 54	△ 0.7
	쌀	3,939	3,997	58	1.5
보	리 쌀	1,858	1,964	106	5.7
	밀	322	241	△ 81	△25.2
서	류	783	681	△102	△13.0
육	수	68	64	△ 4	△ 5.9
기	타	355	324	△ 31	△ 8.7
도	입	2,883	3,210	327	11.3
합	계	12,051	12,188	137	1.1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크게 낮아졌고 소맥 및 대맥의 수입량은 지난해의 1,532천톤에서 2,135천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미곡 위주의 주식 생활을 혼분식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책이 반영된 것이다.

### 3. 농수산물 수출

72년도의 총상품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33.6%가 늘어난 1,807백만달러로서 수출 목표 18억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농수산물 수출액은 425백만달러로 23.5%를 차지하였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도 지난해에 비하여 29.5%나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총 상품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10년전인 62년만 하더라도 60.2%이던 것이 지금은 크게 저하하였다. 이는 비농수산물 특히 공업제품의 수출액이 현저하게 신장하였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의 이와 같은 수출 규모는 불과 5년전인 67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확대된 셈이며, 10년 전인 62년에 비해 12.5배나 확대된 꼴이 된다.

농수산물의 수출 내역을 보면 농축산물 77,637천달러, 임산물 194,693천달러, 수산물 152,564천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2.9%, 30.0%, 32.7%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이들 각종 상품의 수출 신장율을 보면 임산물이 가장 빠른 신장을 보였으며, 농축산물이 비교적 신장이 느리지만 그러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축산물 수출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12.5%가 초과 달성되었는데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생사류 52,237천달러로서 68%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농산 통조림과 육류의 순위로 되어 있다. 농축산물 가운데 수출 실적이 가장 미미한 것은 국내의 식량 사정을 반영해 주는 곡물로서 연도 중에 불과 983천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채소 역시 채소저림 100천달러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이 없다. 수출되

총 수출 대 농수산물 수출

표 1-27

단위 : 천달러

연도별	구분	총수출 (A)	농수산물 수출(B)	B/A
67		358,592	128,507	35.8
68		500,408	158,440	31.6
69		702,811	202,135	28.7
70		1,003,808	264,171	26.3
71		1,352,037	327,864	24.2
72		1,806,963	424,894	23.5
72/71		133.7	139.6	—

자료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

는 곡물 가운데는 주로 조, 쌀, 검정콩, 메밀 등이 포함되며, 과실류에는 사과, 배, 자두, 복숭아 등이 포함된다. 농산 통조림은 대부분이 양송이 통조림이며 나머지는 과실, 야채, 김치, 포도통조림이 약간 있다. 그리고 수출 육류는 대부분이 돈육이며 20여% 만이 양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저림 채소는 수출국이 일본이라는 점이 있어 대구양, 락교, 자소 등으로 되어 있다.

농축산물의 연중 수출 실적을 농산물과 축산물로 나누어 보면 농산물이 67,448천달러, 축산물이 10,189천달러로서 그 구성비는 87% 대 13%로 나타나 있다.

이들 농축산물의 수출 대상국은 과실류나 농산 통조림은 구라파 제국이나 동남아 제국에 수출되기도 하지만 농산 통조림은 주로 미국과 서독이 수출대상국이며, 생사류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 소량의 수출 실적이 있고 일본이 90여%를 수입하며 그 다음으로 미국으로 되어 있다. 채소 저림이나 육류는 기타 축산물과 함께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고, 돈모는 미국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한편 72년도 중 대 U.N. 군납 실적은 2,410천달러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채소류로서 군납 실적의 46.6%에 해당하는 1,118천달러이었으며, 그 다음은 계란이 35.2%에 해당하는 85.5천달러이며 나머지 437천달러는 각종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의 수출계획 대 실적(72년도)

표 1-28

단위 : 천달러

품 목	구 분	계 획 (A)	실 적 (B)	B/A
	계	69,000	77,637	112.5
곡	물	1,300	983	75.6
미	과	1,000	1,109	110.9
라	면	2,000	769	38.5
과	실 류	1,200	1,897	158.1
농 산 통 조 립		8,500	8,632	101.6
생 사 류		47,500	52,237	110.0
식 물 성 원 재 료		2,400	1,721	71.7
채 소 저 립		800	100	12.5
육 류		2,600	7,527	289.5
돈	모	1,100	781	71.0
기 타 축 산 물		600	1,881	313.5

자료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

## 제5장 농산물가격과 농가교역조건

### 1. 물가동향과 농산물가격

일반물가동향에 있어 연중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연평균 14%가 상승하여 전년의 8.6% 보다 더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72년의 물가는 8.3 조치 등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안정시책이 특히 하반기에 들어와 현저하게 주효함으로써 하반기의 물가상승기세는 두드러지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연간 도매물가를 연말대비로 71년과 72년을 대비하여 보면 그간의 물가등귀율은 8.5%를 시현하여 전년도 동기간중의 등귀율 13%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중의 물가상승은 전년말경부터 실시된 정부의 꼭가현실화정책과 연초

연도별 전국도매 물가지수

표 1-29		1970=100					
연도	구분	총 지 수	농 수 산 품	섬유 및 그 제 품	화학제품	금속 및 그 제 품	연료 및 전 력
67		79.4	67.3	88.2	93.1	74.6	78.9
68		85.8	75.9	93.5	95.0	80.1	86.1
69		91.6	88.1	95.7	97.0	84.0	93.2
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		108.6	121.9	106.1	104.0	99.7	114.2
72		123.8	152.2	119.9	112.1	104.5	135.7
72/71		114.0	124.7	113.0	107.8	104.8	118.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1973)

72 월별도매물가 지수

표 1-30

1970=100

월 별	품 목	평 균	미맥류	과실류	축산물	분 류	조미료	숨 및 재	고 신	무 류	석유류	피혁류
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2		152.8	169.0	152.9	131.5	122.0	130.7	149.3	134.3	157.3	132.8	
1		138.2	151.5	129.2	126.7	122.1	118.5	131.5	131.9	148.1	113.8	
2		148.4	166.6	135.2	127.7	118.7	118.0	131.3	131.9	148.1	113.1	
3		154.9	176.3	137.7	128.1	119.6	117.8	131.9	131.6	148.1	116.1	
4		155.0	174.2	149.6	130.3	121.6	124.9	133.2	131.6	148.1	125.3	
5		158.2	174.6	177.5	131.0	120.5	138.4	133.2	134.8	148.1	130.6	
6		158.8	171.7	209.3	128.9	120.5	138.2	147.6	135.2	148.1	130.6	
7		158.9	171.3	209.2	131.5	119.9	137.0	154.8	135.2	154.9	133.3	
8		159.3	171.0	209.2	133.8	119.9	135.9	154.8	137.7	168.7	138.3	
9		154.4	169.6	135.1	134.2	119.9	134.9	164.5	135.9	168.7	143.8	
10		149.6	167.5	112.3	135.4	119.9	135.0	169.4	135.2	168.7	146.8	
11		149.8	167.8	114.5	135.1	119.9	134.8	169.4	135.2	168.7	148.0	
12		148.3	165.3	115.4	134.8	141.2	134.7	169.4	135.2	168.7	153.6	

자료 : 한국은행 경제 통계연보 (1973)

에 있었던 주류세 및 일부 물품세 등 간접세율의 인상에 기인하는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입상품가격의 상승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 결과 1/4분기 중 전국도매물가는 기말대비 5.2%나 상승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2월부터 당면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3월 15일에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가격을 3월 6일 선에서 동결하는 강력한 행정초치를 실시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7월하순에 석유 및 석탄가격이 각각 14%와 15% 인상조정되고 11월 이후에는 일부 주요 원자재의 국제시장가격상승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금리부담의 경감, 물가상승폭의 억제, 환율의 안정화, 공공요금인상억제 등을 골자로하는 8.3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72년 중 월별주요상품도매가격

표 1-31

단위 : 원

월별	품목	쌀	보리쌀	밀가루	쇠고기	설탕	면사	광목	요소비료
	규격	100l	100l	22kg	600g	15kg	23kg	30m	25kg
1		8,730	△5,129	884	557	1,875	490	2,412	681
2		9,669	△5,343	884	557	1,875	535	2,536	681
3		10,303	5,330	884	562	1,875	561	2,789	681
4		10,187	5,169	884	583	2,094	573	2,896	681
5		10,180	5,324	884	587	2,531	606	3,025	681
6		9,974	5,344	884	587	2,531	607	3,110	681
7		9,982	5,213	884	615	2,475	602	3,130	681
8		9,957	5,277	884	629	2,442	600	3,140	681
9		9,898	5,150	884	625	2,425	601	3,141	681
10		9,788	4,964	884	635	2,425	597	3,141	681
11		9,801	4,978	884	637	2,425	597	3,141	681
12		9,664	5,015	1,130	637	2,425	602	3,308	749

자료 : 한국은행 경제 통계연보(1973)

주 : △기호는 조사 대상처 변경으로 그 이전의 가격계열과 직접 비교될 수 없음을 나타냄

관한 긴급명령은 하반기 물가상승폭을 1.2%로 억제하는데 주효하였다.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쌀값은 4월부터 일반미의 반입호조와 정부보유미의 방출량 증대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잡곡류도 계절식품의 출회호조로 약세를 보였다.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정부미방출가격의 인하 그 방출지역의 확대, 그리고 4대도시에 대한 일반미 판매금지조치 등으로 연중의 폭가는 3월이래 출근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폭가의 하락세는 다른 농산물 가격의 안정세와 더불어 식료품가격의 오름세를 현저히 둔화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국제 원당시세의 상



승은 설탕가격등귀의 요인이 되었고 이 설탕과 조미료 등 일부 독과점 품목은 8.3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식료품가격에 비해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또한 12월에는 밀가루고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밀가루 1포대 (22kg)에 884원 하던것이 1,130원으로 경총뛰었다.

## 2. 농가구입가격

72년의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대비 14.1%의 등귀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등귀율은 가계용품 가격보다 농업용품의 가격등귀에서 비교적 더 영향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연도중의 가계용품 가격은 전년에 비해 11.6%가 상승하였으며 농업용품가격은 17.0%가 상승하였다.

농가의 가계용품가격은 해조어류를 예외로하면 전품목에 걸쳐 상승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곡면류, 광열류, 교육오락류 및 교통통신류의 가격상승이 주도적 요인이 되었다. 곡면류는 고미가정책과 이중맥가정책의 실시와 72년 9월이후 국제소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미맥류의 가격등귀와 연말의 밀가루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받았으며 광열류가격은 7월 말경 단행된 석탄 석유류의 가격인상 조치에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연중에 인상된 각급학교의 수업료와 신문 구독료는 교육 오락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밖에도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탁주가격의 인상은 기호품류의 가격을 전년보다 16.2% 상승시켰고 연도초에 단행된 교통 통신류가격의 인상과 피복비, 광열비, 잡비 등의 전반적 오름세가 가계용품가격의 등귀에 영향을 주었다.

농업용품가격의 등귀는 주로 종자류, 자재류, 가축류, 사료류 등의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연간에 무우종자와 배추종자는 각각 10.9%와 23.7%가 상승하였으며 농용자재 중 시멘트와 슬레이트는 새마을 사업으로 수요

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 20.6%와 11.9%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농가가 구입하는 경유가격도 20.5%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유류가격인상에 영향을 입은 것이다. 가축류가격등귀에 주도적 요인이 된 것은 송아지 값으로서 연간에 40.9%가 상승하였으며 사료류 가격등귀는 쌀겨 26.0%와 보리겨 25.9%의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이밖에 농업용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농약과 농기구의 가격이 연평균 5.8%와 5.6%씩 올랐고 비료는 0.8%가 올랐는데 농약가격의 등귀율이 비료가격의 등귀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의 경우 5월에 이미 평균 8.8%가 인상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가서 10%가 인상되었다는 데 있다.

한편 농촌임료금은 전년대비 연중에 19.4%가 상승하여 오름세의 폭은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이를 유별로 보면 농업노동임금은 15.9%, 기타 임금은 17.0% 그리고 농업용 요금은 26.2%가 각각 상승하였다.

농업 노동력의 비농업분야에의 유출이 비상한 관심을 모우고 있는 요즘 농업노동임금의 실태를 조금더 살펴보면 남자 1인 1일당 임금은 71년의 695원이 72년에는 803원으로 여자는 472원에서 552원으로 올랐는데 연중의

연도별농업노동임금(1인 1일당)

표 1-32

단위 : 원

구분 연도	남 자			여 자			농 우 임차료
	계 (A)	현금지급액 (B)	B/A	계 (A')	현금지급액 (B')	B'/A'	
67	307	182	59.3	207	114	55.1	302
68	381	231	60.6	260	147	56.5	369
69	463	274	59.2	316	175	55.4	463
70	579	366	63.2	392	231	58.9	588
71	695	457	65.8	472	293	62.1	596
72	803	542	67.5	552	353	63.9	697
72/71	115.4	118.6	102.6	117.0	120.5	102.9	117.0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평균 등귀율은 약 16%로서 전년도의 약 2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추이에 비추어 불매 농업노동임금의 현물 형태로 부터의 현금 형태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성인남자와 부녀자의 노동임금이 71년의 경우 아직 100.0대 68.7의 비율로 낮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연중의 월별농업노동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전년에는 연초에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당년에는 10월이래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매월 상승세를 보이던 임금수

72 월별농업노동임금(1인 1일당)

표 1-33 단위 : 원

구분 연도 월별	남 자				여 자			
	금 액		지 수		금 액		지 수	
	71	72	71	72	71	72	71	72
1	648	737	100.0	100.0	428	500	100.0	100.0
2	651	734	100.5	99.6	430	502	100.5	100.4
3	653	742	100.8	100.7	433	507	101.2	101.4
4	673	749	103.9	101.6	452	514	105.6	102.8
5	673	759	103.9	103.0	457	523	106.8	104.6
6	705	825	108.8	111.9	493	562	115.2	112.4
7	711	837	109.7	113.6	500	575	116.8	115.0
8	708	841	109.3	114.1	485	582	113.3	116.4
9	716	843	110.5	114.4	484	582	113.1	116.4
10	722	858	111.4	116.4	492	591	115.0	118.2
11	738	858	113.9	116.4	501	591	117.1	118.2
12	739	858	114.0	116.4	504	589	117.8	117.8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농촌물가 및 임료금 조사 보고

준이 12월에 가서는 도리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3. 농가판매가격

연중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21.8%가 상승하였다. 농가가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을 곡물 청과물 그리고 축산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곡물가격의 등귀율이 26.7%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축산물이 전년대비 18.2%가 등귀하였으며 청과물은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하여 타농산물가격에 비해 가장 안정세를 보였다.

연중의 곡물가격이 전년에 이어 이와같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68년산 추곡매입이래 실시해온 고미가정책과 69년부터 실시된 이중맥가제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같은 곡가정책 이외에 양곡 수급면에서는 미곡의 총공급량이 71년도보다 5.8%감소하여 미곡의 농가판매가격이 연평균 가마당 (100L) 27.0%가 올랐으며 72 미곡년도의 정부미 방출량이 전년 대비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곡물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곡물가격은 미·맥류와 잡곡 그리고 서류가격이 비교적 현저하게 등귀하고 두류가격은 전년대비 18.6%가 등귀하여 곡물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율을 보였는데 이는 연중에 콩가격이 25%나 상승하였지만 팥가격의 등귀율이 18.3%에 머물렀던 결과이다.

그리고 연중에 잡곡가격이 전년보다 28.2%나 상승하여 71년 중의 상승율 19.0%를 훨씬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잡곡혼식장려로 인한 수요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과물 가격은 지난해에 비하여 4.2%가 상승하여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실류 가격이 전년에 비해 8.2%가 등귀하였으나 채소류 가격이 연중에 불과 2.5%의 미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채소 중 고추,

곡물농가판매가격동향

표 1-34

1970=100

구분	가중치	71	72	전년 대비 변동율	
				71/70	72/71
미곡	401.8	125.6	159.5	25.6	27.0
맥류	49.3	136.2	176.7	36.2	29.7
잡곡	9.2	119.0	152.6	19.0	28.2
두류	47.6	106.8	126.7	6.8	18.6
서류	16.0	131.1	168.1	31.1	28.2

자료 : 농협중앙회 조사부

마늘 등 조미료는 어느정도 오름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무우, 배추, 파 등은 가격이 도리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무우, 배추가격은 계절변동이 격심하였지만 배추의 경우 72년의 평균 가격이 관당 63원으로 전년의 75원에 비해 16.0%가 하락하였으며 무우 역시 연평균 가격이 관당 5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7%가 하락하였다.

축산물가격은 근년에 와서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나 연중의 상승율 18.0%는 지난해의 20.8%에 비해 약간 둔화된 셈이다. 가축가운데 연중에 가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한우이며 연평균 34.3%나 대폭 등귀하였다. 육돈가격은 연중에 9.4%가 하락하였으나 72년 하반기부터는 일본지역에의 돈육수출이 실시됨으로써 가격은 상당히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육계 역시 전년보다 약간 싼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계란가격은 좀 올랐다. 끝으로 잠전 가격은 지난해보다 21.5%가 상승하였는데 이와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6월에 춘잠 매상가격이 21.5%인상되고 9월에 추잠이 21.6%인상되었기 때문이다.

#### 4. 곡물의 상품화율

농수산부가 조사한 최근의 곡물 상품화율을 보면 66년 이래 수년간에 상품화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곡물은 찹쌀, 밀, 수수쌀, 옥수수, 그리고 두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멥쌀과 더불어 곡물 중에서는 비교적 상품성이 높은 것 들로서 광의의 상품화율이 밀을 예외로 하면 60% 이상이며 나머지 곡물 예를 들면 보리쌀, 밀, 좁쌀, 서류 등은 40%내외이다.

그리고 상품화율은 그렇다 할지라도 판매량에 있어서는 주곡인 쌀과 보리쌀이 역시 주종을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류가 뒤따르고 있다.

곡물생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멥쌀의 경우 71년 10월부터 72년 9월까지의 1년간에 농가호당 생산량 2,173l중 총판매량은 1,438l로 광의의 상품화율은 66.2%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광의의 상품화율속에는 순판매량, 조세공과, 도정료, 실물노임, 보조증여, 대여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순판매량 조세공과 및 도정료만으로 개념되는 협의의 상품화율은 생산량의 46.0%이며 순판매량은 907.6l로 생산량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농가호당 멥쌀 총 판매량 가운데 자유판매, 농협공판, 정부수매를 통하여 판매된 순 판매량의 월별 상품화 상황을 보면 추수이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4개월간에 474.1l나 되어 연중판매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보리쌀은 농가호당 생산량 635.1l가운데 광의의 상품화율이 39.1% 협의의 상품화율이 29.1%이며 순판매량은 165.5l로 26%를 차지한다.

이 보리쌀의 순판매량 상품화 상황을 월별로 볼때에도 역시 수확기인 5월이래 8월까지에 연중 판매량의 62%가 처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멥쌀과 보리쌀의 광의의 상품화율을 농가계층별로 보면 멥쌀은 소농층에서 대농층에 갈수록 상품화율이 높아지고 있어 0.5정보미만에서는 55.87%이던 것이 2.0정보이상에서는 78.55%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리쌀

의 경우에는 0.5정보 미만의 28.9%가 1.5~2.0정보 농가층까지는 높아져서 51.3%로 나타났지만 2.0정보이상에서는 41.5%로 도리어 상품화율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이 농가층에서는 처음부터 보리쌀을 상품성 작목으로 많이 생산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이 농가층의 농가호당 보리쌀 생산량은 598.0%로 1.5~2.0정보 농가층의 906.8%보다 훨씬 적다.

주요곡물의 상품화율(호당 평균)

표 1-25

단위 : %

곡종별	생산량 (A)	광의의 판매량 (C)			상품화율	
		협의의 판매량 (B)		도정료	협의 (B/A)	광의 (C/A)
		순판매량	조세공과			
멥쌀	2,172.7	907.6	31.3	61.5	46.0	66.2
찰쌀	37.9	23.3	0.1	1.4	65.3	71.9
보리쌀	635.1	165.5	1.9	17.1	29.1	39.1
밀	112.1	37.1	0.0	1.8	34.7	43.2
좁쌀	16.7	2.5	0.1	0.5	18.8	22.3
수수쌀	2.8	1.6	—	0.1	58.4	62.0
옥수수	32.0	19.3	0.3	—	61.1	63.8
콩	100.9	58.9	0.0	0.0	58.4	63.3
팥	16.9	9.3	—	0.0	55.1	59.5
고구마	387.0	118.3	0.1	0.0	30.6	33.8
감자	225.8	90.4	—	—	40.0	43.5

자료 : 농수산부 주요농산물 상품화통계 (72년도)

### 5. 농가의 교역조건

농가의 교역조건은 70년에 이어서 72년에도 계속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71년을 기준으로 한 72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0.5 농가판매가격지수

는 147.9를 보이고 있다.

연중의 농가 구매품 가운데 가격상승으로 농가지출에 비교적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육용 가축구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노동력 구입이었다. 그 반면 전년에 대비 가격상승으로 농가지출에 별로 부담을 더 늘려주지 않았던 구입품목은 연중에 가격변동이 작았던 비료와 피복 및 섬유류 그리고 주거용품 등이었다. 한편 농가 판매품 가운데 연중 가격상승으로 농가 수취에 비교적 크게 기여한 항목으로는 미곡과 축잠물 그리고 판매총액 중 그 비중은 낮으나 두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에 비하여 가격이 다른 농가판매품 보다 현저하게 상승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 채소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농가의 교역조건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가장 큰 항목이다. 70년 기준으로 71년의 패리티율은 106.1%이던 것이 72년에는 113.3%로 현저하게 호전되었는데 연중에는 농가의 교역조건을 월별로 보아도 어느 달이나 농가의 판매가격 총지수가 구입가격 총지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절상으로는 여름철에 교역조건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같은 패턴은 70년이전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농 가 구 입 가 격 지 수

표 1-36

연도	구분	총합지수	가계용품	농업용품	농 임 료 촌 금	농촌임료 금 제외	가계 용 품 제외
67		65.8	72.7	64.0	53.8	67.9	60.1
68		78.8	80.3	83.8	65.7	81.3	76.8
69		86.8	87.6	89.1	80.5	88.1	85.8
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		114.4	112.3	116.5	119.5	113.6	117.5
72		130.5	125.3	136.3	142.7	128.6	138.5
72/71		114.1	111.6	117.0	119.4	113.2	117.9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농촌물가 및 임료금 조사보고



## 농가 판매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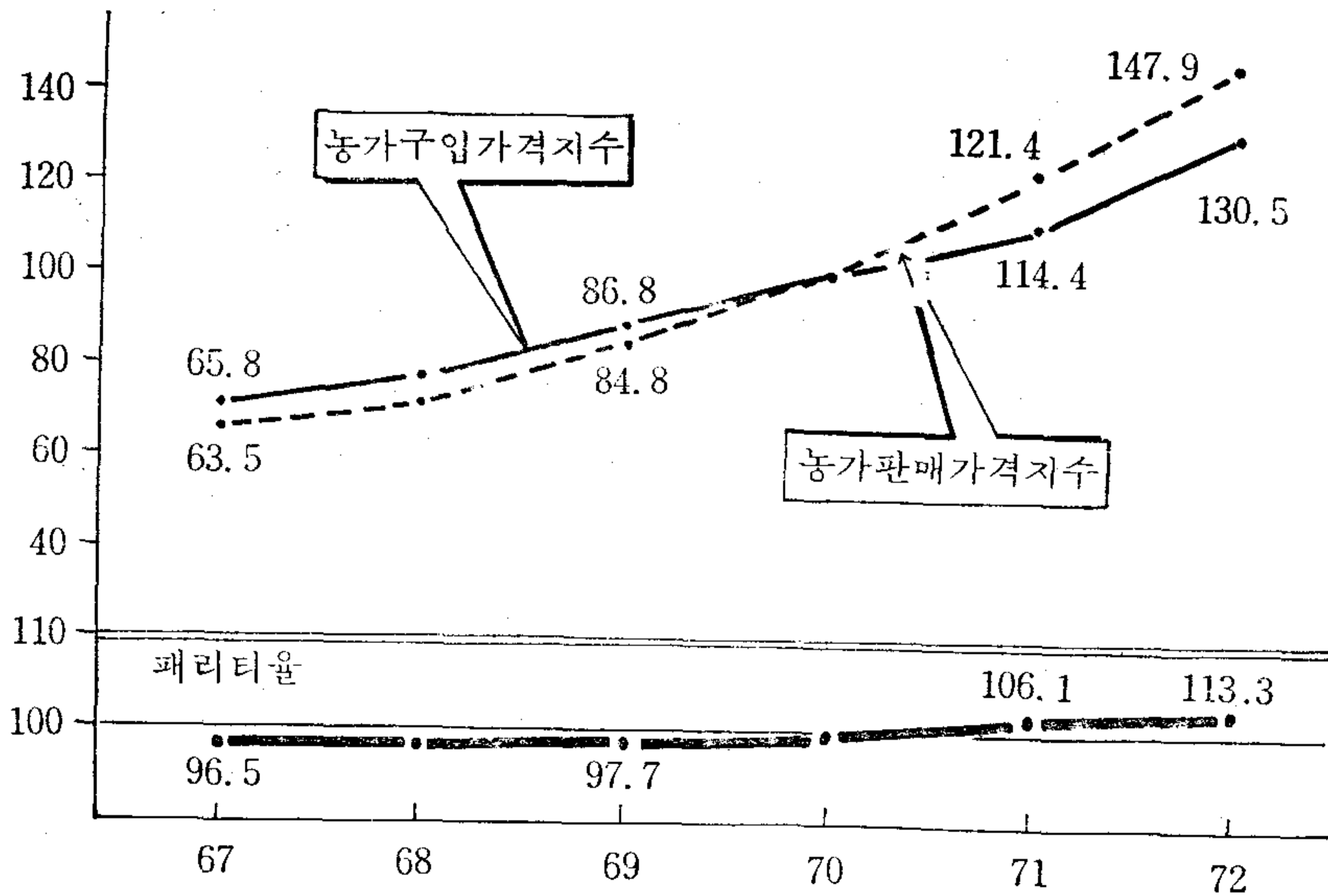
표 1-37

연도	구분	총합지수	곡물	청과물	축산물	기타농산물	채소외	곡물외
67		63.5	64.5	44.7	66.6	64.8	64.9	62.0
68		74.3	73.1	47.7	86.4	69.7	76.5	76.1
69		84.8	88.9	55.2	84.6	83.8	86.8	78.5
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1		121.4	124.9	101.8	121.1	132.0	123.9	117.6
72		147.9	158.3	106.1	143.1	164.7	152.8	136.5
72/71		121.8	126.7	104.2	118.2	124.8	123.3	116.1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가 교역조건

표 1-38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제 2 편 73년도 농업시책

**여백**

## 제 1 장 73 시 책 방 향

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농촌을 개발하고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농촌에 대한 투융자지원도 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하여 매년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증산에 대한 기반도 다져져서 농업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 농촌경제생활도 크게 개선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농업의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외곡을 도입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 수준 또한 도시근로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도·농간에 소득, 생활, 문화, 복지면에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73년도의 농수산시책의 기본방향을

첫째는 식량증산, 둘째는 소득증대, 그리고 세째는 이러한 증산과 소득 증대를 통해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두고 76년도까지는 주곡을 기필코 자급하고, 또한 80년대 초에는 농가소득 134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장기목표하에서 증산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아울러 가격지지 및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농어촌의 환경개선책 지원사업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되 그 방법으로서는 모든 농토를 작업장화하고 모든 농민을 기술자화하며 아울러 모든 일손을 생산화 하도록 새마을방식에 의하여 유도함으로써 윤택하고 활기에 찬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농어촌경제의 혁신적개발을 위해서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민의 자조적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지원하는 농수산관계의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들도 정열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인 바, 올해의 농수산물시책추진도 이러한 기본자세와 정신적 바탕위에서 대농어촌투자과 지원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아갈 방침이다.

## 제 2 장 식 량 증 산

73년도의 식량증산목표는 72년도 생산량보다 7%가 증가된 7,730천%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 쌀은 72년도 생산량보다 5%가 증가된 4,154천%, 맥류는 7%가 증가된 2,382천%이며, 두류는 33%가 증가된 347천%, 서류는 11%가 증가된 745천%, 잡곡은 8%가 증가된 102천%이다.

73 식량증산계획

표 2-1

구	분	72 실적 (A)	73계획 (B)	B/A
		천%	천%	
미	곡	3,957	4,154	105
맥	류	2,222	2,382	107
두	류	261	347	133
서	류	674	745	111
잡	곡	94	102	108
계		7,208	7,730	107

자료: 농수산부 농산국

식량증산목표를 달성키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식량증산 10대 중점시책과 더불어 쌀 계약증산제 및 쌀 다수확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제를 기본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 1. 식량증산 10대 중점시책

#### 가. 쌀 대단위증산단지 설정

종래 실시하여 오던 5-10ha 규모의 집단재배는 영농기술혁신과 영농의 협업 및 공동관리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주산지 전체인 평

야부 단위 경제권의 종합개발이라는 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7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전국 47개 평야부를 쌀 대단위 증산단지로 설정하여 중점 개발키로 하였다. 이 47개 단지는 우선 세밀한 영농여건, 기술 및 경영조건을 조사하여 표준경종 기준을 확립하고 이 영농기준에 의거 기간기술을 통일하여, 영농을 공동협업화하는 동시에 기반조성 및 기계화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유통처리시설의 유치 등으로 종합개발하는데 힘쓸것이다.

표 2-2 쌀 대단위 증산단지 설정

단 지 수	재 배 구 수	참 여 농 가 수	생 산 목 표		
			면 적	단 수	생 산 량
47단지	6,295재배구	269,181호	111,434ha	383kg	426,411%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 나. 벼 집단재배

벼 집단재배는 벼농사기술보급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68년부터 추진중인 조직영농방식이다.

7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전국 20,718개지구 206천ha에 단지를 선정하여 집중지도하고 중점지원하는 동시에 영농작업의 공동협업화로 기간기술을 통일시켜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 평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73 벼 집단재배 계획

표 2-3

생 산 목 표			단 지 수	참 여 농 가 수
면 적	단 수	생 산 량		
205,710ha	389kg	798.5천%	20,718단지	645,456호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 다. 용수확보

73년에는 5,911백만원을 투입하여 15만ha의 용수개발을 촉진하므로써 수리안전율을 82%에서 83%로 높이기로 하였다.

특히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평택지구에는 73년도에 12,982백만원을 투입하여 7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영산강유역은 2,901백만원, 한강 및 낙동강유역은 1,190백만원, 삼교천, 계화도 등 기타 지역은 3,200백만원 등 73년도에 총 11,311백만원이 용수개발 등 종합개발에 투입될 것이다.

### 라. 비장려품종일소

우량종자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61,800%의 종자를 생산하여 766,965ha에 보급키로 하였으며 특히 식량작물의 주종인 미곡에 있어서는 잡다한 77개 비장려품종을 일소하고 18개 장려품종만을 보급키로 하고, 만생종 재배로 인한 기상장해를 방지하고자 조중생종 5.3%를 80.5%로 확대 보급코자 증식산포 종자와 벼집단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다음과 같이 농가에 교환 보급할 계획이다.

73 벼 품종 보급 계획

표 2-4

조 생 종	중 생 종	만 생 종	계	장려 품종
120,687 <sup>ha</sup>	835,432 <sup>ha</sup>	231,342 <sup>ha</sup>	1,187,461 <sup>ha</sup>	18품종
10.1%	70.4%	19.5%	100%	

자료: 농수산부 농산국

73 종자 갱신 계획

표 2-5

곡	종	채 종 계획	갱 신 면 적
미	곡	16.0 <sup>천%</sup>	400.0 <sup>천ha</sup>
맥	류	20.3	302.6
대	두	4.0	36.7
옥	수	0.4	14.0
감	자	17.9	10.8
고	구	3.2	2.9
	계	61.8	767.0

자료: 농수산부 농산국



### 마. 보온못자리 확대설치

우리나라의 미곡 단수제고에 있어 재배기술면으로 가장 큰 저해요인은 만기 이앙과 추수기 저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종래 보온못자리에 의한 조기이앙이 총 면적의 7%에 불과하였으나 73년도에는 이를 24.2%인 288천ha의 조기이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온못자리를 14,462ha로 확대설치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같은 방대한 면적의 보온못자리의 설치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포리에치렌 필립 5,905% 중 3,928.1%를 농협 또는 시, 도를 통하여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무이자 외상공급키로 하였고, 특히 보온못자리의 필요성이 크고 효과가 큰 북위 37° 이북의 쌀 대단위증산단지의 모든 못자리에 대하여는 50%의 국고(33백만원 지원)와 30%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80% 보조조건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 바. 지력증진

토양의 부식도 향상과 물리화학적 성질의 개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력증진사업은 퇴비증산을 위시하여 객토, 심경, 규산질공급 및 석회공급 등 5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퇴비생산은 밭의 경우 ha당 15% 1모작 논은 7.5%, 2모작 논은 13.8%를 전 경지면적에 사용할 목표로 계획을 책정하였고 특히 객토와 심경은 겨울철과 이른 봄 농한기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사업계획량은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표 2-6 지 력 증 진

구	분	생 산 계 획
퇴	비	28,000천%
객	토	117천ha
심	경	242 "
규	산	50 "
농	용 석 회	405 "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 사. 병충해방제

금년에는 방제회수를 72년의 4.9회에서 5.5회로 늘려서 약 548천%의 식량감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업내용을 보면 신속, 정확한 예찰정보를 중앙단위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주 1회 지역예찰은 도 농촌진흥원이 주 1회 발표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지도소에서 포장을 순회관찰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즉각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방제활동은 공동방제와 일반방제로 구분 실시하되 공동방제는 쌀 대단위증산단지를 대상으로 중점방제하고, 특히 항공방제는 72년도보다 20천ha가 많은 70천ha를 집단 단지에 우선 실시하므로써 방제효과를 제고시켰고 소요 농약은 40%를 농협이 공급하고 나머지 60%는 시중에서 구입사용케 하였다.

## 아. 수확후 처리개선

벼의 예취후 처리의 적정여부가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미질향상과 예취후 감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73년도에는 20,000ha의 건가시설과 500대의 건조기를 공급키로 하였다.

20,000ha의 건가시설 중 8,505ha는 정부지원사업으로 11,495ha는 지방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조시설은 용자 80%로 지원공급토록 하였다.

## 자. 경지면적 확보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각종 도로의 확장, 산업, 공공시설 부지 및 택지조성 등으로 많은 농토가 타용도로 전환되므로써 이에 대비하여 73년도에는 농토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즉 73. 1. 1자로 공포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농경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경지이용의 합리화로 유희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동시에 개간 및 개답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차. 보리 증산

73년도에는 보리증산을 위하여 재배권의 감축을 최소화하고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증산시책의 기본방향을 두었다.

재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71년 436천ha에 불과한 답리작 보리를 73년도에는 475천ha로 확대 추진하고, 유흥경지의 활용증대에 힘쓰는 한편 보리에시가격제를 실시하여 농가의 확대 재배의욕을 고취하기로 하였으며, 단위당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7,000ha의 보리집단지배로 기술보급의 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종자의 전면소독, 영농시한의 철저한 이행과 시비방법의 개선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2. 비료의 효과적 시용과 시책개선

농민의 질소질 편중 시비에 의한 감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용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작물별 시비추천량에 의거 판매하고 복합비료의 증량시비, 질소질 비료와 인산·가리질 비료의 비종간 가격 조정 시비법 개선지도 등으로 균형시비에 노력해 온 결과 3요소간의 시비량 비율이 60년도의 78 : 20 : 21에서 72년도에는 57 : 27 : 16으로 균형시비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상적인 시비 비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는 균형시비를 위하여 비료판매 계획량은 작년도의 648천톤보다 24%가 증가된 801천톤으로 책정하되,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은 53 :

73 비료 수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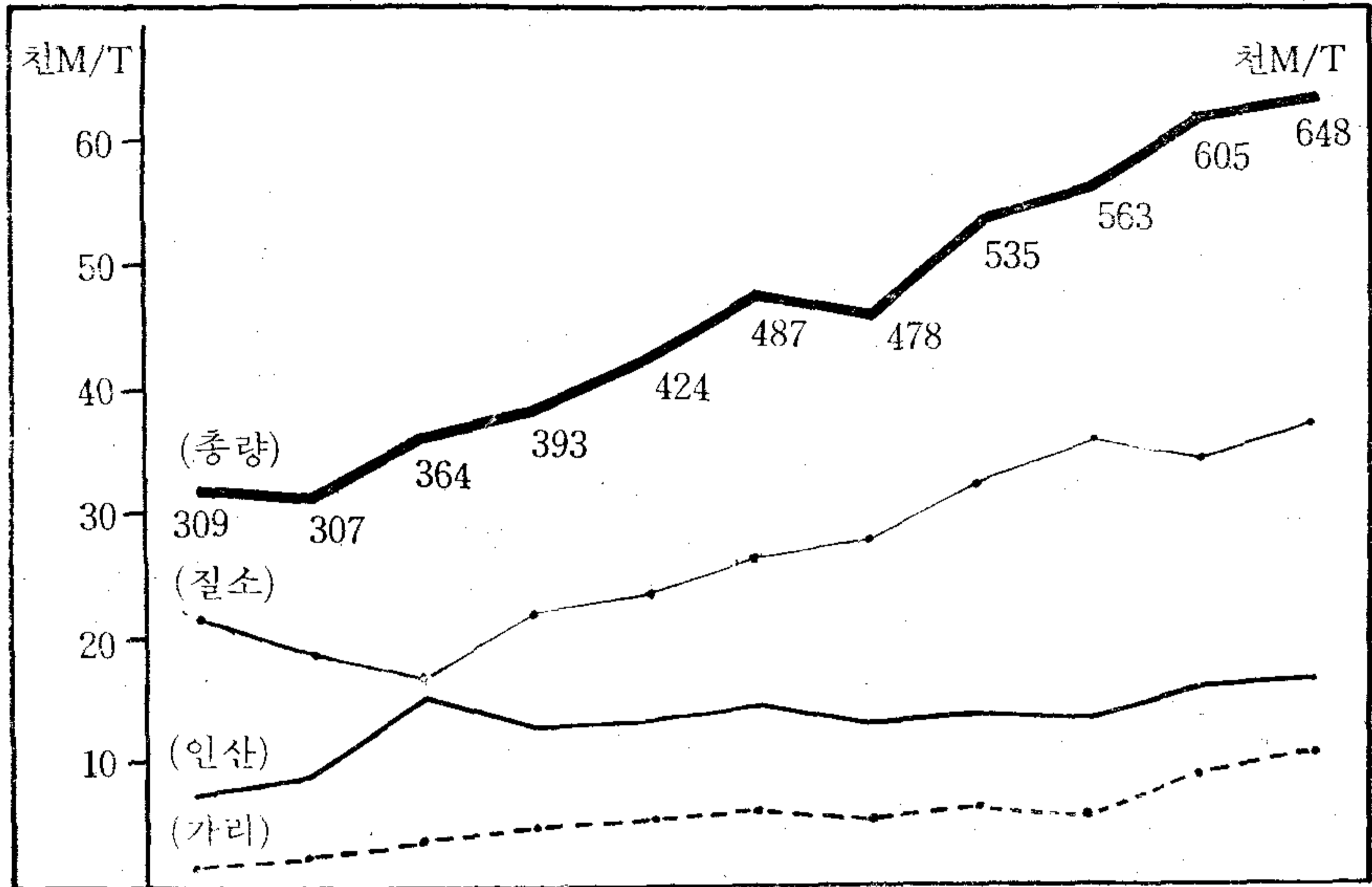
표 3-7					단위 : 천%
구	분	질 소 질	인 산 질	가 리 질	계
공	급 량	545	269	173	987
판	매 계 획 량	425	225	151	801
차	년 도 이 월 량	120	44	22	186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28 : 19로 하였고, 농촌지도기관을 통한 시비지도를 강화하여 균형시비를 유도할 것이다.

비료 소비 추 세 (61-72)

표 2-8



연도	61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구분											
질 소	211	192	173	218	240	278	286	320	356	347	373
인 산	81	94	154	123	125	133	121	131	124	165	171
가 리	17	21	37	52	59	76	71	84	83	93	104
계	309	307	364	393	424	487	478	535	563	605	648
증가율	10	0	19	8	8	15	△2	12	5	1	7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주 : 연평균증가율 (전체 7.9%)

- 질소 : 6.4%
- 인산 : 9.8%
- 가리 : 32.9%

비료가격은 비료 구매원가와 조작제비가 매년 상승하여 판매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농업경영비 중 비료비의 비중이 커서 판매가격인상은 농가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 부담으로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 결과 비료계정 적자가 매년 누증하여 72년말 현재 27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적자를 정부가 보상토록 하므로써 농민의 부담을 더 높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비료의 현금 대 외상판매 비율은 금년도에도 70:30으로 하여 영농지원을 기할 것이다.

비료 판매방법은 농가별로 작물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토록 하되 추비증산을 위하여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게는 기준량보다 감량 판매하도록 하였다.

### 3. 주요보완시책

#### 가. 쌀계약증산

정부와 새마을부락과의 계약에 의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쌀 증산시책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보장하고, 그 증산효과를 실증시켜 다수확기술을 전국에 파급시키고자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8개도에 도별로 3개부락씩 합계 24개부락을 대상으로 쌀 계약증산제도를 실시키로 하였다.

정부는 쌀 계약증산부락의 단지실태조사를 하여 이에 알맞는 경종기준을 작성 제시하고 영농소요자재의 우선 공급지원 및 영농기술지도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농민은 계약재배운영회를 조직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경종기준에 의한 성실한 영농을 수행키로 하였다.

영농결과 목표량을 돌파하였을 시에는 계약증산부락에 대하여 시상하고 농민이 정부시책에 따라 성실히 영농을 하였음에도 목표 단수 미달시에는 보상기준단수 미달량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쌀 계약 증산 부락 실태

표 2-9

구 분	계약부락수	참여농가수	계약면적	단 수		
				평 년	보 상	73 목표
전 국	24개 부락	649호	268.4ha	362.5kg	380.6kg	438.0kg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나. 다수확 농가시상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6백평 이상의 논에서 단당 600kg 이상 다수확 한 농가에 대하여는 10만원씩 시상하는 대대적인 농민시상제도를 채택하였으며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지도소 또는 읍·면지소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 1.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요소는 토지이므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해서는 단위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경지의 보전 내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도시구역 및 각종 산업 시설용지의 확대와 도로 교통망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기존농경지의 잠식과 유희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써 식량증산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같은 현실을 타개함과 아울러 농지전용을 적극 억제하고, 이의 효율적 이용을 강력히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73. 1. 1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지의 타목적 전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 지 전 용 현 황 (1~6월까지)

표 2-10

72년 (A)	73년 (B)	대 비(B/A)
3,943정보	507정보	12.8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주 : 도시계획지·공업단지제외

한편 농지의 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절대농지는 공공투자 등으로 수리안전화된 농지와 집단화 농지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을 일절 불허함과 아울러 산간지대의 수리불안전 농지와 농촌취락내에 산재하는 농지 등 상대농지에 있어서도 그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필요한 시설면적의 1/2 이내로 규제하였다.

특히 농지감소의 큰 요인이 되어 왔던 도시계획지역 및 공업단지의 신규 설정 또는 확장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농지편입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킴과 아울러 동지역내의 시설전 농지의 경작이행과 유희 및 불실경작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등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증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 2. 농업용수개발

정부는 68년부터 신규 개발대상면적 398천ha에 대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 등 농업용수개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시설의 보강과 신규개답 141천ha를 개발함으로써 총 539천ha를 개발중에 있다. 이러한 집중개발의 결과 68~72까지 5년동안에 295천ha를 신규 개발함으

표 2-11 농업용수개발계획 단위 {면적 : 천ha, 사업비 : 억원}

구	분	개발면적			사업비	수리안전을	
		신규개발	보강개발	계		누계면적	안전율
67까지 안전답		750				750	53
수리안전답화	68~72 개발	295	50 (4)	349	448	1,045	82
	73 계획	11	3 (1)	15	52	1,056	83
	74 계획	15	2	17	96	1,071	84
	75~76 계획	77	65(16)	158	797	1,148	90
	소 계	398	120(21)	539	1,393	—	—
전전환 및 건답직답		127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주 : ① 총답면적 1,275천ha

② ( ) 내 개답의서



로써 72년까지 총수리안전담 면적은 1,045천ha로서 수리안전율이 82%에 달하였고, 73년도에는 수리불안전담 15천ha를 신규 개발하므로써 수리안전율을 83%까지 높일 것이다.

4대강 개발사업 계획(농업용수부문)

표 2-12

단위 : 백만원

내역별	재원	총사업비	연차별계획				비고
			72까지	73계획	74계획	75~76	
금강·평택지구		36,800	11,047	12,982	12,771	—	(69-74)
	내자	19,777	6,273	6,842	6,662	—	
	외자	17,023	4,774	6,140	6,109	—	
한강유역	내자	5,066	1,214	439	440	2,973	(66-76)
	외자						
영산강유역		33,522	757	2,901	8,315	21,549	(71-76)
	내자	15,762	578	1,757	4,744	8,683	
	외자	17,760 (45,800천불)	179	1,144	3,571	12,866	
낙동강유역	내자	5,193	1,726	752	800	1,915	
	외자						
계	내자	45,798	9,791	9,790	12,646	13,571	
	외자	34,783	4,953	7,284	9,680	12,866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 3.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농업용수개발, 유축농업의 장려,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식량증산 등을 추진하여온 바 농촌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개발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최근에는 농촌을 대단위

로 구획하여 다목적으로 종합개발하므로써 명실상부하게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배경하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정부는 이 사업을 내자 이외에 외국차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강·평택지구와 영산강유역개발사업을 위한 IBRD와 IDA차관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 가. 금강·평택지구개발

경기도 평택주위와 충남의 아산, 논산, 전북의 익산 등에 걸친 37,350ha를 개발하기 위한 금강·평택지구개발사업은 방조 제 2조(4,628m), 양·배수장 29개소, 용·배수로 1,318km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지난 69년부터 조사설계를 시작하여 주요 토목공사는 70년에 이미 착공하였으며 74년까지 차관자금 169억원(45백만불)과 내자 199억원 도합 368억원을 투입하여 전천후 영농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대 단 위 농 업 개 발 사 업 계 획

표 2-13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주 요 사 업	재원별	총사업비	연 도 별			
				72까지	73 계획	74 계획	75이후
금강·평택 지 구	(37,350ha)						
	방조제 2, 저수지 1	계	36,800	11,047	12,982	12,771	—
	양수장 26, 배수장 3	내자	19,900	6,273	6,842	6,662	—
		외자	16,900	4,774	6,140	6,109	—
영산강유역	(34,500ha)						
	저수지 4, 보 3	계	33,522	757	2,901	8,315	21,549
	용수간선 45 조	내자	15,762	578	1,757	4,744	8,683
		외자	17,760	179	1,144	3,571	12,866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아산방조제와 남양방조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하구체절공사로서 하천에 흐르는 한방울의 물도 헛되어 바다에 유출함이 없이 저수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쓰인 내·외자는 72년도까지 110억원이며, 73년도에 130억원을 투입하여 주요 수원공사를 대체로 완성하므로써 전계획공정의 70%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74년도에 이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9,100ha의 농경지가 신규로 조성되고, 단위생산성을 높혀 사업시행전에 비하여 연간 77억원의 농업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영산강유역개발

영산강유역 개발사업은 영산강유역 서남해안의 간척지를 포함한 100천ha를 개발하여 식량증산과 농업근대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제 1 단계 사업으로서 34,500ha에 대한 용수원개발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 1 단계사업은 76년도까지 IBRD와 IDA차관 178억원(48백만불)과 내자 157억원 도합 335억원을 투자할 것인 바, 72년도까지 7.6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설계와 부체도로를 시공하였으며, 73년도에는 29억원을 투입하여 담양, 장성, 대초 3개 저수지의 수원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2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112억원의 증수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 다. 대단위농업개발

새마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삼교천과 계화도지구는 이미 대일차관이 확정단계에 있어 74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옥서·금창·창녕·임진·내성천 및 황강 등 5개지구에 대하여는 착공을 위하여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을 한 지역단위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갈 때 농촌의 근대화가 이룩될 것이다.

대 단위 농업 개발 계획

표 2-14

단위 : 억원 (외자 : 백만불)

지 구 명	개발면적	사 업 비			비 고
		총 액	내 자	외 자	
삼 교 천	24,700 <sup>ha</sup>	336	67	(67.0) 269	74. 착공 예정
계 화 도	2,640	38	7	(7.7) 31	"
소 계	27,340	374	74	(74.7) 300	
영산강 2 단계	28,900	495	198	(74) 297	77. 착공 예정
금 창	13,000	95	19	(19.0) 76	75. "
창 녕	2,600	39	8	(8.0) 31	"
임 진	10,400	93	37	(14) 56	"
우 서	53,900	428	171	(64) 257	"
내성천및황강	(311,300)	249	100	(37) 149	"
남 강	349,300	270	108	(41) 162	"
소 계	(311,300)	1,669	641	(257) 1,028	
합 계	108,800 (311,300) 136,140	2,043	715	(331.7) 1,328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주 : 개발면적 ( )는 유역면적임

4. 경지정리

경지정리 대상면적 588천ha 중 72년도까지는 대상면적의 34%에 해당하는 200천ha를 정리 완료 하였고, 73년도에는 국비보조 3,437백만원을 포함한 총 6,874백만원으로 25천ha를 실시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금강·평택지구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천ha를 실시하므로써 경지정리 실적은 대상

면적 대비 39%에 해당하는 231천ha가 될 것이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73년도의 주요시책 으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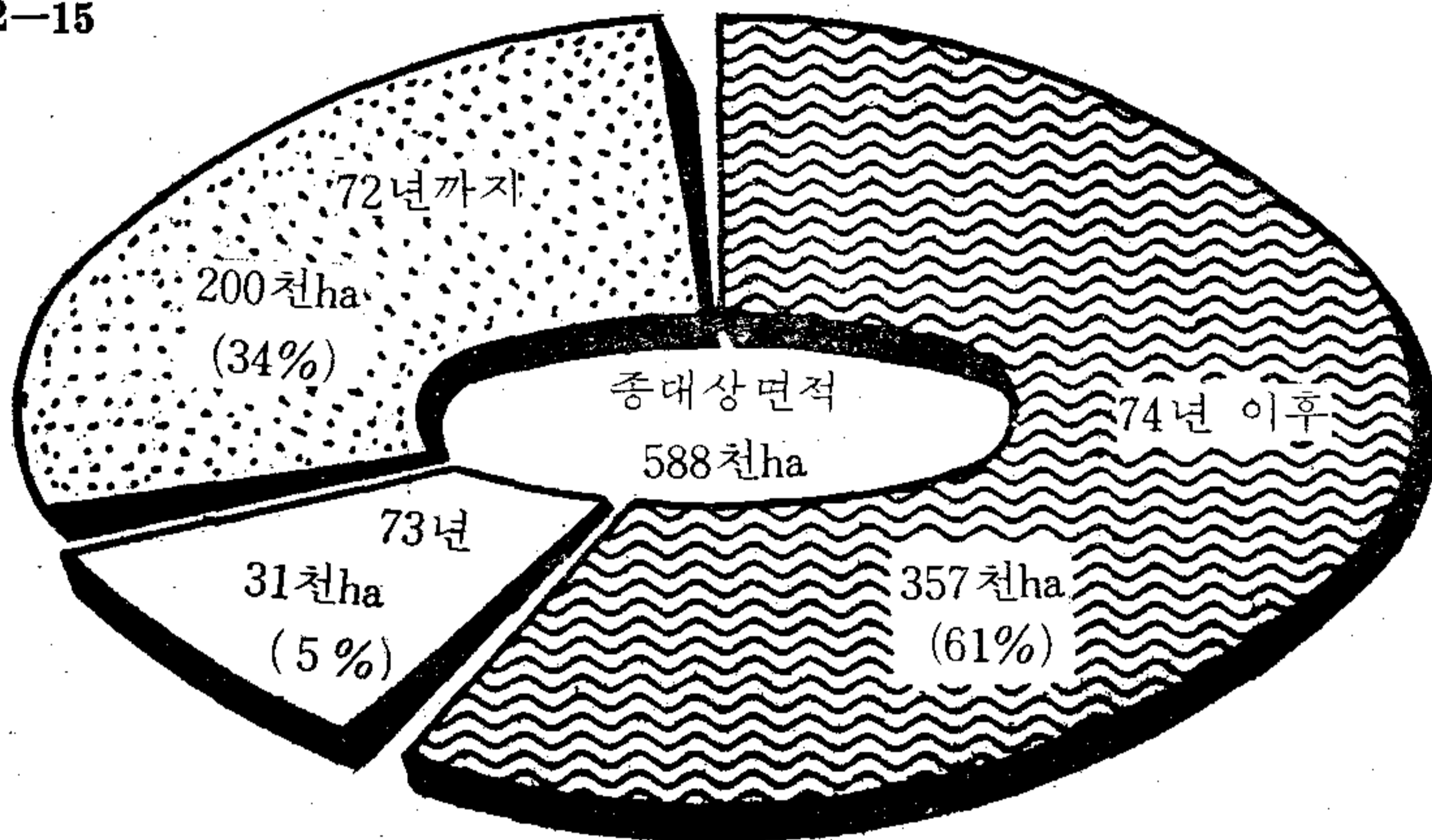
첫째, 조기완공으로 모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11월에 착공하여 익년 5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였고,

둘째, 농업용수사업 평야부공사와 경지정리사업을 일괄 실시할 수 있는 지구는 동시에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을 높였으며,

셋째, 환지처분의 신속한 처리로서 농민의 권익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경 리 정 리

표 2-15



자료 : 농수산부 농지국

## 5. 농지조성

야산 개발가능면적은 총 175천ha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농경지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28천ha에 이른다. 7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여주 104ha, 충남 서산 123ha, 전북 익산 216ha, 전남 신북 160ha 계 603ha를 개발하였다.

73년에는 민간통제선 북방의 유휴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총 880ha를 개

발하였다.

## 6. 농업기계화

1950년대까지는 인력 및 역우 중심의 전통적인 영농기술 체계를 탈피치 못하였으나,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정부의 농업기계화 계획과 기계공업육성정책에 따라 동력경운기, 양수기, 동력방제기, 탈곡기 등을 공급지원하여 1962년 이래 동력농기계의 보유증가율을 매년 40% 이상씩 크게 증가시켜 왔다.

동력농업기계보유상황

표 2-16 단위 : 대

연도 \ 기종별	경운기	방제기	탈곡기	양수기
62	93	714	8,022	12,292
65	1,111	7,579	18,909	26,029
68	6,225	11,568	26,875	37,796
71	16,842	69,407	63,350	57,896
72	24,786	82,292	75,532	60,616

자료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정부에서는 계속 감소되는 농업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경지이용의 고도화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72년부터 76년까지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총 165억원을 투자하여 경운기 38,740대, 동력방제기 97,800대, 양수기 22,995대 등 총 196,055대의 동력농업기계를 공급한다.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의 제 2차년도인 73년도에는 28억원을 지원하여 동력경운기 8,087대, 동력살분무기 15,500대, 동력분무기 1,988대, 양수기 2,943대, 탈곡기 2,316대 등 총 30,750대를 기계계와 통일촌지역에 대하여는 기대가격 전액을, 기타기종은 50~70%를 용자지원 공급하여 농경

지 235천ha의 경운·정지작업을 기계화하며, 병충해 1일 방제 일수를 7.2일에서 6.3일로 단축하고 양수 및 탈곡작업도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기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은,

첫째, 농업기계 공급은 자유판매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 설치된 농업기계판매점을 통하여 생산자가 공급하고 지원자금은 농협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용자 지원하며

둘째,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립마을에 설치된 농업기계 공동이용체(기계체) 241개소를 공동소유 공동이용과 지도자소유 공동이용형태로 구분 마을 실정에 적합 하도록 지도 육성하여 개별소유기대도 자가영농 이외는 타가영농에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한다.

가. “공동소유, 공동이용” 기계체는 농가 15호 또는 농경지면적 15ha기준으로 설치하며, 동력경운기·동력분무기·탈곡기 각 2대의 기본기대를 확보토록 하고, 기대구입비 전액을 용자지원하며, 전담지도원 1인을 배치하여 중점 지도한다.

나. “지도자소유 공동이용” 기계체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기대조작능력자(기대조작훈련을 이수하고, 마을주민의 신뢰를 받는 자)를 중심으로 농가 7호 또는 농경지 7ha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동력경운기·동력분무기·자동탈곡기 각 1대의 기본기대를 확보토록 하고, 기대구입비 전액을 용자지원하며, 2개소당 전담지도원 1인을 배치하여 중점 지도한다.

셋째, 농업기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기본성능검사와 개별검사 합격품을 공급한다.

넷째, 농업기계의 훈련은 농촌진흥청이 전담하여 중앙에서는 교관요원을 시·군에서는 실수요자를 기술훈련한다.

다섯째, 공급되는 농업기계는 용자기간 동안 시·군 농업기계판매점(전국 275개소)에서 연중 사후봉사를 실시하며, 생산자는 연 3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여 사후 봉사한다.

## 제 4 장 성장농업의 확대

### 1. 축산진흥

급증하는 축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80년대의 수요증대에 대비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축산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은,

첫째, 한우의 육성, 비육 및 유우사육 등을 확대조성하여 가축증식의 기반구축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둘째, 가축개량으로 단위 능력을 향상시키며

셋째,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넷째, 자급사료 증산과 사료가격 안정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생산시책을 증진함에 있어서 한우육성 및 비육사업은 제 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무축농가를 중심으로 한우를 입식 증식시킴으로서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우육의 공급증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증대는 국내 젖소의 자연증가로는 충족할 수 없어 IDA차관 자금과 민간자금으로 젖소를 도입하고 있다.

가축의 단위능력 향상 사업으로는 우량종축의 도입 및 개량보급과 인공수정사업을 강화실시함으로써 가축의 성질을 개량하여 사육농가의 품종선택의 지침을 제시하고 축산의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다.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기반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생산물의 판로 및 가격보장과 거래방법의 개선 판매시설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업자가 직관하는 양돈장의 자돈구입자금과 규격돈 수집자금 등을 지원할



것이다.

사료의 수급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확보된 사료조절기금 1,076.4백만원과 73년도 예산에 계상된 180백만원을 활용함으로써 배합사료의 생산과 유통원활을 촉진하여 양축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급사료의 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72년까지 초지 54,697ha를 조성하였고 73년에는 3,150ha를 조성할 계획인 바 앞으로도 계속 초지를 확대조성하는 한편 담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할 것이다. 그리고 축산진흥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에 힘써 양축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 가. 주요가축의 증식

주요 가축증식은 한우, 젓소, 돼지, 닭 등에 우선 중점을 두어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기반조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본 두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한우는 73년에 358천두를 생산하고 293천두를 도살하여 46천톤의 우육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것은 72년 우육생산실적 40천톤보다 15%가 늘어날 것이다. 한우의 증식을 위하여는 육성우 사업에 의한 기본두수 확보와 비육사업에 의한 증체로 도살두수의 절감효과를 기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우육성 및 비육사업은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하여 한우육성사업으로 41천두, 비육으로 6천 1백두를 실시할 계획이다. 돼지는 최근 대일수출에 따른 양돈열이 고조되고 있으며 73년도 돈육수출목표는 750만불로서 전반기는 돼지의 출하기피로 다소 부진하였다.

돼지고기는 72년도 공급량 79,852톤에 비해 73년도에는 2.9%가 증가된 103,248톤을 공급할 것이며, 72년말 1,247천두보다 20.8% 증가된 1,506천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닭의 사육수는 72년 24,537천수에서 73년말에는 14.9%가 증가된 28,201

천수로 늘어날 것이며 계란은 3,079백만개를 생산할 것이다.

젖소는 급격히 늘어나는 우유소비에 대응하여 73년도에는 IDA차관으로 1,700두와 민간도입 3,200두를 허용하여 총 4,900두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우의 증식은 72년말 36천두에서 73년말에는 46천두를 증식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73년도에는 우유를 72년보다 29.3% 늘어난 103천톤을 생산 공급토록 할 것이다. 특히 73년도에는 공급 부족상태에 있는 우유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유장분말 300여톤을 도입하여 조제분유 및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하므로써 6,800여톤의 원유절감을 기하고 송아지 대용유 도입으로 새끼 젖소를 육성하므로써 원유 납유량을 증가시키며, 냉장시설 없는 가두점포나 잡화상에 시유공급을 억제하고 유우 2,500두의 추가도입 등으로 73년도 우유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우유처리가공능력도 한국

주요가축증식

표 2-17 단위 : 천두(수)

연도		70	71	72	73 계획
구분					
한우	우	1,270	1,247	1,333	1,390
젖소	소	23	30	36	46
돼지	지	1,121	1,332	1,247	1,506
닭		23,477	25,903	24,537	28,201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생산

표 2-18 단위 : 톤

연도		70	71	72	73 계획
구분					
우육	육	37,336	39,484	40,229	46,375
돈육	육	82,546	80,880	90,230	103,302
계육	육	45,177	49,997	54,266	59,218
계란	란	2,456백만개	2,535백만개	2,796백만개	3,079
우유	유	51,888	65,307	79,852	103,248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낙농유업Co의 증부 및 호남공장과 매일유업Co의 우유가공공장이 가동되므로써 171,760톤의 원유처리 능력을 확보하여 위생적인 시유 및 유제품을 생산공급할 것이다.

## 2.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우리나라 경제는 그 간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도적 과정에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시정책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책으로 추진된 것이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이다.

이 사업은 68년부터 71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식량작물외에 성장농수산물에 대상으로 90개 지구에 주산단지를 조성하였다.

그간 이 사업의 추진으로 수출작목인 잠엽, 양송이, 굴, 백합, 표고 등과 국내수요품목인 과수, 한우 등의 생산기반이 확충되어 생산 증대와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를 농특사업 실시 이전인 67년도와 제 1차 농특사업을 끝내고 제 2차 농특사업의 제 1차년도에 들어선 72년도

생 산 증 대

표 2-19 단위 : %

연 도		67	72	72/67
구 분				%
잠	엽	10,903	26,800	246
양	송이	1,732	19,269	1,113
감	굴	1,640	11,750	716
우	유	19,188	79,852	416
백	합	3,583	7,009	195
표	고	108	194	179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수 출 신 장

표 2-20

단위 : 백만불

연 도	67	72	비율
구 분			
총 농 수 산 물	129	425	329
생 사 류	32	106	331
양 송 이	0.5	8.3	1,660
굴	0.08	6.0	7,500
백 합	0.6	4.0	667
표 고	0.4	2.0	500

자료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

를 비교하면 별표와 같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농어민의 소득도 일반 농어가의 소득보다 매년 4~5만원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농어민들의 참여의욕이 높아지고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72년부터 76년까지 2차 농특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으면 2차 계획은 시·군을 중심으로 한 137개 지구에 참여농어가 75만여호를 대상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생사, 양송이, 굴, 백합, 표고 등과 국내 수요 증가가 현저한 육류, 과일수 등 23개 품목에 총 71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같은 농특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추진방향을 그간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잠업, 한우, 감귤과 같이 내외수요가 증가하는 성장품목은 적극 확대해 나가고, 굴양식과 양잠은 지도자 중심으로 협동작업체제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양송이 재배와 젓소를 사육하는 낙농 목장 등은 전업화 또는 기업단위로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왜성사과 등 신품종을 보급하고, 성력재배를 위한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산면에서의 지원은 물론이고 건조, 가공처리시설의 확충 등 유통면에도 중점 지원한다.

특히 73년도에는 지난해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부락 중 자립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새마을 농특부락으로 조성, 새마

을 사업이 소득증대로 직결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원되는 73년 농특사업은 137개 지구에 총 14,269백만원을 투자하여 495천호의 농어가를 참여시킬 계획이고 투자 재원별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정부보조 1,776백만원, 중장기와 단기융자 7,813백만원, 낙농사업의 IBRD차관 692백만원과 이밖에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기자금 3,98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 투자내역을 보면 육성우를 비롯한 축산사업이 전체의 47.8%로 대종을 이루고 다음 경제작물 24.5%, 잠업이 19.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사업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개 요

표 2-21

구	분	1차 계획 (68~71)	2차 계획 (72~76)	73
지	구 수	90개	137	137
품	목 수	43	23	21
참	여 농 어 가	410천호	750	495
총	투 용 자	471억원	716	143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 업 종 별 투 용 자 총 괄

표 2-22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국비보조	지방비 보조	재투융자	금융자금	단기자금	IBRD	주민부담
계	14,269	786	990	2,062	5,566	185	692	3,988
잠	2,815	606	714	590	—	—	—	905
경제작물	3,498	1	46	751	1,241	185	—	1,274
축	6,823	88	215	141	4,325	—	692	1,362
수	699	—	—	538	—	—	—	161
산	434	91	15	42	—	—	—	286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품 목 별 사 업 규 모

표 2-23

품 목			단 위	72~76	73
1.	잡	업	천주	350,000	80,000
2.	양	송	이	300,000	90,300
3.	사	과	ha	2,359	963
4.	감	굴	"	5,290	1,125
5.		배	"	1,045	245
6.	복	송	아	1,105	209
7.	포	도	"	1,230	191
8.	단	감	"	850	210
9.	매	실	"	35	35
10.	저	마	"	400	400
11.	인	초	"	2,100	390
12.	생	약	"	202	28
13.	다	원	"	250	250
14.	육	성	우	204,500	42,410
15.	비	육	우	27,000	6,150
16.	젖		소	3,400	1,700
17.		굴	대	22,200	4,000
18.	백		합	1,120	—
19.	해		태	27,300	—
20.	미		역	37,700	6,100
21.	주	요	패	4,275	745
22.	밤	나	무	21,580	6,300
23.	표		고	73,900	14,780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 3. 경제작물증산

경제작물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그 소비수요도 계속 증가되어 왔고, 수출시장의 꾸준한 개척으로 수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농가소득의 향상, 수출증대, 국내수요충족을 위하여 증산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73년도에는 3,397천톤의 경제작물을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양송이는 72년도보다 42%가 증가된 27천톤을, 과실은 9%가 증가된 532천톤, 그리고 채소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량인 2,754천톤을 계획생산하는 체제로 이끌어 나아갈 방침이다.

경제작물 중 비교적 수출이 순조롭고 농가소득이 높은 양송이는 노후재배사를 개·보수하는 한편 재배사와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우량종균을 적기에 공급하여 1,300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과수는 우량묘목의 공급과 생산기반비용의 지원으로 2,600정보의 생산권을 신규로 확장하는 동시에 기계화에 의한 협업경영을 유도하여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케 하고, 새로운 사과재배법인 사과왜화재배단지를 주산지역에 조성하여 농가의 시범이 되게 하고, 복숭아 및 포도는 농산물 가공원료권을 조성하여 나아갈 것이며, 감귤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연간 1,000ha씩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최근 유지작물의 주산국인 미국 캐나다 등의 금수조치에 따른 국내 유지자원의 자급화를 위해서 유희지를 생산화하여 해바라기 1,200%, 아주까리 1,400%를 생산하여 수입 대체하였다.

채소생산은 소비지별 수요량 판단에 입각한 적정량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별 입지조건에 따른 생산지표의 설정과 품목별 주산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량종자를 일소하고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제

도로서 종관관리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생산된 경제작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농민과 농협 및 실수요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재배토록 하여 생산물의 판로와 가격을 사전에 보장받도록 할 것이며 마늘, 고추, 참깨, 양파 등은 가격의 평준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비축하고, 판로 및 농가소득 보장이 확실한 품목에 대하여는 정부가 미리 하한가격을 예시하여 책임지고 구매하는 가격예시제도를 확대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생산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판로 및 가격을 보장하는 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43억원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회전 활용할 방침이다.

73 경제작물생산목표

표 2-24 단위 : 천%

구	분	73 목표	72 실적	73/72
특	용	84	72	117
양	송	27	19	142
과	실	532	489	109
채	소	2,754	2,717	101
	계	3,397	3,297	103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 4. 잠업증산

잠업의 생산과 수출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업생산조직의 육성으로 양잠경영구조의 개선 및 다수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양잠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두고 73년도의 잠업진흥시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73 주요 사업 목표

표 2-25

고 치 생 산	31,100%
고 치 공 판	28,000 //
생 사 수 출	3,612 " (2,312%)
수 출 금 액	120,000천불(50,000천불)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주 : ( )내는 생사직수출분임

가. 생산기반의 확보 및 단위생산성 향상

- 1) 생사수출의 장기전망 계획에 따라 뽕밭 면적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비적성 품종대체와 보완 식상용으로 상묘 80,000천주 식상에 소요되는 묘목대 288,000천원을 보조한다.
- 2) 뽕밭 단위당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뽕밭 지력 증진을 위한 비배관 리용 뽕밭 비료 5,900% 공급에 소요되는 비료대 37,500천원을 보조하고, 봉밭 병충해 공동 방제용약제 1,398% 공급에 소요되는 41,940천원을 보조한다.

나. 잠견생산

- 1) 우량잠종 생산 공급으로 잠견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잠종장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설 운영비 55,217천원을 보조한다.
- 2) 고치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부족잠실을 해소하고자 잠실 2,180동, 설치비 272,000천원을 재특 또는 재특회전자금으로 융자한다.
- 3) 양잠경영의 구조개선과 생산비의 절감 대책으로 시범치잠 공동사육 시설 28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140,000천원을 보조하고 140,000천원을 융자한다.

4) 잠실 잠구 소독을 철저히 하여 잠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견생산 공동방제용 약제 110%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71,520천원을 보조한다.

#### 다. 생사수출

- 1) 생사수출목표량 달성과 제사공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구견제도 운영의 합리화, 제사공장 및 견방공장의 운영감독을 강화한다.
- 2) 생사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조사 및 생사수급현황을 정확히 조사한다.
- 3)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사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외화가득액의 증가와 농촌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생사의 가공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 견직용 생사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 라. 기 타

- 1) 고치생산의 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잠 농가의 10호 단위 또는 자연부락 단위의 새마을 잠업전진회를 조직하여 잠업기술보급의 전진 기지로 만든다.
- 2) 잠업기술보급의 조속한 축진을 위하여 잠업기술요원 971명을 확보하여 주산지에 배치하였으며
- 3) 고치 검사의 공정으로 농가의 검사에 대한 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정용 자동조사기 10대를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도입한다.

## 제 5 장 농산물유통구조개선

### 1. 유통시책의 방향

#### 가. 농수산물 유통의 통례적 구조전환

경제개발 과정을 통하여 가속화 되어 온 국민경제의 공업화에 따라 이농향도 현상이 빚은 도시인구의 급증과 국민의 실질소득 향상에 따른 절대인구의 급증 등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면에서 일대 전환을 초래케하고 있다.

우선 수요면에서는 식료품이나 공업 원료로서의 농수산물 수요가 양적 확대와 질적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통면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농수산물이 산지와 소비자간에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정비의 시급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동태적 수요전환에 신속상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의 강구가 요청 되고 있는 것이다.

#### 나.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지금은 물론, 금후 수요의 질·량적 확대 다양화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농수산물 유통시책이 장·단기에 걸쳐 일관성있게 강구 될 것이다.

- 1) 수급의 균형을 기하고 농수산 자원의 최적 배분을 실현키 위한 계획 생산 유도
- 2) 계획생산체제의 유도를 위한 장·단기 시장관측과 가격예시제 및 보상과다의 강화

- 3)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정비를 통한 과다경쟁 방지, 원료권 형성 및  
상품의 품질 고급화
- 4) 물적 유통수단의 확충과 시장 유통체제 정비로 위생적 취급, 공정거  
래의 실현

## 2. 유통구조개선 시책

###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제정운영

종래의 농수산물 시장거래 질서는 중앙도매시장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일반 상품과 같이 규제 조정되어 왔으나, 73. 2. 6일자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법(법률 제2483호)이 제정 운영됨으로 수급의 원활, 적정가격유지,  
시장질서확립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  
었다.

### 나. 계획생산체제의 조성

계획생산에 의한 생산과 판매의 일관체제구축을 위하여 농협체통의 이·  
동 단위 작목반을 72년도의 942개에서 73년도에는 2,287개로 확대하여  
223억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의 계획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 다. 계통출하 촉진

산지집하체제의 강화와 계통출하에 의한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  
키 위하여 73년도에도 72년에 이어 고속도로 주변 집하장 6개소와 국도  
및 지방도에 접한 단위조합 276개소에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고 특히 축산  
물의 위생적 처리와 신속한 유통을 도모키 위하여 주산단지 중심의 모범축

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육류 및 계란 등에 대한 계통출하를 확대시키고 있다.

### 라. 농산물의 가격지지

농산물의 수급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증산이나 감산이 요청되는 품목 또는 개발품목으로서 가격이 불안정하고 판로가 불확실한 품목에 대하여 예시가격제와 계약재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하에 73년도에도 72년에 이어 10개 품목에 대한 예시가격제와 7개 품목에 대한 계약 재배를 실시하였다.

73년도 가격예시품목 및 예시가격은 다음 표와 같거니와 국제시장 수

표 2-26 73 예시가격실시작목 2등급 기준

작 목	단 위	예 시 가 격	
		72	73
보 리	76.5kg (가마)	대맥 : 6,357 원 과맥 : 6,040	대맥 : 6,993 과맥 : 6,944
맥 주 맥	kg	—	86.89
콩	"	116.67	—
참 깨	60 kg (가마)	27,000	시세에 따라 조정
유 채	kg	77.28	85
양 송 이	"	132	132
아 주 까 리	"	155	170.50
인 초	"	62	74
저 마	"	215	237
수 세 미	"	1,300	—
잠 전	"	춘잠 874 추잠 825	1,299 1,218

자료 : 농수산부

요의 감축이 예상되는 양송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시가격 수준을 전년대비 10%선 이상으로 인상시킨 바 있어 증산 유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며 특히 잠전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생사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예시가격 폭을 전년 대비 48%선까지 인상 시킴으로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예시가격이나 계약재배에 의하여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는 비축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량 수요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하므로써 중간이윤의 배제, 판로의 보장,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있는 바, 구매에 따른 소요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될 것이다. 계약재배 품목은 72년도의 8개 품목에서 73년도에는 7개 품목으로 축소되었으며 대상품목과 계약재배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73 계약재배 실시 작목

표 2-27

품 목	생 산 계 획		계 약 재 배		B/A
	면 적	생산량(A)	면 적	생산량(B)	
참 개	33,660ha	16,830 <sup>M</sup> <sub>T</sub>	1,400ha	700 <sup>M</sup> <sub>T</sub>	4.3
유 채	12,660 "	17,770	13,416	17,839	100.4
양 송 이	741,300평	27,428	741,300평	27,428	100.0
인 초	390ha	3,900	416	3,718	95.3
수 세 미	400 "	200	371.2	180	90.0
저 마	880 "	1,231	400	560	45.5
아 주 까 리	1,700 "	1,479	555	470	3.2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 마. 농수산물 가격 평준화

농수산물 가격은 계절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수확기에는 대량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나 수요는 대체로 연중 지속되어 단경기에는 상승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동향이 반복되어 정부에서는 시기별 가격 진폭이 심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연중 적정선으로 안정 시키므로써 생산 농어민의 소득보장과 도시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하고자 가격평준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비축 사업을 지난 7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73년도에는 계속하여 새마을 생산 유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을 연중 적정선에서 유지 시키고자 다음 표에서와 같이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적기에 구매비축할 계획으로 소요자금 2,593백만원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확보하여 품목별로 구매시기 1개월전에 사업담당(농협, 수협) 기관에 지원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73년도 중에는 72년도의 연중가격진폭 38.2%를 19.3% 이내로 억제하여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산물의 가격을 평준화 시킬 것이며,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구매가격은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결정 구매하므로써 생산농가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증산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73 농 수 산 물 비 축 계 획

표 2-28

구	분	구매 계획량	구매 자금	구매 시기	담당 기관
		%	백만원	월	
고	추	600	500.0	9~10	농 협
참	깨	800	412.8	10~11	"
마	늘	100	30.3	7~8	"
사	과	1,000	100.0	10~11	"
제	란	3,000천개	45.0	2.9~12	"
건	오 징 어	100천축	100.0	8~10	수 협
	김	500천속	300.0	2~4	"
기	타		1,105.1		
	계		2,593.2		

자료 : 농수산부

## 바. 가공식품 개발

가공식품에 대한 단기 수출수요와 중장기 국내수요에 대비하여 UNDP, FAO의 기술 지원으로 양송이, 아스파라가스, 냉동딸기, 밤 등 가공용 농수산물의 개발과 가공기술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농수산 가공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3. 양곡 정책

### 가. 양정의 방향과 72년도 양정의 성과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76년에는 쌀과 보리쌀을 자급할 수 있도록 양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

첫째,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을 위하여 양곡의 정부 구매가격을 생산자인 농민의 증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끌어 올린다.

둘째, 증산가능품목인 보리에 대하여는 구매가격 예시제와 이중매가제를 실시하여 증산과 소비확대를 함께 도모한다.

셋째, 외미도입 규모를 점차 감축하고 부족량은 맥류로 대체 확보하여 충분한 물량을 염가 공급한다.

넷째, 밀가의 적정가격 유지와 이중매가제를 지속하여 미·맥 가격차를 확대하는 등 양정을 곡가정책으로 유도해 나간다.

다섯째, 곡가조절미방출은 단경기로 제한하고 방출가격은 싯가를 감안하여 유동가격제를 실시한다.

여섯째, 혼분식장려와 식생활개선운동을 계속 추진하여 종래 쌀 위주의 양곡 소비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72년도 양정의 성과를 보면 72년도는 양정 전환초의 연도로서 쌀 소비 절약과 잡곡 소비 증가로 합리적인 국민 식생활구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72년도 양정의 성과를 물량면에서 보면 곡가조절미를 단경기에 한하여 4,089천석을 방출하므로써 71년도 방출실적 8,202천석보다 4,113천석을 절약한 반면 보리쌀 밀가루 등 잡곡을 연중 무제한 공급하여 71년도보다 5,699천석이 더 많은 16,853천석을 공급하였다.

이를 가격면에서 보면, 쌀 방출가격은 고미가정책을 지속한 반면 보리쌀 값은 쌀값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그리고 밀가루값은 협정가격에 의하여 연중 낮은 수준으로 유지 시킴으로서 미·맥 가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로 인하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24.6kg으로 나타나 71년도 141.0kg보다 무려 16.4kg나 감소되었고, 쌀과 잡곡과의 소비비율도 71년도의 67:33에서 72년도에는 59:41로 식량소비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 나. 양곡수급 동향

73년도 전체 양곡수요는 당년 소비량이 10,484천ㄹ(75,223천석), 차년도 이월량이 2,533천ㄹ(18,093천석)으로 총 13,017천ㄹ(93,316천석)으로 추산되는데 비하여 전년 미착 이월량과 국내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 가능량이 9,220천ㄹ(65,816천석)에 불과하여 공급 부족량은 3,304천ㄹ(23,971천석)에 달한다.

공급 부족량을 곡종별로 보면 쌀이 275천ㄹ(1,910천석, 현미환산 305천ㄹ), 보리쌀 350천ㄹ(2,536천석, 대맥환산 547천ㄹ), 소맥 1,990천ㄹ(14,420천석), 옥수수 611천ㄹ(4,527천석), 대두 78천ㄹ(578천석)이다.

73년도 수급 규모는 72년도 규모 12,188천ㄹ보다 6.8% 증가된 13,017천ㄹ에 달한다.

### 1) 쌀 도입량 감소

73년도 쌀 도입 계획량은 전년 미착 이월량 162천ㄲ을 포함하여 437천ㄲ으로서 71년도 도입실적 907천ㄲ보다 470천ㄲ이 적고 72년도 도입실적 584ㄲ보다는 147천ㄲ이 적은 양이 될 것이다.

### 2) 잡곡의 증량공급

미곡위주의 양곡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값이 싼 잡곡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인 바, 그 중 보리쌀 538천ㄲ(3,900천석), 밀쌀 109천ㄲ(736천석), 밀가루 1,386천ㄲ(13,860천석) 등 총 2,033천ㄲ(18,496천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은 72년도의 잡곡 공급 실적 1,151천ㄲ보다 882천ㄲ이 더 많은 양이다.

### 3) 양곡수매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증대와 충분한 정부 관리양곡의 확보를 위하여 73년산 보리쌀은 72년산 수매실적 366천ㄲ(2,655천석)보다 186천ㄲ(1,345천석)이 많은 552천ㄲ(4,000천석)을 수매할 계획이다.

그리고 72년산 쌀은 576천ㄲ(4,000천석)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507천ㄲ(3,500천석)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외곡도입

73년도의 부족양곡 3,304천ㄲ은 전량 도입으로 충당할 계획인 바, 이는 71년도 도입실적 2,883천ㄲ보다 421천ㄲ, 72년도 도입실적 3,210천ㄲ보다는 94천ㄲ이 증량되었으나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쌀은 71년도 도입량이 907천ㄲ, 72년도 도입량이 584ㄲ인데에 비하여 73년도에는 275천ㄲ으로 격감 추세에 있다.

## 라. 곡가정책

### 1) 곡가조절용 양곡방출가격

곡가조절미는 단경기인 5월부터 방출하기 시작하여 싯가를 감안 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일반미의 품귀에 따른 밧가상승에 대비 6.15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쌀 도매 최고가격을 80kg 당 10,000원으로 고시하여 소비자 가격이 10,500원 이하의 수준에서 안정 유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연도별 외곡도입상황

표 2-29

곡	종	71	72	73
	쌀	907	584	275
보	리 쌀	—	254	350
	밀	1,532	1,881	1,990
옥	수 수	383	460	611
	콩	61	31	78
	계	2,883	3,210	3,304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보리쌀은 연중 76.5kg당 4,800원으로 방출하므로써 잡곡혼식을 유도하고 밀가루는 협정가격제를 채택하고 22kg 포대당 1,189원을 견지하여 분식장려시책을 뒷받침 해 나가고 있다.

### 2) 양곡수매가격

수확기의 시장출회량의 과다로 인한 산지의 양곡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관리양곡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즉 72년산 미곡구매가격은 벼 54kg 2등급 기준 4,810원으로 쌀 80kg으로 환산하면 9,888원으로 전년 구매가격보다 13%를 인상하였고, 73년산 보리구매가격은 50kg 대맥 2등급이 3,062원, 60kg 과맥 2등급이 3,996원으로서 정곡으로 환산하면 76.5kg당 대정맥이 6,993원, 과정맥이 6,644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 3) 이중맥가제

정부는 농가로부터 가마당 6,993원에 사들인 보리쌀을 가마당 구매가격보다 2,193원(조작비를 포함하면 결손 규모는 더 커짐)이 싼 4,800원으로 방출함으로써 무려 연간 191억원의 결손을 보게 된다. 이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생계보호라는 양면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증산을 유도하고 혼식장려로 미곡위주의 양곡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 마. 식생활 개선

종래의 미곡위주의 식관습은 국민 보건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부족상태에 있는 쌀 소비절약이라는 양정목표의 구현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식생활 개선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장려·지도·계몽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통하여 음식판매업소에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첫째, 관광업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판매업소는 음식에 30% 이상의 잡곡을 혼합하여 판매한다.

둘째, 분식센터에서는 분식만 판매한다.

세째, 양식 판매업소에서는 경양식외에는 음식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네째,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의 점심식사에는 음식판매를 금지한다.

다섯째, 직석 솥밥을 판매하지 못한다.

여섯째, 수출용을 제외하고는 쌀을 원료로 하는 과자류, 엿류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바. 양곡의 보관관리

### 1) 보관물량의 증가

근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한발과 홍수 및 냉해 등 이상기후는 농작물의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더우기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의 수요 증가는 식량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은 그 증산에 온갖 시책을 강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흉작에 대비하여 여유량을 비축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당년의 생산량을 다음 생산기 이전에 모두 소비시키는 것이 상례였고 신곡의 생산기까지 지탱할 수 없을 때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수요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식량 위기의 위협하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타국에 의존하느니 보다 가능한 한 국내에서 식량의 증산에 더욱 힘쓰는 한편 비상시에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비축 등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식량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손실없이 완전하게 원상 그대로 보존하고 수요에 충당하고자 보관관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작물은 모두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저장관리는 공산품과는 달리 특별한 시설과 관리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 부 관 리 양 곡 이 월 량

표 2-30

단위 : 정곡%

연도별	곡종별		계	지수
	미곡	잡곡		
69	5,562	121,581	127,143	100.0
70	61,670	186,957	248,627	195.5
71	71,570	185,408	256,978	202.1
72	106,516	117,558	224,074	176.2
73	344,610	250,773	595,383	468.3
74	520,416	432,060	952,476	749.1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정 부 관 리 양 곡 최 대 재 고 량

표 2-31

단위 : 정곡%

연도별	구분	재고량 최대월	미곡	잡곡	계	지수
70	1 "	368,367	133,950	502,317	151.7	
71	12 "	325,313	155,498	480,811	145.2	
72	8 "	530,892	306,946	837,838	253.1	
73	5 "	921,961	266,064	1,188,025	358.8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표 2-32

정 부 관 리 양 곡 보 관 창 고 현 황

연도별	구분	동수	평수	보관능력	지수
70	동	4,478	322,894	1,133,355	105.8
71	동	4,379	318,216	1,138,657	106.3
72	동	4,345	323,556	1,136,259	106.1
73	동	5,350	425,533	1,515,085	141.4

자료 : 농수산부 양곡관리국

정부양곡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도 연년 물동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보관창고 능력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로 이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 2) 보관창고 건설

그간 보관물량의 과소와 보관기간이 단기간 이어서 보관업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보관 시설도 노후화 되어 양곡의 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고자 67년도부터 정부는 현대적인 보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6동의 저온창고와 27동의 방열창고를 양곡 주요 소비도시와 집산지에 건설하게 되었다.

표 2-33 정부창고건설상황

구분 연도별	저 온 창 고			방 열 창 고			계			소 자 요 금  천원
	동수	평수	능력	동수	평수	능력	동수	평수	능력	
67	2	1,200	8,400				2	1,200	8,400	83,005
68				1	1,600	9,600	1	1,600	9,600	146,800
69	4	6,400	44,800				4	6,400	44,800	543,000
70				6	6,600	39,600	6	6,600	39,600	391,514
71				12	6,800	40,800	12	6,800	40,800	409,313
72				8	4,800	28,800	8	4,800	28,800	447,866
계	6	7,600	53,200	27	19,800	118,800	33	27,400	172,000	2,021,498

자료 : 농수산부 식량관리국

그러나 정부가 양곡창고를 직접 건설하여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관리비의 부담과 정부재정의 팽창으로 여러가지 곤란이 있을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동원없이 정부재정으로 부족한 보관시설의 확장은 매우 어려우므로 앞으로 정부는 외국자본의 차관과 국내 민간자본의 유치로 부족한 창고시설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차관에 의한 창고건설

(1) 시설 차관 AID (농협)

표 2-34

연 도	동 수	평 수	보관능력	비 고
72	675 동	67,500 평	270,000 %	2,905,400 천원 { 내자 675,000 천원 외자 2,230,400 천원

자료 : 농수산부 식량관리국

(2) 앞으로의 건설계획

표 2-35

구 분 연차별	동 수	평 수	보관능력	자 금 조 달		
				내 자	외 자	계
1 차 년 도	635 동	127,000 평	508,000 %	1,270 백만원	4,450 백만원	5,720 백만원
2 "	175	35,000	140,000	350	1,220	1,570
3 "	175	35,000	140,000	350	1,230	1,580
계	985	197,000	788,000	1,970	6,900	8,870

자료 : 농수산부 식량관리국

3) 보관관리의 개선

또한 양곡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충분한 창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기보관을 위하여는 기후의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이 우수하여야 하고 창고를 관리운용하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곡의 보관관리"란 책자를 6,800부 발간하여 각 보관창고에 배부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상최대의 물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4.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의 개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청과, 채소, 어패류 및 육류 등 신선식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행정시장으로서 전국 18개 시에 52개의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관계법의 미비와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일관된 시책수행의 곤란 및 유통업무 감독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저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구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을 새로 제정하고, 도매시장업무를 상공부로부터 농수산부로 이관하여 기존 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유사도매시장(업자)을 정리 단속하므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쇄신할 것이다.

### 가. 기존시장 운영개선

#### 1) 시설 근대화

첫째,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은 74.5.6 까지 소요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의 정지조치를 취하고,

둘째, 농·수협외 공판장 역시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며,

셋째, 도매시장 개설자가 수수하는 사용료 전액과 수수료의 2할 이상을 반드시 시장시설 개선에 투입토록 한다.

#### 2) 대행자 재정상태의 건전한 유지

법정기한까지 대행자의 순자산액이 법정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

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킨다.

### 3) 시장질서의 명랑화

증량거래제 이행, 친절한 봉사 등 상도의 양양을 적극 지도하고 도매시장내에 있어서의 장내 암거래를 단속하며 매일 당일의 출하 및 거래량과 가격의 게시를 의무화한다.

#### 나. 유사도매시장(업자) 정리 및 단속

유사도매시장은 폐쇄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조건(위치, 인구, 거래물량)과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개설을 허용토록 하며, 유사도매업자는 법에 의거 강력한 단속과 기존시장의 증대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병행하되 일정기간의 제몽을 사전에 실시한다.

## 5. 농수산물 수출확대

73년도 농수산물 수출계획은 273,000천불로서 전년도 실적 424,894천불을 크게 하회하게 된 것은 산림청 소관의 임산물수출을 73년도부터 농수산물 수출통계에서 제외한 때문이고, 임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72년도 수출

연 차 별 농 수 산 물 수 출

표 2-36 단위 : 천불

연 도	68	69	70	71	72	73 계획
구 분						
총 수 출(A)	500,408	702,811	1,003,808	1,352,037	1,806,963	2,350,000
농수산물(B)	158,031	202,135	264,171	327,864	424,894	273,000
B/A	31.6	28.8	26.3	24.2	23.5	11.6

자료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

실적은 230,201천불에 불과함으로 실제로 73년도 수출계획은 72년도 실적보다 12%가 증가된 것이다.

한편 부문별 수출계획은 농축산물이 전체의 31%인 84,000천불, 수산물이 189,000천불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출은 양송이통조림과 생사료 그리고 육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곡물, 미과, 라면, 과일류, 돈모 등 인바, 73년도 13,000천불의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양송이통조림은 정부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68년 이후 재배를 적극 권장해 온 수출전략 품목으로서 70년 이후 수출이 본격도에 올라 71년에 4,986천불, 72년에는 8,265천불을 수출하는 등 급속히 수출이 신장되었으나 최근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협상안을 제기하여 중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외에 수입검사의 강화로 대미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서독 등 구라파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됨은 물론 재배면적의 무모한 확대를 중지하고 고급품의 생산에 주력토록 할 것이다.

73년도에 50,000천불의 수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생사료는 최근 일본의 수요량 급증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수출 유망품목이다. 육류수출은 7,500천불의 돈육과 3,500천불의 양고기 보세가공수출로 구분되는 바, 특히 돈육의 경우 71년까지 수출이 미미하던 것이 71년 10월 이후 수입국인 일본에서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72년에는 무려 5,658천불이나 수출되어 수출기반이 굳어졌으나 73년에 들어와 국내물가정책과 관련하여 수출을 제한하므로써 수출정체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수출은 농수산부문 중 가장 수출신장이 기대되는 부문으로서 활선어·냉동품·오징어·해태·참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굴통조림·전어개류·어망·한천 등이 수출되고 있다.

72년도에 27,366천불을 수출한 활선어는 주 수출대상국이 일본으로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해수오염 등으로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유망품목이며, 냉동품 역시 활선어와 마찬가지로 수출유망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해태는 73년에는 5,000천불의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일본의 해태 작  
 황 여하에 따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일본 이외의 기  
 타 시장확대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국내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수출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품목이다.

72년도에 68,032천불을 수출한 참치의 경우 73년에 96,000천불의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원양 참치는 계속 수요가 좋아 공급이 부족한 실  
 정에 있는 수출유망품목의 하나이다.

품 목 별 수 출 계 획

표 2-37

단위 : 천불

구 분	73 계획	72 실적	73/72
총 수 출	2,350,000	1,806,963	130.1
농수산물수출	273,000	230,201	118.6
농축산물	84,000	77,637	108.2
양송이통조림	13,000	8,265	157.3
생사류	50,000	52,237	95.7
육류	11,000	7,527	146.1
기타	10,000	9,608	104.1
수산물	189,000	152,564	123.9
활선어	28,000	27,366	102.3
냉동품	13,000	12,510	103.9
해태	5,000	3,223	155.1
참치	96,000	68,032	141.1
기타	34,000	29,998	113.3

자료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  
 주 : 임산물 제외

## 제 6 장 새마을운동과 농업구조 개선

### 1.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운동이며, 이는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 농가의 근대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호응하여 농촌분야에 투입될 막대한 자금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지의 행동철학이다.

새마을운동의 초기단계에는 농어민의 새마을정신을 계발 함양하여 풍요하고 윤택한 농어촌건설에의 희망과 자신을 불어 넣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도록 자극 유도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민의 소득수준을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향상시키므로써 농어촌의 구매력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동시에 농어촌 자본장비의 고도화와 기술혁신 및 생활환경의 근대화를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하는데 있으므로 정부는 환경개선위주의 시책에서 차츰 소득증대를 위한 제반시책으로 중점을 옮기게 되었다.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 보급 선정 장려하므로써 소득증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정비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능률의 극대화로 생산물의 획기적 증산을 이룩하는 동시에 생산된 상품의 판로와 가격을 보장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3년에 정부는 새마을 생산사업을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하였다.

새마을 생산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제 1 원리인 협동원리를 적용하여 농민의 협동에 의한 생산능률의 극대화를 목표로 농업생산의 주요 요소인 집단체배의 확대, 모내기 2주일 앞당기기 등 적기영농을 위한 영농시한제의 실시, 퇴비증산, 유허지일소를 위한 농상이용배가 및 수도병충해방제 등 5개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 2. 농민교육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위주의 물적 시책만으로는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유능한 농촌지도자의 발굴과 농민교육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성과분석결과 밝혀졌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도자의 확보와 농민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72년에 독농가 연수원을 설치하고 140개군에서 1군당 3명씩 독농가 420명을 선발 2주간씩 교육하여 농촌개발의 핵심적 역군으로 양성한 바 있으며, 이들에게 매년 1군당 100만원씩의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이어 73년에는 실질적인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단위 조합장 1,560명과 시군조합장 140명, 특수조합장 148명 등 1,848명의 조합장을 2주간씩 교육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자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독농가연수원을 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전하고 교육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한편 그 명칭을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으로 변경하여 농협조합장 교육이외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부녀지도자 교육, 독농가 재교육 등 농촌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새마을 학교를 통한 농민교육을 여름과 겨울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16 만명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정신교육위주, 겨울에는 기술교육위주로 실시 하였으며, 72년 제 6차 한·일각료회의의 합의에 따라 수도반, 축산반, 농협반, 원예반의 4개분야에 100 명의 농민을 선발 일본의 선진농업을 시찰하고 돌아오게 하여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3. 농업구조개선사업

#### 가. 농정의 과제

농정의 과제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있다. 즉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자연적 조건의 제약에 의한 농업의 저위생산성 및 저소득으로 인한 타산업과의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농업종사자로 하여금 타산업 종사자와 같이 균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의 개발과 농민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따라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 농산물가격 지지 및 농용자재의 염가공급 등 소득정책은 재정부담의 가중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지속적 실시가 곤란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생산시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산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농업구조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 나. 농업구조의 실태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실태는 한마디로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농지소유구조는 자작농적 농지소유제도로써 분산적인 소면적 소유형태이며, 영농구조는 미·맥중심의 영농형태로서 자본장비율이 낮고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중심과제는 농업경영의 “영세성타파”에 두어야 한다.

#### 다. 농업구조개선방향

농업구조개선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제사업을 합리적,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지,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수단의 재조직으로 농가경영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 교환 분합에 의한 농경지의 집단화와 경지정리 및 포장화 관배수 시설, 초지조성 및 조림 등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토지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둘째, 근대적 농업기계의 도입으로 자본장비율을 고도화하여 영농의 성력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셋째 :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당해지역의 여건에 알맞는 농업 근대화시설과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측되며 농경지와 경합되지 않는 시설농업 위주의 신규소득증대사업(+ $\alpha$  소득사업)을 도입하여 전업경영이나 협업경영으로 상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타산업부문에 대량 고용기회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대농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라. 농업구조개선 사업추진

##### 1) 개 황

오늘날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실시는 범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부 구미제국을 위시하여 이웃 일본에서는 제 1차 10개년계획을 끝내고 현재 제 2차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 이미 농업구조개선에 착인하여 협업개척농장 및 자립안정 농가육성을 시도한 바 있으나 여건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70년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자립정신과 개발의욕이 왕성한 농민들의 협동정신으로 본 궤도에 접어들자 경제외적인 여건 즉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됨으로서 73년도부터 새마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구조개선계획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신중한 계획과 엄밀한 검토, 조정하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제 1 단계는 경제권 중심이 아닌 마을중심으로 즉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우수 새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 2 단계로는 경제권 중심으로 본격적인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2) 방 침

- 가) 목 적 : 농업기반정비, 영농기술의 혁신 및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대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도모
- 나) 방 침 : 우수 새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
- 다) 사업계획 : 마을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책임하에 확정
- 라) 계획기간 : 제 1 차 3 개년(73~75)
- 마) 대상마을 선정기준

자발적 개발의욕이 왕성한 2,307개 우수새마을(내무부선정 자립마을)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결함사유가 없는 마을

1. 100만원 이상 부채있는 마을
2. 사업의욕이 없는 마을
3. 부락민의 총의를 얻지 못한 마을
4. 자체부담능력(총사업비의 1/3)이 없는 마을

5. 기타 불가능한 특별사유가 있는 마을(땀, 수몰지, 공업단지편입 등)

바) 사업선정기준

1.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 영농근대화시설 및  $+\alpha$  소득 사업
2. 개발의욕이 충만하고 실시 가능한 사업
3. 부락의 현재 개발정도와 장차 전망을 판단하여 적격한 사업
4. 협동작업을 주축으로 실시하는 사업
5. 농업구조개선 구상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3) 73년도 구조개선사업추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가) 일반자립 마을

1. 대상마을 : 1,862개 마을
2. 지원금액 : 총 6,642.2백만원
3. 사업추진 : 각 도지사 책임하에 추진하되 별도 내시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나) 소득증대 자립마을

1. 대상마을 : 138개 마을(일반자립마을 중 1개군에서 1개마을 선정)
2. 지원내역 : 산하기관(청) 및 단체에서 추가집중지원  
 농촌진흥청 : 주재지도자 1인 고정배치 영농기술지도 농민교육 및 훈련  
 농업진흥공사 : 농업토목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공  
 농협중앙회 : 생산작목반 구성  
 영농자금 286백만원 지원

#### 다) 구조개선 마을

1. 대상마을 : 8개마을(소득증대 자립마을 중 1개도에서 1개마을 선정 제주도제외)
2. 지원금액 : 중장기자금 80백만원 추가지원
3. 사업내용 : + $\alpha$  소득 증대사업 부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치 없이 가능한 사업 등
4. 사업추진방향  
영농 전문조사반의 농가별 영농설계에 의하여 구조개선, 시범사업을 실시.

### 4. 농가부업장려

#### 가. 현 황

농업노동 생산성 증대의 저해 요소인 농촌 유희노동력을 흡수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업사업은 잠재 실업자의 흡수 방안으로 68년도부터 조성해 온 부업단지사업과 미맥 작 위주의 영농형태에 기인된 계절적 유희노동력의 활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한기 부업사업으로 대별된다.

#### 1) 농어촌 부업단지 사업

73년 9월 15일 현재 전국에 508개 부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바 종목별, 시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농한기 부업사업

72년도의 농한기 사업기간(72. 12~73. 4)에는 가마니, 새끼, 껌치, 잠구, 찌리제품, 죽제품, 빗자루, 해태밭 등 8개 품목의 생산을 지원한 결

부업단지 종목별 시도별현황

표 2-38

단위 : 개

시도별	종목별	농축산단지	공 산 공 예 지 단	농수산자제 지 단	식 품 가 공 지 단	계
서 울		5				5
부 산		4	1			5
경 기		61	7	4	4	76
강 원		18	5	4		27
충 북		17	6	1	1	25
충 남		22	11	23	3	59
전 북		27	21	18	2	68
전 남		39	12	30	1	82
경 북		20	25	10	5	60
경 남		53	22	15	6	96
제 주			3		2	5
계		266	113	105	24	508

자료 : 농수산부 농업개발국

과 788 천호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가마니 72,118 천매, 새끼 10,019 천 마리 등 총 11,331 백만원 상당의 부업제품을 생산하여 7,320 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나. 73년도 추진사업

1) 부업단지 사업

73년도 부업단지 사업은 기조성된 단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 조성은 억제하고 기존단지를 보완 치중한다는 방침하에 시설보완이 시급한 68개 단지를 지원하고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개

구조개선 마을에 부업단지를 1개소씩 신규 조성하였다.

가) 보완대상단지 : 국내의 수요가 높아 시설확장이 필요한 단지, 시설미비로 완전 가동이 곤란한 단지, 시설보완의 경우 새로운 제품 개발이 가능한 단지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공산 공예단지에 우선하였다.

나) 자금지원 : 보완대상단지 68개소에 대해 총 72,000천원의 시설자금 융자로 (연리 9% 2년거치 3년균분상환) 854,000천원 상당의 생산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초성된 508개단지에 대해서는 단기 영농자금 601,910천원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5,300천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73 부업단지 보완사업계획

표 2-39

단위 : 천원

구분 종목별	대상 단지수	참여호수 (증가분)	제 생 산 액 (증가분)	추정소득 (증가분)	자금지원계획		
					계	제특자금	단기영 농 자 금
공 산 공 예	19	531	422,247	225,970.2	31,218	18,830	12,388
식 품 가 공	2	50	25,500	11,100	5,000	3,000	2,000
농 수 산 자 제	10	85	51,328.5	24,876.5	14,630	10,030	4,600
농 축 산	37	554	354,971.1	238,849.2	78,170	40,140	38,030
계	68	1,220	854,046.6	500,795.9	129,018	72,000	57,018

자료 : 농수산부 농업개발국

다) 기술지도 : 부업단지 제품의 질적향상으로 국내외 시장개척과 수출 품목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술훈련을 실시케 하되 중앙단위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으로 구분, 중앙단위 훈련은 수출품목 개발단지에 한하여 디자인 및 포장개선 시장정보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지방단위 훈련은 부업전반에 걸쳐 생산기술에 대한 실기교육과 단지운영 및 사례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였다.

라) 유통지원 : 농협계통기관을 통한 일괄수매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무역체와의 연결로서 수출 관광품목의 위탁가공을 추진하였다.

## 2) 농한기 부업사업

73년도 농한기 부업사업(73.12~74.4)은 농촌에서 생산이 용이하며 전국적인 보급이 가능하고 소득효과가 높은 가마니, 새끼, 꺼치 등 고품품 생산에 주력하되 이와같은 고품품 위주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 상대의 항구적인 농가공산공예품 개발의 첫 단계로서 관계기관, 무역업체와 협의하여 국내외시장전망 및 수익성이 확실한 수출 관광품목을 엄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위탁생산 방안을 강구한다.

## 제 7 장 지원시책

### 1. 시험연구사업

#### 가.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 1) 벼 신품종 육성 보급

다수성 품종인 “통일벼”는 수량이 많고 도열병과 도복에 강한 장점이 있으나 밥맛, 알떨림성, 저온에서의 적고현상 등 단점이 있어 이들 단점개선을 위해 세대단축온실과 인공기상실 및 포장시험을 통하여 72년도에는 밥맛이 좋고, 알떨림성이 없으며, 적고현상 및 병충해 저항력이 보다 더 보장된 새로운 SR3 계통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여 73년도에는 선발된 SR3 계통의 종자 증식과 76년도에 20만ha의 농가보급을 목표로 적응시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조속 다수성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2) 밭작물 조속 다수성품종 육성 보급

식량자급면에서 그 비중이 큰 보리와 콩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이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성품종육성에 주력한 결과 72년도에는 표준품종에 비하여 22%나 증수되는 콩 신품종 수계 40호 육성에 성공하였으며 73년도에는 표준품종에 비하여 성숙기가 11일 빠르고 수량이 11% 증수되는 보리신품종 밀양 6호를 육성하였고 최대한 증식 보급코저 하며, 또한 보리 SB 6920 등 3계통은 다수 조속으로 유망시되며 국제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량종자 도입과 더불어 73년에 완성된 온냉조절 세대단축 온실을 이용해서 계속 품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나. 수출원예작물 개발

국제시장성이 밝은 수출원예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과에 있어서는 성과기를 15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10a 당 수량을 2,400kg에서 6,000kg 고등채소에 있어서는 대상 채소 종류를 3종에서 10종으로 늘리고 품질향상을 기하며, 아스파라가스에 있어서는 10a 당 수량 500kg에서 800kg, 수확기간을 10주에서 13주로 연장하는 목표를 세우고 시험을 추진하였던 바, 72년에 사과에 있어서는 “스타크림손”을 선발하였으며 고등채소에 있어서는 참외, 오이, 도마도에서 유망시되는 5품종을 각각 선발하였으며, 73년도에는 선발된 왜화성 사과품종의 농가확대시험을 착수하여 국광 등 주요 사과 품종의 왜화성품종육성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

한편 72년도에 완공한 온습도 자동조절온실은 고등채소(생산, 포장, 수송 및 수출)의 일관시험 및 전업농가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4대강유역 유희지의 아스파라가스 재배시험을 확대 실시하므로써 원예작물의 수출증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다. 경지이용도 제고

우리나라의 경지 이용율을 현행 146%에서 200%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 및 맥류 생육기간을 각각 10일간 단축할 수 있는 조숙품종 개발에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던 바, 72년도에는 통일벼와 올보리를 재배하므로써 중부지방에서도 2모작이 가능하며 특히 남부 지방에서는 2모작에 의한 노동력의 경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73년도에는 벼·보리 조숙품종의 종자증식과 국제협조를 얻어 조숙벼 및 맥류품종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농한기 농민 일손의 생산화와 경지이용 확대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동계비닐에 의한 재배시험의 확대와 동계재배에 알맞는 품종선발 및 하우스내에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일련의 시험을



대단위 공동연구 체제로 실시하고 있다.

#### 라. 감자 증산 및 가공이용 확대

중북부의 답 일모작 지대에 비닐피복 감자육아재배로 답이용도의 향상과 감자증산을 목적으로, 73년도에는 답전작 감자육아재배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농가에 보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우량품종 선발시험을 통하여 다수성 조숙감자 품종선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면 감자 수요확대를 위하여 농업 관계기관의 공동연구로서 감자의 저장가공 및 조립법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마. 야산개발지역의 지방증진시험

신개간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은 보통 밭에 비하여 토양산도와 염기포화도 즉 토양의 비료 보존력이 낮으며 인산 및 유기물함유량 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바, 72년도에 실시한 신개간지의 지력증진 효과는 용성인비와 석회 및 추비를 사용하고 심경을 하므로써 콩, 옥수수, 수수, 고구마 등 각 작물이 기경지와 같이 증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73년도에는 야산개발대상지 2만ha에 대한 정밀토양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신개간지의 적응작물 선발시험을 계속하고, 또한 개량목초에 의한 자연초지의 개량시험 및 경사별 토양별 기계화 경작시험을 다각적이며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의 대단위 야산개발시책을 뒷받침 하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 바. 축산시험강화

한우의 산육능력을 개량하기 위하여 한우와 샤로레를 교잡한 결과 생산

된 1대잡종은 18개월령 체중이 숫소 651kg 암소 451kg 으로서 한우보다 45~125%의 증체를 가져와 비육우 생산에 밝은 전망을 가져왔다.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발전에 성공한 인공유에 의한 한우 비육시험결과를 하루속히 양축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에서 한우 숫송아지 30 두에 대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하였던바, 생후 15개월령 체중이 관행 195kg에 비하여 207kg나 증체된 402kg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73년도에는 계속하여 농가실증시험을 확대 실시(9개도)함과 동시에 한우의 비육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인공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축산진흥의 기본이 되는 사료자원 개발을 위하여 우량 재래산야초의 수집의 선발에 주력한 결과 72년도에는 경북 울릉도에서 수집한 양질 다수성 산야초 “섬바디”의 선발에 성공하였다. 이 산야초는 도입목초의 대종으로 알려진 오차드그라스와 알팔파에 비하여 수량이 월등히 높고 연간 8개월간이나 이용이 가능하며 조단백질과 조지방 등 영양분도 높았으므로 73년도에는 앞으로의 대대적인 농가보급을 위한 제반 기초 시험에 주력하고 있다.

돼지 일본뇌염에 면역효과가 우수하고 생산가가 저렴한 생독예방약을 개발하여 야외 접종시험을 확대 실시하므로써 보급가능성을 증대하였으며 형광항체현미경을 이용한 새로운 진단기술개발로 각종 만성 및 급성전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을 재확립하고, 마력병 예방약 생산에 관한 기초연구 및 소전염성, 비기관염바이러스에 대한 정상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약 생산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우유 및 유제품중의 항생물질 잔류량을 조사하여 축산식품에 공해도가 높다는 것을 구명하는 등 축산진흥의 기틀을 더욱 강화하였다.

#### 사. 우량 잡종 육성과 육묘법 개발

누에 우량품종의 육성을 위하여 상자당 수견량을 봄누에는 33.5kg, 가을에는 31kg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주력한 결과 72년도에는 현 장려품

종 잡 109×잡 110에 비하여 상자당 수전량과 생사량이 각각 높은 새로운 품누에 N61×C40을 육성하였으며 73년도에는 상기품종의 조속한 농가보급을 위한 기본잡종의 증진과 농가확대시험을 강화하고 있다.

잡업 증산 시책에 따른 양잡농가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육묘법 개발에 주력한 결과 현재의 접목묘보다 생산기간이 짧고(1년) 주당 생산비가 낮은 반면 활착 및 성묘 비육이 10~13% 높은 신소삽목법개발에 성공하였고 73년도에도 계속하여 신소삽목법의 보급상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시험에 주력하고 있다.

### 아. 농업 산학협동의 강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 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1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농업산학심의회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72년에는 6차에 걸친 중앙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18개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겸직교수의 추천, 농촌진흥기관공무원의 교육방안, 시험연구 시설과 공동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농과계 대학교수 35명을 농업연구관으로 겸임 발령하므로서 농촌진흥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겸직교수 이외의 교수 27명에게 1천 2백만원의 보조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농업 교육기관의 부족연구시설을 지원코자 농촌진흥청 예산 1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수도 공동시험용 세대탄축 온실을 완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기와 도서관의 대학측 이용 실적은 전자계산기이용 1,835건(55시간 21분), 도서대출 열람 992건, 문헌복사 7,067매에 달하여 연구시설과 자료의 활발한 공동이용 성과를 보게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 6명을 포함한 농업산학협동 관계기관장 66명

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 산학협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6건의 주제 발표와 함께 산학협동의 이론과 실천방법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므로써 농업 산학 협동체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 2. 농촌지도사업

### 가. 영농기술의 혁신

미곡증산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72년도에 전국 총 논면적의 16%에 해당하는 187천ha에 보급하여 일반품종에 비하여 20%이상의 증수를 거둔바 있는 신품종 “통일”을 금년도에도 계속 확대 보급하여 쌀을 증산케 할 계획인 바, “통일벼”의 획기적 다수성을 효과적으로 거양하기 위하여 68년부터 시작된 집단재배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므로써 벼집단재배 단지별로 단지운영협의회를 조직하고 재배기술의 통일과 공동작업의 실시 및 주요 생육기별 평가를 실시케 하는 한편 통일벼의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이 전포장에서 실천되도록 재배기술교재를 배부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미곡의 주산지역에 조성된 47개 미곡 대단위 증산단지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단위 수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케 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사전 기술교육을 부락단위에서 집단적으로 전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785명의 임시지도원을 확보하여 지역분담 책임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방송을 강화하여 수시 필요한 농사기술정보를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 1차 및 제 2차 사업지구 137개 단지에 1,557명의 특기별 전담지도자를 배치하여 단지농민의 사전교육과 현지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단지내에는 잠업, 축산,

원에, 특작 등 대상작목별 시범포를 집중 설치하여 참여농민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는 등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선진기술의 보급으로 영농기술의 혁신과 녹색혁명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나. 농한기의 생산화

농촌의 농한기를 생산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2년도까지 농촌에 적합한 부업을 발굴 육성한 부업단지수는 전국에 542개소가 있는 바, 73년도에도 22개소의 신규 부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참여할 부업종사자 11,840명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과 수출품목의 중점지원 등으로 농외소득의 증대와 수출증대에 기여케 하는 한편, 겨울동안을 전농민으로 하여금 배움의 기간으로 이용토록 미곡집단지배기술과 소득증대특별사업 대상작목기술 등의 생산기술교육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실천과제로서 새마을 가꾸기, 영농진단 및 설계, 우량종자교환, 영농기반정비 등 과제를 설정 실시케 함으로서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 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촌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농촌 영양개선과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 이용을 계속 확대 보급하고 있다.

농촌에서 자가생산이 가능한 녹황색채소와 두류 등 영양식품의 개발과 이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미백편중의 식생활 형태를 개선하고 특히 혼분식의 장려와 감자식품의 개발보급으로 쌀의 소비절약과 국민체위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바, 72년도까지 설치한 321개 시범부락을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73년도에는 126개 새마을을 추가로 지정 총 447개의 시

범부락을 설치 지도할 계획이다.

농민의 영양섭취상태

표 2-40

단위 : %

구 분	열 량	단 백 질	칼 슙	비 타 민	비 고
권 장 량	100	100	100	100	
72	94	91	60.5	52.7	사업실시후
68	—	83.2	37.3	36.2	사업실시전

자료 : 농수산부 농업개발국

그리고 농촌 연료혁명으로 산림복화와 지력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메탄가스 이용시설 14,300개소를 72년까지 설치 이용케한 바, 농가취사연료비의 절약과 농가주부의 생활활동 시간연장, 기타 축산장려 등 다목적의 성과가 인정되어 73년에도 계속해서 10,000개소를 보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부엌, 변소, 축사 등과 연관시켜 가정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한 메탄가스를 이용한 가정용 등(燈)이용 시범사업을 착수코자 노력하고 있다.

#### 라. 농촌지도자 육성훈련

농업시책 수용기반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촉구와 각급단위연합조직의 육성운영을 위하여 70.2.14일 창립된 사단법인 전국 농촌지도자 중앙회를 체계적으로 개편 강화하며 71.4.7 기공한 농민회관을 완공토록 하여 12만 농촌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센터로 활용, 근면, 협동하는 새마을정신 계발을 선도할 농촌지도자의 산실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차 영농주로서 또한 후계지도자로서 활동할 농촌청소년들로 하여금 농업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9년도부터 설치한 중앙농업기계훈련소에서 농기계의 조작 및 정비기술훈련을 실시하며 각도에 설치한 4-H 연수농장에서는 6~12개월간씩 잠업, 축산 및 고등원

에 등을 주과제로 한 협동영농훈련을 농기계조작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우리나라 영농구조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고, 또한 72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2년간의 미국 선진 농장훈련을 73년도에도 84명에게 실시하여 기업경영 능력을 체득케 할 것이다.

#### 마. 새마을소득증대 자립마을육성

80년대 농가소득 130만원의 조기달성을 목표로 군당 1개소씩의 새마을 자립마을을 선정, 새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종합시범새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내 자립마을 중 평균수준부락을 선정하여 우수지도자를 선발 훈련한 후 부락에 상주 지도케 하며, 부락실태를 정확히 조사 마을의 장·단기자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술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주민을 완전 조직화하는 정신혁명을 기하고, 생활환경개선과 합리적 소비생활의 실천으로 생활혁명을 기하며 시책사업의 철저한 완수와 유희자원 활용의 극대화로 녹색혁명을 기하는 등 새마을 농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바. 농업산학협동

농고와 농촌지도소와의 산학협동은 이미 선정된 12개 시범농고(이천, 홍천, 보은, 공주, 김해, 장성, 강진, 안동, 상주, 사천, 창령, 서귀)에 대하여는 교과목을 현장 실습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70%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 자영을 할 학생에 한하여 입학시키며, 연간 2개월 상당의 기업농·독농가 농장에 현장 실습을 실시하여 훌륭한 영농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며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여 근대 영농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시범농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지역 농촌지도소의 지도

사를 농고교사로 겸임시키는 한편 농고교사를 지도소 지도사로 겸임케 하여 일선농촌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 시범농고의 운영성과를 보아 점차적으로 전 농고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정비할 방침이다.

### 3. 농업 통계 개선

#### 가. 작물통계

##### 1) 미곡생산량 조사표본 확장

65년도에 설계된 미곡생산량 조사표본은 그 수가 적어 시·군별 생산량 추계 및 시·군별 증산요인 분석이 곤란하므로 동 생산량조사 표본수를 10,800개에서 23,000개로 대폭 확장하여 통계의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통계의 이용도 제고를 꾀하였다.

##### 2) 조사방법의 과학화

작물의 생산량조사에 있어 조사기구가 전무하여 조사원의 경험추정 또는 과거의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였으며 또한 제반 증산요인분석 등의 기초자료 수집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통계작성과 구체적인 증산요인 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소형현미기, 곡류균분기, 현미선별기, 입수계산기 및 수분측정기 등을 도입하여 일선에 배부하여 73년도 미곡생산량 추정부터 활용키로 하였다.



## 나. 경제통계

### 1)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 가) 농가경제조사 표본확장

현 농가경제조사표본은 60년에 설계된 것으로 현 여건을 반영하는데는 오차가 클 뿐 아니라 표본농가수가 적어 도별통계자료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70년 농업센서스자료 이용으로 표본을 새로 설계하여 표본농가수를 1,200호에서 2,400호로 확장 통계자료의 정도를 높이고 도별 통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자료의 시계열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73년에는 신표본의 2분의 1과 구표본을 병행하여 조사하고 74년부터 신표본으로 완전대체 할 계획이다.

#### 나) 부문별 농가경제보고서 발간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왔으나 동 결과의 부문별 분석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농가 가계비 통계와 농가 노동 및 생산자재 투하량 통계를 각각 별책으로 발간할 것이다.

### 2) 양곡소비량 조사

#### 가) 도시가구의 표본수 확장

양곡소비량 조사가구가 지금까지 도시에 660가구 농촌에 1,140가구였든것을 73년부터 농촌의 양곡소비량은 농가경제 조사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도시는 통계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표본가구수를 1200호로 확장하였다.

## 나) 제조업체에 대한 양곡소비량 조사

가구에만 국한하여 조사되고 있는 양곡소비량 조사만으로는 전체 양곡의 정확한 수급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조업부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양곡수급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백**

## 제 3 편 74 년도 농업시책 방향

**여백**

# 제 1 장 농정의 방향

## 1. 농정의 당면과제와 3대목표

농정의 당면문제로서 우선 최근의 식량수급동향을 보면 먼저 공급면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식량증산시책으로 식량작물의 생산이 계속 증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속도가 우리가 계획한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첫째로 농경지의 면적이 도시발전, 공장건설,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거기다 최근 몇년간은 빈번한 한발과 수해로 많은 재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와 소득의 향상에 따른 식량수요의 급격한 증가 외에 축산물의 발전에 따른 사료 수요의 급증으로 그 동안 양곡에 대한 수요증가율은 공급의 증가를 능가 하므로써 부족양곡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아울러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하루 속히 식량의 도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식량의 자급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농업의 당면과제는 바로 이 식량문제가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식량의 증산문제는 우리 농업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지상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는 식량문제와 아울러 농가의 소득증대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동안 우리는 꾸준히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써왔고 그럼

으로써 농산물의 판매가격수준을 계속 상향 조정한 반면 주요농업생산자재의 가격은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므로써 농가의 교역조건이 계속 개선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컸다. 그러나 현재의 농가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가지의 도·농간의 격차문제는 우리 농정이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당면주요과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농촌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는 농정의 3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첫째는 식량증산의 최우선적인 추진이요

둘째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이며

셋째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수출도 증대하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산하단체의 직원 및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차근차근히 그리고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10대중점시책

이상과 같은 농정의 3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4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10대 중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즉

첫째는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이다.

73년도에 들어서면서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식량파동 현상을 볼 때 식량자원의 부족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식량 자급에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때 일수록 국민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는 국민식량의 자급이 절실할 뿐 아니라 자급을 위한 식량 증산은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선 쌀, 보리, 콩 등의 주곡은 3차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76년까지는 기필코 자급 할 수 있도록 이들 주곡의 증산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와 아울러 쌀에 대한 소비절약 운동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단기적 대책으로써는 부족양곡을 적기에 도입하여 충분한 물량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양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다음 들쑤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강구 하겠다는 것이다.

농경지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이므로 양질의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은 식량증산을 위한 1차적 필요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고속도로의 건설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농경지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이를 최대한으로 보전하고 타목적에의 전용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경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보호대책을 세우므로써 농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즉 절대농지는 공공투자에 의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을 하므로써 생산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약 100만 ha를 대상으로 하되 이는 식량생산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농지로 보고 일체의 타목적 전용을 불허할 것이며 나머지의 상대농지도 타목적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존농경지로 보호하고 이와 아울러 한편으로는 유희지활용, 야산개발 등 신규 농지조성에도 힘쓰고 또한 이모작과 간작을 확대하여 기존 농경지의 이용률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세째는 생산기반 조성과 지력증진사업의 추진이다.

그동안 농업부문의 재정투자는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집중 투입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농업생산은 천후조건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므로써 불안정한 생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앞으로도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중점을 용수개발에 두고 신규 용수개발은 물론 기계개발분



에 대한 보강개발도 계속 추진하며 또한 이미 진행중에 있는 4대강유역개발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촉진으로 농촌근대화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동시에 화학비료의 편중사용으로 인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석회석과 규산질비료를 정부 지원으로 대량 공급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마을사업에 의한 퇴비증산에도 노력할 것이다.

네째는 농업기술개발로 과학적 영농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업의 생산 단수를 높이기 위하여는 생산기반확충 이외에도 종자문제와 영농방법 문제도 중요한 바, 종자문제는 다수확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그 보급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영농방법에 있어서는 대단위증산단지 집단재배 등 단지중심의 조직영농을 강화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농방법의 혁신을 기할 방침이며 아울러 농업기계의 공급을 확대하여 농번기의 부족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기반이 완비될 80년대초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기계화 영농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광의의 식량으로서의 축산진흥이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구조가 변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이에따른 축산물 수요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식량자급의 일환으로서 축산진흥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축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축산물 증산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가축의 증식사업과 비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 되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능한 한 초식성 가축에 역점을 두어 곡료사료의 도입규모를 억제토록 초지 조성과 야산개발을 통한 대단위목장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는 소득증대 시책의 본격적 시책의 추진이다.

즉, 전국에 걸쳐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그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므로 따라서 앞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궁극목표인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종래의 환경개선 위주의 새마을 사업을 소득증대에 직결되도록 지도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방법으로서 먼저 농업의 지대구분을 하고 이 지대구분에 따른 적지 적작의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에 적합한 제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근대적 영농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하여는 구조개선사업의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실시하므로써 토지,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재조직으로 농가경영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협동을 바탕으로 농특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을 종합개발해 나갈 것으로써 생산능률을 극대화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일곱째는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의 확대이다.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전개하고 있는 농특사업 중 잠업, 양송이 등 수출 작목은 농수산을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특사업을 더욱 확대하므로써 외화 가득을 얻은 농수산물의 수출 증대로 80년대 초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시책을 펴 나갈 것이다.

여덟째는 가격지지와 유통구조 개선시책의 추진이다.

종래의 농정은 생산지원에 치중해 온 감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유통지원에도 주력하여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견지하므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하되 특히 농민의 노동의 댓가는 기필 보상한다는 원칙에서 가격 정책을 다루고 아울러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등 유통구조개선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토록 하는 한편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육성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해서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으로 농가의 수취가격 재고는 물론 도시소비자도 함께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아홉째 1조 농어촌저축의 강력한 추진이다.

그동안 농가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농가의 경제적 잉여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의 저축여력 또한 꾸준히 신장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잉여가 불요불급한 소비자금융화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축 잠재력을 최대한의 제도금융의 길로 유도함으로써 80년대 풍요한 농촌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농촌내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여하고자 80년도까지 농어촌 1조 저축을 목표로 한 종합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열번째는 농업통계의 정확화를 위한 개선이다.

농업통계는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정확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하는 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농업통계는 그 조사 과정에서 유무의식 중에 착오가 있었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함은 물론 정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통계 기관·구를 독립시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한편 조사 방법도 과학화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제 2 장 식 량 증 산

74년도의 식량생산은 73년도 평년작보다 5.4%가 많은 7,843천ㄹ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쌀은 단수를 73년도 평년작보다 10% 증수시켜 총 4,344천ㄹ을 생산할 것이며 맥류는 2,339천ㄹ, 두류는 285천ㄹ, 서류는 771천ㄹ, 잡곡은 104천ㄹ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4년에는 단지조직영농의 확대, 우량종자의 보급확대, 병충해방제, 지력증진과 증산저해요인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이며 시책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74 식량증산 목표

표 3-1		74 식량증산 목표			단위 : 천ㄹ
곡종별	72 실적	73평년작(A)	74목표(B)	B/A	
계	7,208	7,445	7,843	105.4	
미곡	3,957	3,967	4,344	109.5	
맥류	2,222	2,339	2,339	100.0	
두류	261	270	285	105.6	
서류	674	747	771	103.2	
잡곡	94	122	104	85.3	

자료 : 농수산부 농산국

### 1. 단지조직영농의 확대

가. 단지영농으로서는 쌀 대단위증산단지, 벼집단재배, 쌀계약증산과 보리집단재배를 계속 확대 추진하여 영농기술의 혁신과 주산단지의 종합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 나. 74 쌀계약 증산

73년도에 정부와 새마을 부락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국 24개 부락을 선정하여 268.4ha의 농가 포장에서 이룩한 증산효과에 따라 74년도에는 전국 7,000ha로 쌀계약증산부락을 확대 선정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미곡 증산 시책을 농가 포장에서 충실히 실천하도록 보장하고, 정부는 이들 쌀계약증산부락에 대하여 영농소요자재의 우선 지원 및 영농기술지도를 책임 지도록하고 농민은 계약에 의한 운영회를 조직 정부가 제시하는 경종기준에 의거 성실한 영농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영농결과 목표량을 완수한 부락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농민이 성실히 영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단수 미달시에는 목표단수 미달량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증산 효과를 파급시켜 미곡 다수확 기술의 혁신을 기하고자 한다.

다. 쌀 대단위증산단지에 대하여는 73년도 단지 영농 결과를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단지구획의 조정, 영농조직의 강화, 표준경종기준의 보완 및 기타 단지종합개발의 지표를 명백히 하여 내부충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라. 벼 집단지재배는 73년도 206천 ha에서 330천 ha로 확대하는 동시에 과거 2개년이상 집단지재배단지로 집중 지도하여 기술수준이 향상된 단지에 대하여는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지구에서 중점 선정하여 영농기술의 전국 평준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 보리집단지재배에 있어서는 73년도의 7천 ha에서 74년에는 50천ha로 확대 추진하여 영농기술의 개선과 성력재배를 적극적으로 실현토록 할 방침이다.

## 2.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

벼종자에 있어서는 73년도에 이미 비장려품종 77개품종의 재배를 금지

시키는 한편, 18개의 장려품종 만을 재배토록 하였으나 74년도에도 우수한 품종을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74년도에는 통일벼의 생태적 특징을 감안하여 재배적지에 통일벼를 계속 보급하고 아울러 장려품종 16,300톤을 생산 410,000ha를 갱신하므로써 3년 1기의 종자갱신체계를 명실상부하게 확립할 방침이며, 맥류는 종자생산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갱신체계를 개선하고 순도 높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원종생산량을 73년 46톤에서 466톤으로 확대 생산하여 261천 ha에 보급할 계획이다. 대두는 4,069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75,351ha에 보급하고 옥수수 400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8,000ha에 보급할 것이며, 감자는 경지이용도 향상을 위한 논 앞그루 감자재배면적 확대에 소요되는 종서공급을 위한 기본종서의 증량 채종을 위하여 원 원종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73년 종서보급량 10,800톤의 배가 되는 21,600톤의 종서를 생산 보급하고, 고구마도 3,321톤의 종서를 생산하여 3,496ha에 보급할 계획이다.

### 3. 보온못자리 확대 설치

조기 모내기 of 절대요건이 되고 추수기 냉해예방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보온못자리는 74년도에도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냉해상습지·냉해우려지구 전면적과 기타 조기이앙이 가능한 모든 면적(30%로 추정)에 대하여 보온못자리를 설치할 것이며, 보온못자리의 설치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포리에치렌 필름은 전량 외상으로 용자 공급하고 특히 보온못자리용 골재를 표준규격화하여 농가에 대대적으로 용자 공급할 계획이다.

### 4. 병충해방제

74년도는 병충해로 인한 감수방지 목표를 생산계획량의 14.4%로 설정

하고 수도 식부면적의 6회방제로 연면적 7,124천 ha를 공동방제와 일반방제로 구분 실시할 것이며, 공동방제는 중요 병해 및 돌발 해충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농약대는 전액 국고 부담하고 기계 및 유류대는 지방비에서 노력은 농민부담으로 하여 기동성있는 사전방제를 실시하며 일반방제는 농민자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병충해방제의 신속 정확을 위하여는 이미 확대 강화하여 온 예찰체계를 정비하여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병충해 발생을 예견 또는 조기 발견하여 이를 미연에 방제하는 적극적인 사전 방제태세를 취하며, 발생예찰은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기설치된 43개기본예찰소의 예찰결과와 172개 시·군 농촌지도소의 순회시찰 결과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별로 예보를 발표하며 특히 쌀 대단위증산단지에는 단지별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활동에 있어서는 새마을 단위 협동작업반에 의한 공동작업으로 집단 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항공방제는 대면적에 대한 동시방제가 가능하고 지상방제보다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방제효과도 크기 때문에 73년도 7만 ha에서 9만 ha로 확대 실시하고 쌀 대단위 증산단지에 우선 실시함으로써 방제효과를 한층 높게 할 것이다.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농약은 농협과 시판을 통하여 사전 공급할 것이며 동력방제기구 19,000대를 신규 공급하여 일제방제능력을 73년의 5.8일에서 5.4일로 단축할 것이다.

## 5. 지력증진

지력증진은 농업생산에 있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74년도에는 퇴비의 증시에 의한 토양 유기물 함량의 증대와 개량제의 확대공급 및 객토 심경의 조직적인 실천으로 저위생산토양의 개량에 주력할 것이다.

토양개량제로서 규산질은 120 천톤을 투입하여 60 천 ha에 사용하고 농용석회는 500 천톤을 투입하여 250 천 ha에 사용하며 객토와 심경은 대상답을 3년 1기체제로 하여 연간 각각 140 천 ha와 220 천 ha씩 실시하여 토양개량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 6. 증산저해요인의 사전예방

74년도에는 위 기본시책 이외에 증산의 저해요소가 되는 모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기상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천수답에 대한 밭 전환사업과 건답직파 등 경종 대책을 강력히 실천할 것이며 모든 영농작업의 적기 정밀작업을 강력히 이행하도록 행정력과 지도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다.

## 7. 밭작물 증산

식량작물을 주작목으로 한 밭작부 체계개선에 역점을 두어 1년 1작의 다모작화, 간작법의 확대, 개량품종의 보급확대 등 경지이용의 극대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밭작물 증산을 도모할 것이다. 밭작부 체계개선은 장기 과제로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경영연구소로 하여금 지대별 작부체계모형 확립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할 것이며 전시포의 설치, 경영전문지도원의 양성 배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밭작물 중 식량작물 증산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보리의 2중백가제를 계속 실시하여 수매가격 및 수매량을 미리 예시하여 증산의욕을 고취할 것이며, 콩은 완전 자급을 위하여 옥수수 잡곡 등 수익성이 낮은 작목을 콩 재배로 전환하고 논두렁, 과수·상전의 간작, 야산개발 등 유휴지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경종기술의 보다 강력한 개선, 지도로 단



위 수량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감자는 육아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중부 이북의 논 앞그루로 1만ha를 확대 재배하여 72년 대비 87천톤을 증산하도록 하며, 감자의 주식화 방안을 연구 발전 시키는 한편 소비확대에도 힘을 기우릴 것이다.

고구마는 주정 및 전분원료자급시책에 따라 원료 저장에 가능한 절간고구마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적정가격 유지와 농협 계통수매를 확대 실시할 것이다.

## 8. 비료 수급대책

74년도 비료수요량은 921천톤(73대비 15%증)인바, 3요소 구성비율은 52 : 29 : 19로 책정할 것이다.

이는 질소질 비료의 편중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인산·가리질 비료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3요소 균형시비를 향상시켜 질소질 비료의 편중 사용에서 오는 감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판매방법에 있어서는 73년 여름까지는 지난 7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해온 개별 농가판매제로 연중 제한없이 판매하였으나 가수요의 증가로 일부 농민의 적기 시비가 어렵고 과다 시비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므로 작물별 시비 추천량을 기준하여 실수요자에게 적량 판매토록 하여 3요소 균형시비의 향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비료의 현금·외상판매 비율은 작년도와 같이 현금판매 70% 양비교환조 외상판매 30%로 하여 비료사용량의 증대에 노력하는 동시 농가의 영농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비료의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업무를 면단위 이동조합에 이관 취급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비료구입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동 농업협동조합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다.

##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생산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쉬운 농업생산의 재해를 극복하자면 농업용수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노동력의 절감과 농업기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왔고, 제 3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새마을 경제협력 계획등 각종 외자도입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중에 있다.

### 1. 농업용수 개발

72년말 현재 총 담면적 1,275천 ha 중 수리안전담 면적은 1,045천ha로 수리안전율은 82%까지 이르렀으며 73년에는 15,000ha를 신규 개발하므로써 수리안전율을 83%로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리안전율은 76년에는 90%, 81년에는 93%까지 끌어 올리므로써 용수개발 가능면적을 전부 개발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74~75년에는 이미 착공한 지구를 조기에 준공할 방침하에 내자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AID 차관 30 백만불로 29천 ha를 개발할 계획이다.

### 2. 4대강유역 및 대단지 농업용수 개발

부분적인 한해대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는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대해서라도 항구적인 수리안전담을 확대 조성코자 69년부터 투자규모가 큰 4대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수원 개발에 착수하여 항구적인 수리안전담을 조성하는 한편 농경지 확장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작부체계 개선 등을 이룩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는 바, 69년부터 착공한 금강평택지구는 74년에 완공되어 37,350ha의 전천후 농업개발이 이룩 될 것이다.

### 3. 경지정리

경지정리 대상면적 588천 ha 중 73년까지 223천 ha의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대상면적 대비 38%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74년도에는 22천 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금강·평택지구 개발로 1.8천ha를 시행하는 등 24.8ha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 4. 야산개발

62년부터 72년까지의 야산개발실적은 153천 ha에 달하는 바, 이 야산개발은 농경지의 확대,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유위한 시책으로서 74년부터는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175천 ha의 대단위 야산지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하여 연간 10천 ha씩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 5. 농업기계화

농·공간 소득격차의 점진적인 해소로 인한 농촌노임의 상승, 농촌노동력의 감소, 경지정리 면적의 증가와 농가소득증대 경향의 가속화로 인하여 농업 기계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어 74년도에는 총 32억원의 자금을 지원

하여 동력경운기 9,200대 동력분무기 2,500대 동력살분무기 16,500대 양수기 5,754대 탈곡기 4,800대 등을 공급할 것이며 수도권 이외에 일관기계화 작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유리한 차관을 도입하여 종래의 경운기 등 소형 농업기계 중심에 트랙터 콤바인 등의 대형 농업기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제 4 장 성장농업의 확대

### 1. 축산진흥

축산은 일반경종농업의 부업적 위치로 부터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기업화내지는 상업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68년 축산진흥시책이 수립 추진되므로써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 해 왔다. 축산진흥은 국민경제향상과 더불어 수요가 증대되는 축산물의 자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좁혀주기 위한 수단사업으로서 더욱 의의가 큰 것이다.

#### 가. 한우증식

축산진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우증식에 있어서는 한우 자체의 시급한 최대한의 개량증식을 기하고자 연간 41,000 두의 육성우를 농가에 지원 입식토록하고 6,100 두의 비육우입식으로 한우의 증체 활용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한우의 최대한 증식을 위하여 새로운 우육 자원인 육우를 IBRD 차관으로 도입하여 제주도와 태백지구를 중심으로 육우목장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나. 양돈 및 양계

양돈은 과거 대홍콩 생돈 수출이 중단된 후 국내 자급 범위내에서 생산되어 오다가 71년 후반기부터 대일본 돈육수출이 재개되어 72년도에는 6백만불의 수출고를 올려 국내 규격돈 생산문제가 시급해지기 시작하여 국내의 양돈업계는 새로운 생산기반조성에 급급하여 자돈가격의 상승과

돈육의 품귀상태를 유발케 하였다. 수출 규격돈의 물량은 국내 총수요의 5% 밖에는 되지 않으나 규격돈 생산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국내돈육시장에서 다소 수급 차질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일반 양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업내지 기업화 양돈장과 수출업체의 양돈 의무화 등으로 일반시장에 영향없이 수출규격돈을 생산 시킬 것이다.

양계는 축산업 중 가장 기업화가 빨라 양산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73년부터 조절 생산케 하므로써 양계업의 신장은 72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양계생산 조절을 위하여 도입종계의 수를 제한할 것이며 점차로 국산종계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 낙농장려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유 및 유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72년 상반기로 끝난 외국원조 분유의 도입대체를 위하여 7,000두의 젖소 도입과 유치리 가공공장의 보완증설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 아동 급식 등 우유소비 확대책을 강구하고 한독, 한유, 서삼능 등 시범목장을 통한 기술보급으로 낙농진흥을 도모 하므로써 젖소의 연말보유두수를 60천두로 확대하고 73년보다 35.7천톤이 많은 139천톤의 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 74 가축증식 및 축산물생산계획

표 3-2

구 분	단 위	한 우 쇠고기	젖 소	돼 지	닭	
					닭고기	계 란
1인당 소비	공 (개)	1,508	4,156	3,225	1,934	97
축산물생산	톤 (백만개)	50,272	138,980	117,512	64,414	3,366
가축증식	천두 (수)	1,452	60	1,613	29,181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 라. 초지조성 및 사료대책

축산진흥의 기본조성을 위하여 집약초지의 조성사업을 매년 확대해가고 있는 바, 74년도에도 신규로 4,500ha의 초지를 조성, 총 62,300ha의 초지를 확보하여 1,246천톤의 우량목초를 생산하고 아울러 답리작 사료작용의 재배도 장려하여 자급사료의 생산을 증가 시키므로써 농후사료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73년까지 조성된 초지 57.8천 ha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한편 사료조절 자금 1,330백만원에 의하여 74년도 배합사료 생산계획량 1,004천톤의 22%에 해당하는 230천톤의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배합사료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할 것이다.

## 2. 경제작물 증산

수출시장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품목을 증산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재배면적의 확장과 신기술의 보급 및 시설자재를 지원하여 지역특수성에 알맞는 품목별생산체제확립과 생산물에 대한 판로확보 및 가격보장시책을 적극 실시하되 새마을소득증대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74년도 생산목표와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74 경제작물 생산목표

표 3-3		단위 : 천%		
구	분	74(A)	73(B)	A/B
특	용 작 물	95	84	113
양	송 이	38	27	141
과	실	569	532	107
채	소	2,940	2,754	107
	계	3,633	3,397	107

자료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 가. 추진시책

### 1) 생 산

1. 수요판단에 입각한 계획생산을 추진한다.
2. 지역특수성에 알맞는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3. 단위생산성 제고와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계화에 의한 협업경영으로 유도한다.
4. 유향지를 생산화하여 국내유지 자급도를 향상시킨다.

### 2) 유통

1.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축소시킨다.
2. 계약재배의 확장과 가격예시품목의 확대 및 정부 비축사업의 실시로 농가 판매가격을 보장하고 가격평준화를 도모한다.
3. 농산물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복합원료권을 조성하여 공장 가동율을 제고시키고 생산품목의 원가를 절감케 한다.
4. 해외시장 동향조사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를 기한다.

### 3) 잠업증산

획기적 잠사견업진흥계획의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양잠규모 적정화, 잠업생산 하부조직 강화로 양잠경영의 협업화와 공동화를 촉진하므로써 시설양잠을 적극 도입하여 잠업생산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생산수급의 원활을 도모하여 외화가득액을 최대한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74년도의 잠업진흥시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74년도 주요사업 목표

표 3-4

식	상	1억주
고	치	34천%
생	산	
고	치	31천%
공	판	
생	사	4,030%(2,320%)
수	출	
수	출	액
		158,340천불(55,790천불)

자료: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주: ( )내는 직수출분임

가. 생산기반확보

- 1) 상묘생산의 실수요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자가 상묘생산을 적극권장하여 1억주식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뽕발전용비료의 개발과 비배관리 및 뽕발 병충해공동방제 강화로 뽕밭 10a 당 고치생산을 38kg에서 44kg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나. 잠견생산

- 1) 양잠농가의 의욕고취를 위하여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잠실 및 치잠공동사육시설을 계속 보급하고 각종작업을 공동화하여 노동력을 절감케 하여 수지맞는 양잠기술을 보급시켜 농가호당소득 55천원에서 80천원 수준으로 증대 시킨다.
- 2) 잠견생산 공동방제를 적극 실시하고 잠엽기술요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새로운 양잠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잠견의 공동출하와 기계검정 거래를 확대 실시하므로써 농민의 양잠의욕을 계속 고취시킨다.

다. 생사수출

- 1) 생사수출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구견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제사공장 운영·감독을 강화한다.
- 2) 의화가득액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사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므로써 수출목표 1억 6천만불을 초과달성토록 노력한다.

## 제 5 장 농산물유통개선

### 1. 농산물의 수급원활과 가격지지

도시인구의 팽창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요를 원활히 공급하여 전체경제의 안정성장기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 농가의 판매가격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74년도에도 73년도에 이어 다음과 같은 유통시책을 강구할 것이다.

#### 가. 생산유통의 일관체제 확립

식량의 수급균형을 위하여 주곡은 계속 증산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농수산물은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계획생산을 유도해 나갈것인 바, 개별품목단위의 수급전망에 따라 농협체통의 작일반을 중심으로 주산지 위주의 계획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계속하여 가격예시제 및 계약재배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증산과 가격지지 및 판로보장에 주력할 것이다.

#### 나. 계통출하체계의 강화

유통과정의 다단계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불필요한 중간이윤과 유통지체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변에 이미 설치한 바, 있는 농산물집하장과 전반적인 농협의 공판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지 중심으로 계통출하에 필요한 자금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다. 수매 비축사업의 확대

수확기와 단경기간에 가격진폭이 심한 고추 참깨 등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서는 최성출회기에 생산자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가격으로 수매 비축하여 두었다가 단경기에 정부물가시책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방출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농수산물가격을 평준화시켜 나갈 것이며, 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저장시설 확충과 아울러 사업수행방법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체계의 강화

### 가. 개설허가

도매시장의 청과부와 수산부는 인구 20 만이상, 축산부는 50 만이상의 도시에만 설치토록 하며, 농·수협이 공판장은 가능한 한 도매시장이 개설되지 않는 도시와 읍에만 설치토록 하되 기개설된 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간에 경합이 심한 경우는 입지조건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조정 또는 정리할 것이다.

### 나. 출하단체 육성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개선, 수송 등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협을 출하단체로 육성하되 시장수요와 단계별 단위조합의 자립화계획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의 출하단체의 양성화도 병행할 것이다.

#### 다. 시황정보센터 설치 운영

도매시장별 반입품목과 수량 및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조사하여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매일 시황을 통보케 하므로써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다.

### 3. 양곡수급의 원활과 곡가안정

72년도 하반기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세계적인 식량부족현상과 국제가격의 이상적인 폭등에 대비하여 73년도에 마련한 바 있는 장기양곡확보대책에 따라 국내부족 양곡을 적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적량을 확보 공급하여 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적인 식량부족현상에 대처하고 76년도에는 미·맥의 주곡자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대 전환을 본 양곡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격면에서는 적정미가정책과 이중백가제의 계속으로 미·맥가격차를 확대하고 잡곡을 엷가로 다량 공급하므로써 쌀의 소비절약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잡곡의 소비대체를 적극 유도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양곡의 정부수매가격을 재정정책과 물가안정시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며 보리쌀에 대하여는 파종기 전의 가격에 시제를 계속할 것이다, 소비자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가격으로 유지할 것이다.

## 4. 농수산물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

### 가. 농수산물 수출확대

73년에 273,000천불의 수출계획 아래 7월말 현재 이미 188,105천불을 수출하여 68.9%의 목표를 달성하므로써 목표달성이 무난 할 것으로 보이는 농수산물 수출은 74년도에는 73년보다 28.2%가 증가된 350,000천불의 수출계획을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 1) 해외시장의 다변화

농수산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취약점인 지나친 대미 및 대일 수출 의존도 때문에 미국 및 일본의 미미한 국내사정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각 수출단체를 중심으로 연중 계속적인 시장조사와 아울러 신규 시장개척의무를 부과하여 주 수입국들의 국내 경제변화 및 수입제한 조치에 불구하고 계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 2) 수출전략품목의 확대와 비축제 실시

그간의 해외시장조사에서 장기적인 수출가능성이 엿보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 의한 지정 품목으로 지정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나타내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할 뿐 아니라, 수출가격의 등락진폭이 큰 품목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축기금을 확보하여 비축제를 실시할 것이다.

### 3) 수출체계의 정비강화

신규개발 수출품목 또는 수출전략품목 중 생산·수집·가공·수출체계의 미비에 따른 무책임한 offer의 남발과 이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무모한 가격 경쟁과 dumping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날로 심해지는 수입국들의 수입검사강화에 대비하여 자체검사를 강화토록 하여 상품의 국제 성가를 높이도록 한다.

### 4) 수출기반의 대대적인 확장

수출전략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 의한 생산단지의 지정은 물론 기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물가 및 기타 여건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의 수출단지화를 유도하여 수출 양산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집중 지원한다.

### 5) 수출절차의 간소화

국내 생산질서 확립 및 수급의 원활과 과도경쟁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추천권을 모두 이양하고, 수출용 원자재소요량 역시 농수산부 산하 제3시험기관을 지정하여 기준 소요량을 산출·고시토록 할 것이다.

## 나. 농수산물 수입억제

72년도부터 실시해 온 농수산물 수입억제계획은 73년에 들어와 국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인 요인에 의거 약간 완화된 바 있으나, 74년도 역시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 1) 소비수요의 억제

세계 각국의 농산물가격 상승 및 수출규제에 대비하여 국내생산가능품목의 대대적인 증산과 우등재의 열등재 대체사용에 의한 소비수요를 감축토록 유도한다.

## 2) 대체사업의 육성

수입품의 국산대체를 강력히 추진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합작투자를 이 부분에 적극 유치토록 노력한다.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수입을 지양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가공토록 유도하고 수출용 원자재는 국내생산 불가능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국내공급토록 유도한다.

## 제 6 장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 1. 새마을 생산사업의 추진과 농민교육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새마을 운동은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 생산사업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또한 농촌지도자의 교육과 농민교육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한편 74년부터는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생산능율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새마을 운동을 영속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정비와 농산물의 가격지지 및 판로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 2. 농업구조개선사업

1 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중심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3개년 간(73~75) 강력하게 추진해 가면서 1차년도에 의한 발전으로 농업소득 70 만원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 73년 구조개선사업추진으로 선정된 일반자립마을 1,862개 마을 및 소득증대 자립마을 138개 마을에 대한 지원계획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나. 구조개선마을 8개 마을에 있어서는 영농설계에 의한 마을구상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원 및 행정력의 지원으로서 구조개선마을이 지



역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끔 농촌구조면이나 소득면에서 변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3. 농가부업의 장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고 여타사업에 비해 기술혁신의 진척도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시책과 병행하여 농외소득원의 확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새마을 공장과의 유기적인 관련하여 농어촌공산공예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좇아 74년도에 추구할 시책은

첫째, 농촌가내공업으로 이미 생산기반을 굳히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전망이 좋은 축제품, 초경제품, 기타 토산품 생산단지를 육성할 것이며

둘째, 새마을공장과의 계열화를 추진하여 이들 공장과의 하청생산을 통한 노임소득증대를 강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업단지는 양산, 봉제품, 인조진주 등 노동집약적 잡화공업의 부분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타 농가에서 생산 가능한 합성수지바구니, 비닐우산, 자수, 수편물, 훌치기, 쓰르기, 낚시대단지 등을 보완 지원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새마을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이러한 품목의 부업단지를 조성하여 유희노동력의 편재와 지역간의 농가소득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 제 7 장 지 원 시 책

### 1. 농사시험연구의 강화

#### 가. 식량증산

1) 식량자급자족을 목표로 쌀 생산 증대를 기하기 위해 세대단축온실과 인공 기상실을 이용한 광지역 적응성을 갖춘 양질 다수성이고 내병충성인 신품종 육성과 “통일벼”의 단점인 알떨림성 및 밥맛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를 계속 실시하고 온냉조절 세대 축진온실을 이용하여 조열다수성 신품종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수량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2) 농한기 및 유휴지의 생산화를 기함과 아울러 단위면적당 토지 생산성 제고와 전답의 다모작 체계의 기준설정을 위해 주어진 토지와 환경하에서 지역별 유형별의 최대한 활용으로 경지이용도 향상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생산의 외연적 확대를 도모키 위해 종합적인 야산개발 시험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저위생산지 개량과 시비법 개선의 기초가 되는 토양조사사업과 비옥도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토지이용 추천도를 작성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각 작물별 지역별 적정 시비량을 구명하여 시비법의 합리화로 생산증대를 기하도록 연구한다.

3) 주식화 작물을 확대개발키 위해 감자 우량품종 육성 보급증대와 감자를 이용한 가공법 개발 및 저장방법 시험을 확대 강화 실시하여 식량증산과 식생활개선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한다.

## 나. 축산진흥

한독기술협력에 의한 초지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초지조성의 기반을 확립하고 섬바디의 농가보급을 위한 종자 증식과 농후사료화시험, 도입목초 품종의 적응성 검정시험, 사료의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험 등을 확대강화 실시하는 한편 한우 육용화를 위한 시험, 국산계 개량시험, 가축사양 표준제정에 관한 시험, 인공유에 의한 한우비육 및 비유능력 향상시험을 계속 실시한다.

가축위생연구에 있어서는 가축 질병 예방약과 진단액의 질적개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만성질병·생산성 저해요인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을 확립한다.

## 다. 경제작물 개발

80년대의 국민소득 1,000 불 달성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수입대체를 꾀하고 동시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원예작물 개발 및 확립에 중점을 두고 양송이, 유채, 참깨, 땅콩, 고등소채 및 감귤의 품종 육성으로 수익성 작물의 생산성 향상 시험을 계속 추구하고 아울러 동계 비니루 농법 확립시험을 확대강화 실시한다.

또한 모시 인초 등 공업원료작물의 품종 육성과 재배법개선시험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성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의 기틀을 구축토록 한다.

양송이 우량종균의 개발을 위해 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양송이 종균검사 및 기술훈련을 더욱 강화시켜 종균의 품질 향상과 양송이 생산의 안전화 및 단위면적당 수량성 제고로서 가공품의 품질 및 가공 수율의 향상을 도모한다.

## 라. 잠업 증산

우량잠품종 및 양질다수내한성 뽕나무품종 육성시험을 강화하고 뽕발생 산성 향상을 위한 성력재배 및 지력증진시험, 성력양잠과 누에되기 안정을 위한 사육법 개선시험, 생사가공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사기술 개선 시험을 계속 실시한다.

## 마. 농업 산학 협동

실질적인 농업산학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상호겸직제도를 일층 더 보강하고 정부 주요시책과 직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공동연구 과제를 확대할 것이며 연구공무원의 학위과정 이수와 기본학력이 낮은 지도공무원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육기관과의 협력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또한 비겸직교수에 대한 보조연구비를 증가하여 농과계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고와 농촌지도소간에는 교사 지도사의 상호겸직 및 농고 재학생과 시책단지와의 자매결연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증산운동 참여와 실기 능력 향상을 기하고 시·군단위의 농업산학협동협의회운동을 강화하여 지역 농촌지도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토록 할 것이다.

## 2. 농촌지도 사업의 강화

### 가. 영농기술의 혁신

영농기술혁신을 위한 농민기술 침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도능력을 향

상시킬 계획이다. 그리하여 새 기술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목별 대단위증산단지와 집단재배단지를 계속확대 조성하여 협동작업에 의한 기술수준의 높은 평준화를 기하고 농사개량 구락부와 4-H 구락부 등 농민자조조직체를 점차 근대적 협동 생산조직으로 개편하여 자발적으로 시책사업을 시범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의 생활개선으로 농가부녀자들의 영농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로 지도소를 증설하도록 하여 철저한 지역분담제에 의한 책임지도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도공무원을 전원 재교육시켜 농촌봉사자로서 또는 농촌의 개척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모든 농민들에게는 농한기에 사전 집단영농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대비케 하며 중앙시험연구 기관이나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전문기술훈련 및 시책과제중점훈련 이외에도 농업방송이나 농사정보발표 및 각종 기술교제발간 배부 등으로 당면한 과제교육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녹색혁명완수를 위한 영농기술의 획기적 신장을 기할 계획이다.

#### 나. 전농민의 기술자화를 위한 농업기술훈련 강화

새마을 운동의 영속화로 80년대의 100억불 수출과 농가소득 130만원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하여 모든 농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훈련을 제도적으로 강화 실시하여 모든 농민의 기술자화로 농업생산과 농업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하던 농기계 훈련과 농촌부녀자에 대한 생활기술훈련 이외에도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 분야별 기술훈련소를 신설하여 작목별 전문기술이나 분야별 특수기능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적 영농을 경영할 수 있는 독농기술자를 대량확보할 계획이며 도단위에서는 농촌의 후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영농기초교육과 농기계

훈련을 병행하여 수료 후 영농정착할 수 있는 기초자질을 함양케 하며 벼 집단체배와 농특사업단지 등 시책단지 회장들에 대한 과제훈련을 계속 실시함과 동시에 농촌부업기술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일반농민들에 대한 당면 영농과제 훈련을 계속 강화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훈련시설을 확보치 못한 일부 군에 대한 시설비지원을 확대하여 전농민의 기술자화를 위한 기본 교육 여건을 정비 보강할 계획이다.

#### 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촌의 비위생적 생활환경과 불합리한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농민복지향상과 농촌부녀자의 생산활동 참여를 확대 할 계획이다.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계속 보급하여 농촌 주택환경을 개선하며 농촌영양 개선사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체위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농번기 중에는 부락마다 탁아소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건전하게 기르는 동시에 농촌부녀자를 농업생산에 능률적으로 참여케 할 것이다.

#### 라. 자립마을의 시범적 육성

소득증대 시범마을로 선정된 새마을 자립마을 138개 부락에 대하여는 73년도에 실시한 주재지도사의 임명배치 및 기본 개발계획의 수립을 기초로 74년도에는 본격적인 부락개발사업을 착수하여 마을마다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능력에 적합한 소득증대사업을 실시케함으로써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마을의 시범적 육성을 기할 계획이다.

### 3. 농업통계 개선

농업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농업통계의 개선으로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가. 조사기구의 강화

통계의 신속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날로 증대되는 통계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통계 조사기구를 강화함과 아울러 농업통계 조사기능을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농수산부 소관하에 일원화할 것이다.

#### 나. 식부면적의 정확한 파악

공부상의 경지면적과 실지경지면적의 차이로 생산통계의 기본이되는 작물의 식부면적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74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행정 이·동별로 통계조사용 지적약도를 작성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 나가므로써 작물별 식부면적 파악의 정확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 다. 조사방법의 개선

현재 전수 행정조사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 농가인구 농가호수 경지면적 등 농업기본통계조사와 가축통계조사를 보다 정도 높은 표본조사로 대체하기 위하여 74년도부터 시험조사에 착수하고 현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잡곡 및 두류의 생산량조사는 73년도의 시험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할 것이다.

#### 라. 조사장비의 확보

일선조사원이 기동력없이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어 적기에 현지 조사가 불철저한 실정이며 또한 자료처리도 수집계하는 관계상

신속한 집계가 불가능하므로 7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일선조사원에게 기동력(오토바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일선에 자료처리기(전자계산기)를 공급하여 현지 조사의 불철저와 자료처리의 지연 및 오차 등을 시정해 나갈 것이다.

#### 마. 조사범위의 확대

아직까지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특용작물 및 축산물 등의 생산량 및 생산비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동품목의 수익성 및 수출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다목적의 정책자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